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8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August Vol.260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한여름밤 울려 퍼지는 천상의 소리

베토벤 삼중협주곡 작품56

L. v. Beethoven Triple Concerto for Piano, Violin and Cello in C Major, Op. 56

번스타인 '캔디드' 중 <화려하고 쾌활하게>

L. Bernstein <Glitter and Be Gay> from Operetta 'Candide'

림스키 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 작품34 外 수 곡

N. Rimsky-Korsakov Capriccio Espagnol Op. 34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ⁿ 비엔그룹 · 대선주조 와 함께하는

제6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13. 8. 31(토) | pm 3:30, pm 7:30 | 1일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Bⁿ 비엔그룹 · 후원 NBSN 넥센윌석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ⁿ 대선주조

BSO Members 객원악장 김희정 제1바이올린 홍기정(수석) 강수정 윤주연 정운봉 문현정 박완서 정다혜 김상희 정주연 한유진 이정림 김푸름 이희진 최보린 최서연 제2바이올린 이정미(부악장) 조영숙 배연주 동경화 손주연 김신실 정희경 진선미 원아름 이에나 김수진 양예지 김설화 김호빈 비올라 박주연(수석) 정지윤(부수석) 김상철 손주연 권윤희 이승연 이영화 이현원 김혜린 손민정 윤솔샘 한지혜 첼로 이현정(객원수석) 하유나(부수석) 정유나 김혜은 현리사김유미 이연주 강진희 손미리 홍영준 박혜미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박지선 김은정 김선경 이현정 황예원 플루트 김동욱(수석) 채성경 황미리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부수석)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바순 윤태준(수석) 양희경 호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이민정 이유경 박용인 트럼펫 주현(수석) 전상윤 트롬본 이웅희(수석) 전해상 주성혁 튜바 김기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부수석) 김보배 전상천(객원) 김동주(객원) 이경준(객원) 하프 이은희(객원수석) 총무 이웅희 사무실장 문지은 악보 박주희 김신혜 악기 주성혁 무대 전상윤 어경진



첼로 양욱진

바이올린 양경아

피아노 김정권

소프라노 전지영

Bⁿ 비엔그룹 · **이기** 는
 예술을 사랑하며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지역출신 예술가를 적극 후원합니다.



문의 **KNN** 1899-0048

예매처 **INTERPARK** 1544-1555

티켓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BS 문화사랑카드 20% 할인

Bⁿ BIP
비아이피(주)

Bⁿ STEELA
비엔스틸라(주)

Bⁿ COSMO
(주)코스모

Bⁿ SNB
에스엔비(주)

Bⁿ BIPEX
(주)바이펙스

Bⁿ FURNITURE
비엔가구(주)

Bⁿ BISCO
(주)비스코

Bⁿ AISCO
아이스코(주)

Bⁿ STEEL
비엔철강(주)

Bⁿ BIP-WEIHAI
부일방화판재유한공사(중국)

Bⁿ USA
BN USA,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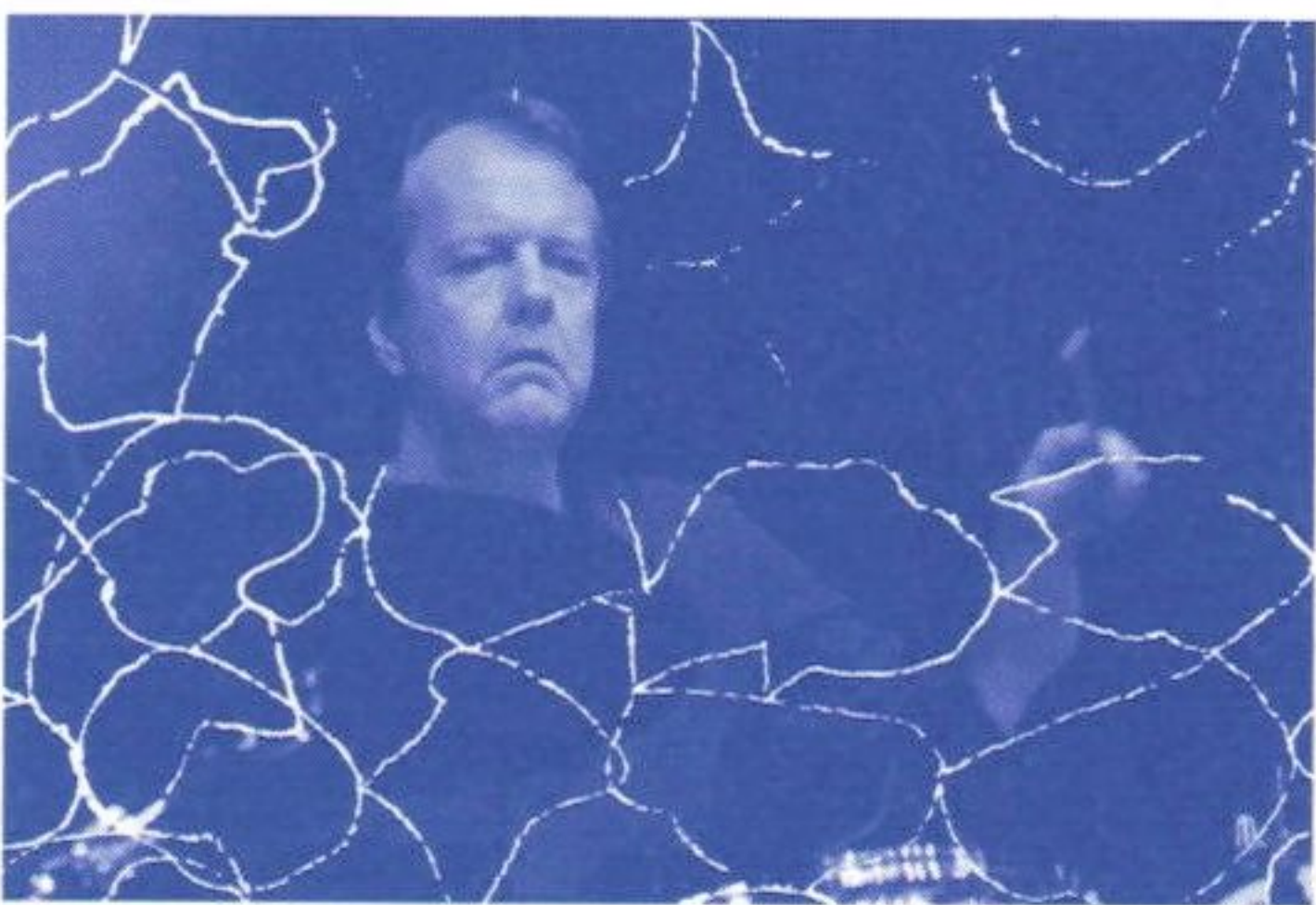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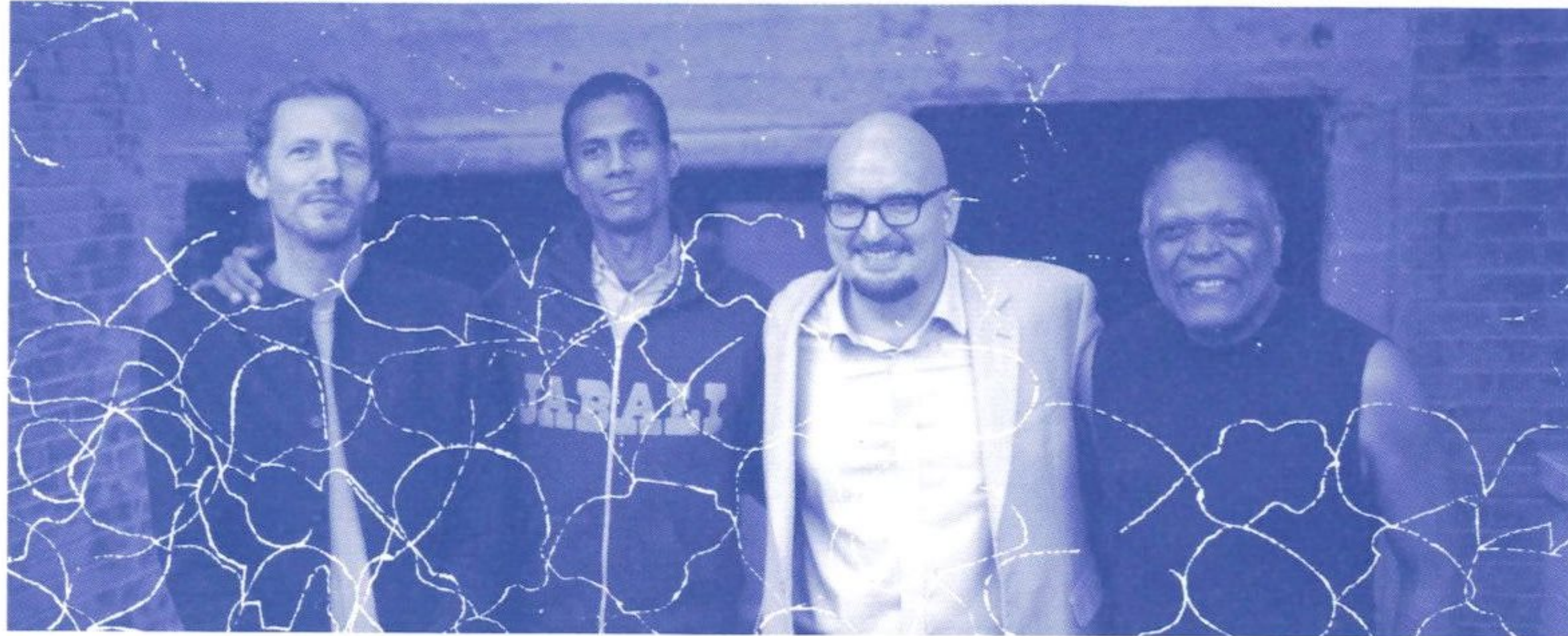
BK INVESTMENT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Bⁿ CHEMICAL
비엔케미칼(주)

Bⁿ DAESUN
대선주조(주)

Bⁿ BAUM
바움크리에이티브(주)

전통을 넘어 실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던 크리에이티브 재즈



재즈홀릭

작가주의

재즈

앙상블

2013

서울 LIG아트홀 · 합정

- 8.2 빌리 하트 콰텟
- 8.9 시몬 나바토브, 닐스 보그람, 탐 레이니

부산 LIG아트홀 · 부산

- 8.3 빌리 하트 콰텟
- 8.10 시몬 나바토브, 닐스 보그람, 탐 레이니

시간 _ 주말 5pm
 티켓 _ 부산 30,000원
 예매 _ 인터파크 티켓
 문의 _ LIG아트홀 T.1544-3922
 주최 _ LIG문화재단

CONTENTS

2013 August Vol.260 culture.busan.go.kr

- 06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 08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초대 개방형 관장 박성택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음악을 들은 와인이 더 맛있다?! _ 김지혜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㉔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4번 <죽은 자의 노래> 上_ 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 - 바그너 ㉓ | 21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 _ 임채흥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㉒ | 옛사람들의 더위 식히는 법 _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 부산 청년, 인디문화의 중심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 32 리뷰 | 서울 바로크합주단 현악6중주를 보고_ 신설령
지역영화의 힘_ 김희진
- 34 테마가 있는 여행 | 역사의 섬 가덕도 여름여행
- 37 Culture Life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8월호 통권 260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박성택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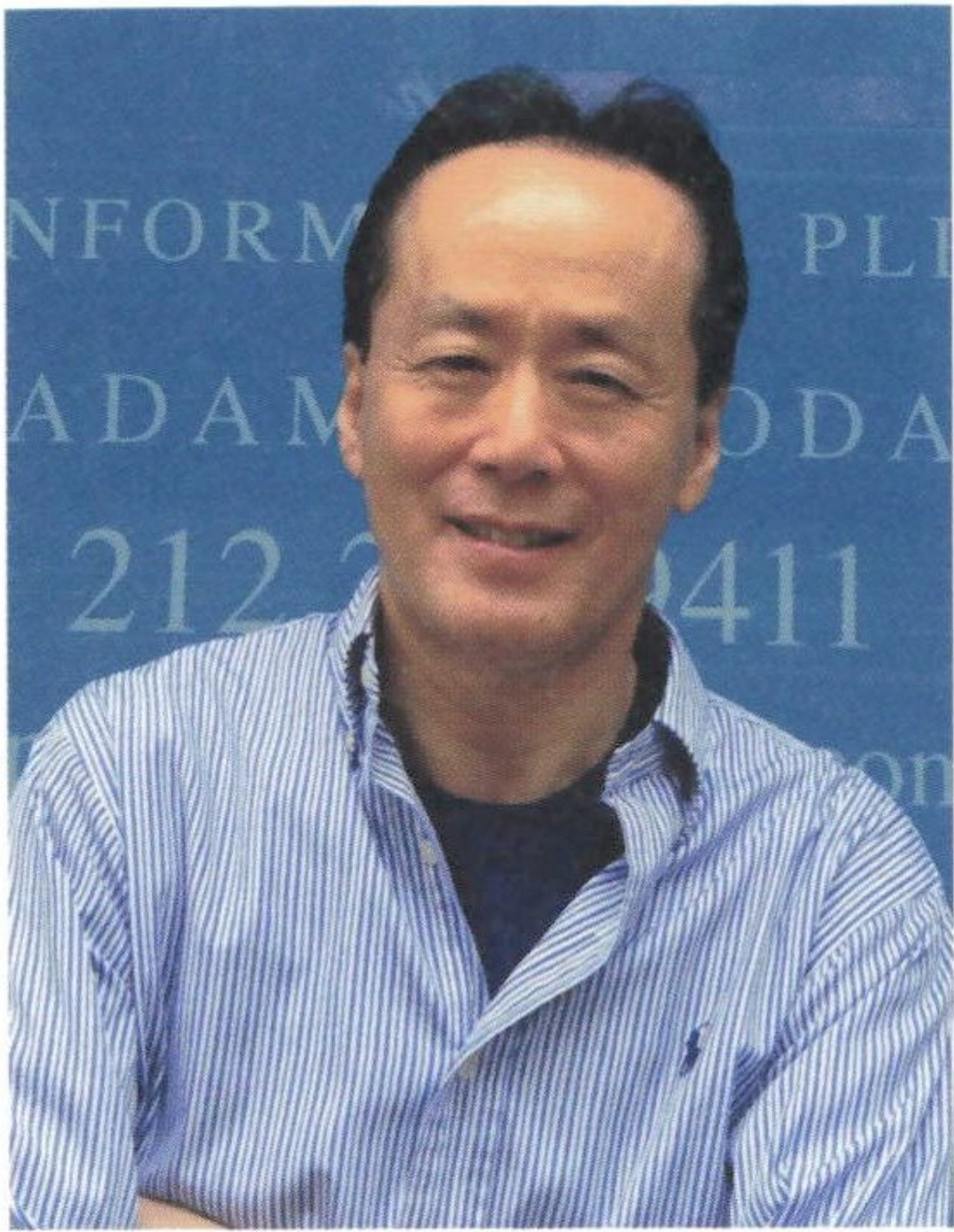
청소년 음악회의 대명사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여행

부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음악프로그램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가 2013년 여름에도 화려한 성찬을 준비하고 있다.

방학시작과 함께 부지런한 어머니들이 연례행사처럼 '클래식은 내친구' 예매를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방학 시즌 시작과 함께 일어나는 진풍경. 1996년 청소년음악회가 전무하던 시절, 해설과 함께 하는 파격적인 클래식 무대를 경험하고 자란 중·고생들이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학부모로 자녀들과 함께 '클래식은 내친구'를 찾고 있다. 청소년 시절, '클래식은 내친구=매진'이라는 자연스러운 공식을 알고 있는 세대들에게 '클래식은 내친구'는 놓칠 수 없는 음악회. 부산의 경우 '클래식은 내친구'를 시작으로 청소년음악회가 하나둘 생겨나 청소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클래식은 내친구'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클래식은 내친구'의 성공에는 무대 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있다.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





일 시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왔다. 그가 시작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1994년에서 1999년까지 전회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그는 '도서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포스코 로비 콘서트'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뮤직 인 잉글리쉬'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선보였다. 지난해 한 오락프로그램에서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지휘자 금난새를 모르던 어린이들에게도 새로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가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과도 인연이 깊은 금난새 지휘자는 신선한 발상으로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지휘자이다. 새로운 무대와 청중을 찾아가는 그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대에 오르며 창원대학교 석좌교수,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클래식은 내친구'가 선택한 레퍼토리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피아니스트, 지휘자, 평론가, 시인, 화가 등 다방면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생상스는 19-20세기 프랑스의 음악 진흥에 앞장선 뛰어난 작곡가로서 특유의 고전주의적인 우아한 균형과 세련미가 있는 화려하면서도 감미로운 작품들을 남겼다.

2대의 독주 피아노와 소편성 앙상블을 위한 14곡의 모음곡으로 구성된 '동물의 사육제'는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생상스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샤를 르부크가 주최하는 사육제의 음악회에서 청중들을 놀라게 해 주려고 작곡한 이 모음곡에는 당시 대중들에게 친숙한 명곡들을 삽입해 흥미를 끌기도 했다. 연주시간은 약 25분.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에서는 2대의 피아노와 현악기가 능름하고 위엄있는 사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제2곡 수탉과 암탉에서는 클라리넷으로 암탉을, 피아노로 수탉을 묘사하며 닭이 모이를 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3곡 당나귀에서는 매우 빠른 템포로 야생 당나귀가 힘차고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느낌을 표현한다. 제4곡 거북이는 제3곡과는 정반대의 느낌으로 바흐의 '천국과 지옥'을 피아노와 현악기로 느리게 연주한다. 제5곡 코끼리는 낮은 더블베이스로 코끼리의 육중한 무게를 느끼게 하는데 코끼리가 왈츠를 추는 경쾌한 느낌이다. 제6곡 캥거루에서는 피아노를 통해 긴 발로 경충경충 뛰는 캥거루를 발랄하고 명랑하게 묘사한다. 제7곡 수족관에서는 피아노로 물의 출렁임을 표현하고, 첼레스타가 물고기의 움직임을 신비롭고 아름답게 나타낸다. 제8곡 귀가 긴 등장인물에서는 귀가 긴 사람들을 두 바이올린이 한가롭고 온순한 나귀의 울음소리로 묘사한다. 제9곡 숲 속의 삐꾸기에서는 클라리넷으로 삐꾸기의 맑은 울음을 나타내고, 2대의 피아노가 조용한 숲 속을 표현한다. 제10곡 큰 새장은 큰 새장 안에 많은 새들이 어울려서 나래 치고 지지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11곡 피아니스트에서는 영터리 피아니스트가 쉬운 체르니 연습곡만 반복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 화음이 맞지 않아 서툰 느낌을 준다. 제12곡 화석은 생상스의 곡 '죽음의 무도' 중 '해골의 선율'을 실로폰으로 연주, 삐꾸리 부딪치는 음산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제13곡 백조는 첼로와 하프, 피아노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를 표현한 동물의 사육제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 꼽



힌다. 마지막 제14곡 피날레는 지금까지의 모든 동물들이 나와 소동을 피우는 힘차고 명랑한 곡으로 금난새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맹의진, 문지수가 피아노를, 김민지가 첼로를, 김성희가 플루트를, 손민이 클라리넷, 김자연이 타악기를 맡아 동물의 특징을 살린 재미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2013 제5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 지휘 오충근



■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이 함께 빛어내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다섯 번째 무대가 8월 6일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부산의 여름, 열정과 낭만을 더해주는 부산바다축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회는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외 무대에 널리 알리면서 부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매년 여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2011년 영화의전당 개관을 기념해 공연장을 영화의 전당으로 옮긴 이래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은 지난해까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지는 최대의 야외음악회로 인기가 높다.

올해는 온화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지휘자 오충근의 지휘로 350여명 출연진이 레미제라블 대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라이징스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를 비롯해 부드러운 감성의 테너 전병호, 크리스

탈의 디바 소프라노 강민성, 정열의 바리톤 한규원이 솔로이스트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을 비롯해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한국민요 '아리랑 환타지' 등을 들려주고,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과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등 350여명의 연주단은 레미제라블 하이라이트로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김다미는 2010년 제53회 파가니니국제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와 최고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을, 같은 해 일본 센다이국제콩쿠르 5위를, 2011년에는 일본 나고야 무네츠클 바이올린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에는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과 제8회 하노버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김다미와 함께 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은 부산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여름시즌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 시 8월 6일 화요일 오후 8:00
장 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VIP 100,000원 · 일반 20,000원
문의 KNN(1899-0048)

CONCERT-Summer Fantasy, 콘서트 - 써머 판타지



■ 지휘 오세종

무더운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CONCERT-Summer Fantasy, 콘서트 - 써머 판타지'가 8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오세종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한 기존 POP합창음악회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무대로 Soul(영혼), Love(사랑), Body(몸짓), Joy(기쁨)의 4가지 테마로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첫 무대는 영혼을 울리는 차분한 A Cappella 무대로 시작을 알린다. My Lord, What a Morning(주여, 아침입니다)과 흑인 영가 메들리, Rock-a-my Soul(내 영혼의 반석)으로 무더운 여름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Love(사랑).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추억의 영화 '닥터 지바고'와 '남태평양'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로 옛추억을 선사한다. 영화 '닥터 지바고'는 개봉한 해만 2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얻었고, 전체 수익 측면에서는 역사상 8번째로 큰 수익을 남긴 영화이다. 또한 1966년 아카데미 5개 부문을 휩쓸며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오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 역시 이 작품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부산시립합창단의 화음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라라의 테마'는 여주인공인 라라가 의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부터 체험하게 되는 기구한 운명을 위로해 주는 멜로디로, 러시아 민속 악기인 발라라이카(Balalaika)로 감성적인 현악 선율을 연주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라라의 테마' 외에도 뮤지컬 '캣츠', '오페라의 유령' 등의 작곡자로 유명한 뮤지컬계의 거장 앤

드류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뮤지컬 메들리가 사랑의 테마로 함께 이어진다.

세 번째 무대는 Body(몸짓)를 테마로 한 무대로 'Dance'가 있는 신나고 경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ABBA의 'Dancing Queen', 설운도의 '상하이 트위스트'와 영화음악으로 알려진 '여인의 향기'의 'Por una Cabeza'와 '셀 위 댄스'의 'Sway'가 부산시립합창단의 앙상블과 이병철, 박지은의 춤으로 새롭게 탄생된다.

마지막 무대는 Joy(기쁨)의 무대로 화려한 Pop과 Jazz의 향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Summertime, Smooth Sailing, Bohemian Rhapsody, Bee Gee's Medley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는 기존 음악회와 달리 무대연출가 박흥영의 개성 넘치는 무대연출이 더해져 청량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로 있는 무대연출가 박흥영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평화 콘서트를 비롯해 서울시립합창단 청소년 음악회 '꿈-인순이', 세종문화회관 대표기획공연 '제야콘서트-소프라노 조수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25주년기념 콘서트 'Dancing Pipes' Ken Cowan 등 수많은 공연을 연출, 호평을 받았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편곡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지은이 편곡을 맡아 특별한 써머 판타지를 열어준다.

일 시 8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무용단 2013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 권봉정



■ 장래훈



■ 황선희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다양한 춤 언어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3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이 8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 주요 공연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수석단원 황선희를 비롯해 부수석 단원 권봉정, 상임단원 장래훈이 정기공연에서 선보일 수 없었던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빚어낸 참신한 창작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권봉정의 ‘지독한 사랑’으로 연다. 묶어두려는 철저한 소유욕과 온 몸을 지배하게 된 욕망, 복수를 또다른 사랑의 언어로 풀어낸 ‘지독한 사랑’은 권봉정이 대본과 안무를, 정진희가 드라마투르기를 맡아 탄생된 작품으로 김주령, 오수연, 김미란, 최의옥, 권봉정이 아름다운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한다. 권봉정은 APEC 개최기념 부산시립예술단체 합동공연 ‘무릉도원’을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제58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가는 날’, 제60회 정기공연 ‘연산’, 여름마당춤판 ‘춘향’ ‘효녀심청’ ‘장화홍련’ 주역으로 사랑받았다.

두 번째 무대는 장래훈의 ‘화살이 빛나간 백조(세레나데)’가 장식한다. 고대사나 음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아한 백조를 무대로 옮겨온 이 작품은 지상에서 애뜻하게 사랑을 하지만 결국 천상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백조의 이야기에 모티브를 두고 오히려 날 수 없다는 것, 자연의 파괴로 인해 우리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군상들을 춤으로 만나본다. 장래훈이 대본, 안무를 서정연이 연출을 맡았고 이현정, 김진영, 김경미, 강모세가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의 세레나데를 선사한다. 안무자 장래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전국국악무용경연대회 대상,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특상을 수상하고 우리춤의 맥을 이어왔다. 장래훈은 부산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 ‘소도’, 제66회 정기공연 ‘바리-서천꽃그늘’,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등 주요작품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는 황선희가 직접 대본, 안무를 맡은 ‘꽃잎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네’로 연다. 성노예로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인 슬픔 앞에 무너져 내려야만 했던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위로해주기 위해 황선희만의 춤언어로 풀어냈다. 이성원이 연출을, 강미향, 김도은, 김시현, 장영진, 박미나, 김수잔, 황선희가 출연한다. 대본, 안무를 맡은 황선희는 APEC 정상회의 축하공연 ‘왕비의 아침’을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제60회 정기공연 ‘연산’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일 시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의 합창축제(A Choral Feast of Midsummer Night)



■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이영만

부산, 울산, 김해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의 합창축제'가 8월 20일 울산공연을 시작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2001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의 문화·예술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협의로 시작된 3개 시도 교류음악회는 매년 3개 시도 합창단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여 3개 시도를 순회하며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는 경상남도내의 합창단인 김해시립합창단의 주도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여름밤의 합창축제'를 열어준다. 특히 한국 합창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해시립합창단 이영만 지휘자가 3개 시도 교류공연의 첫 지휘봉을 잡아 의욕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총 4부분으로 나뉘어 연주하게 된다. 3개 시도 남성연합합창단이 들려줄 첫 번째 무대는 중후한 남

성합창으로 고전음악과 귀에 익숙한 선율을 들려준다. 루이지 케루비니의 Sanctus(거룩)에서 출발한 남성합창은 대중가수 안치환의 대표곡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 걸쳐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무대는 여성합창의 무대로 아련한 마음과 수줍음을 표현한 이민정 편곡 '옛님', 박지훈 곡 '국화 옆에서'와 허결재 곡 동요로 만나는 '사계'가 무대에 오른다. 웅장한 3개 시도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혼성합창 무대에서는 이선택이 혼성합창곡으로 편곡한 변훈 곡 '명태', 김준범 편곡 '아리랑', 오병희 편곡 '쾌지나 칭칭'으로 흥겨움을 전한다.

3개 시도립합창단의 웅장한 무대 외에 올해는 독일할레소년소녀합창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해 세계무대에서 음악성을 인정받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합창과 율동이 어우러진 우리민요메들리를 들려준다.



■ 부산시립합창단

일시장소 8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울산문화회관 대강당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김해 문화의 전당
8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프라하챔버(Puellarum Pragensis) 오케스트라 초청

오주영의 비발디 사계



■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세계적인 지휘자 슈빈 메타로 부터 장래가 확실한 특별한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과 프라하 Conservatoire의 재능있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가 8월 21일과 2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초등학교 5학년때 미시건주 국제음악캠프 콩쿠르에서 초,중등부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해 현지 음악인들을 놀라게 한 오주영은 1996년 뉴욕의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세계 34개국 300여명의 참가자 중 14세의 최연소자로 우승하는 등 음악신동으로 꾸준한 주목을 받으며 성장, 현재 뉴욕 필하모닉 단원으로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998년 일본의 17개 대기업이 후원하는 <아시아의 꿈>이란 타이틀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선정되어 일본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한 오주영은 뉴욕의 카네기홀 데뷔 독주회에서 뉴욕의 콘서트 리뷰지로부터 '천재적인 기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거장으로서의 테크닉과 음악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적인 연주자'란 평을 받으며 최고를 향해 꾸준히 성장해왔다. 오주영과 함께 연주하는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는 1964년 창단 이래 독특한 레퍼토리 해석으로 아름다운 앙상블연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악솔리스트들과 수차례 공연을 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2011년에는 클라리넷 거장 지오라 페이드만, 객원 지휘자 볼프강 뢰그너와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 투어를 가진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는 2012년에는 볼프강 뢰그너와 바이올린의 거장 발레리 오이스트라흐가 함께 유

럽의 대 도시 밀라노, 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 총 20개 도시에서 '비발디 사계'로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에 오주영과 프라하챔버오케스트라가 선택한 레퍼토리는 실내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바흐의 바이올린 '이중 협주곡'과 드로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비롯하여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레파토리인 비발디의 '사계'.

이번 연주회의 메인곡인 '사계'는 비발디의 걸작 중 하나로서 4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되어 있다. 본래는 12곡으로 된 협주곡집의 일부인데, 1번에서부터 차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작품은 그가 40세 전후이던 1720년경에 썼고, 1725년 경 네덜란드에서 출판했으며, 40년쯤 전에 재발견되었다. 4곡 모두 빠름·느림·빠름의 3악장으로 이뤄지고, 짧은 곡이긴 하지만 계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아름다운 시정(詩情)이 담겨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라하챔버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화음과 세계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화려한 앙상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전 악장을 연주한다.



■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

일 시 8월 21일 수요일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1600-1803)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 지휘 김철호



■ 소리꾼 박애리



■ 가수 이상우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 인기프로그램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가 2013년에도 부산시민들을 찾아온다.

국악가요를 비롯해 줄타기 명인 초청 무대, 우리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등 새로운 시도로 재미있고 시원한 국악무대를 선보여 온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와 현대 대중을 넘나들며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무대로 인기를 이어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국립창극단의 대표 소리꾼 박애리의 사회와 노래, 강변가요제가 낳은 부산출신 가수 이상우, 박성희의 창, 타로 설장구팀의 흥겨운 장구가락으로 더위를 씻어준다.

첫무대는 시원한 여름바다의 낭만을 떠올리며 원일의 대표곡 국악관현악 '신뱃놀이'로 호탕하게 연다. '신뱃놀이'는 경기민요 '뱃노래'의 선율과 기본 장단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타악기가 서로 어우러져 여러 가지 음색의 조화가 특기할만한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소리꾼 박애리의 무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소리꾼 박애리는 드라마 대장금 OST '오나라' 녹음을 비롯해 소리꾼으로 KBS WORLD RADIO 박애리의 '얼썩! 우리가락',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 진행자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박춘석 곡 '공향의 이별', 백창우 곡 '엄마 엄마 우리엄마', 박범훈 곡 '배 띄워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박애리의 열창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원 박성희

수석단원의 창으로 '수궁가' 中 '가자 가자 어서가자'를 들려준다. 이곡은 별주부 자라의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 수궁으로 끌려 들어간 토끼가 멋지게 용왕을 속이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한다.

국악의 또다른 맛을 전해줄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무대는 가수 이상우가 장식한다. 1988년 MBC강변가요제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한 이상우는 그동안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 '이젠' 등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고 다수의 드라마 음반 프로듀서로 활동해왔다.

피날레는 부산을 대표하는 타악그룹 '타로'의 설장구팀이 특별출연, 이경섭곡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로 장식한다. 감성적인 젊은 작곡가 이경섭은 '이 작품을 장구가 가진 소리의 힘은 하늘을 뚫을 듯 시원하다. 규칙적인 그 호흡속에는 그 누구도 빨려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설했다. 장구 장단에 다양한 현대적 어법이 가미되어, 때로는 흥겹고 역동적인 리듬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구성된다. 타로 설장구대표 권보름을 비롯해 이경희, 이충인, 최정욱, 권두술, 이주영, 전정현이 2013년의 더위를 씻어줄 시원한 장구가락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 타로 설장구팀

일 시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20,000원·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Ⅲ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지휘, 해설 이동신



■ 연출 유철우

여유로운 오전시간에 즐기는 한낮의 음악선물인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의 세 번째 무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8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최소한의 무대 세트로 품격높은 오페라의 감동을 전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와 해설, 오페라, 뮤지컬 전문연출가 유철우의 연출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한다. 유철우는 오페라, 뮤지컬, 발레, 콘서트 등 150여회의 공연예술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마스카니를 일약 세계적인 작곡가 대열에 오르게 한 작품이다. ‘시골의 기사도’라는 뜻의 이 작품은 현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른바 베리스모(진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1시간 10분 정도의 짧은 1막짜리 오페라지만 극적인 내용이 풍부하고, 격한 감정과 부드러운 서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전반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합창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산투차의 아리아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등이 유명하다. 특히,

결투를 앞두고 흐르는 ‘간주곡’은 아름다운 멜로디 때문에 독립적인 관현악곡으로 즐겨 연주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시골 처녀 산투차에는 소프라노 구민영, 젊은 농부 투리두에는 테너 김지호, 투리두 어머니 루치아는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마부 알피오에는 바리톤 고영호가 열연한다.

이탈리아 I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구민영은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쿠르 특별상, Musica Sacra 국제종교성악콩쿠르 로마지역청상 등 다수 콩쿠르에 입상하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등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2007년 국제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예술인으로 선정된 테너 김지호는 국립오페라단 ‘살로메’를 비롯해 오페라 ‘투란도트’, 부산문화회관 20주년기념 오페라 ‘아이다’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메조소프라노 성미진은 이탈리아 ‘Sarzana’ ‘Umberto Sacchetti’ ‘Roero In Musica’ ‘Mario Grioni’ 등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했으며 바리톤 고영호는 이탈리아 움베르토조르다노 국제성악콩쿠르에 입상하고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일 시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소프라노 구민영



■ 테너 김지호



■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 바리톤 고영호

Music and Theater



■ 음악감독 강동석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국제마루음악제 2013년 무대가 9월 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주제는 'Music and Theater(음악 그리고 극)'. 오래전부터 춤, 미술, 문학 등 다른 예술장르와 교류해온 음악은 특히 오페라나 판소리처럼 고전과 현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극 장르와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져왔다. 이번 음악제에서는 '50 손가락 피아니스트', '블록15' 등 음악극 두 작품을 통해 클래식은 '어렵다', '식상하다', '지루하다'는 편견을 떨치고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올해 개막연주는 독일 최고 수준의 도이치 오페 베를린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된 '도이치 오페 베를린 챔버 솔리스트'의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폴란드 고주프 교향악단 지휘자인 표트르 보르코브스키를 초빙,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모차르트 '교향곡 29번', 그리고 플루티스트 뱅상 루카의 협연으로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제7번'을 들려준다.

음악제 둘째날인 3일과 6일에는 이번 음악제의 하이라이트인 음악극 '50 손가락 피아니스트'와 '블록15'가 관객들 만난다. 3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선보이는 '50 손가락 피아니스트'는 헝가리의 공산주의에 반대한 이유로 3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던 피아니스트 조르쥬 치프라의 격정적인 삶을 프랑스 젊은 연주자상을 수상한 그의 제자 파스칼 아모엘의 연주와 대사로 들려준다. 6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음악가 구역을 뜻하는 말로, 죽음의 위

기에서 생존한 첼리스트 아니타 라스커발피슈와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시몬 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블록15'가 무대에 오른다. 뛰어난 연주자이자 실제 부부인 피아니스트 파스칼 아모엘과 첼리스트 엠마누엘 베르트랑이 두 주인공 역을 맡아 열연한다.

9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한·중·일 전통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전통음악의 진수'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중국광파민족악단 적자(笛子)수석 단원인 후장청, 고정 연주자 주전, 고토 연주자 리사 카타오카,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있는 대금주자 이용구 등 한·중·일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를 통해 삼국의 전통악기로 듣는 우리 창작국악곡을 감상할 수 있다.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조무중,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 플루티스트 뱅상 루카, 첼리스트 엠마누엘 베르트랑, 정준수, 비올리스트 김상진, 김은진, 더블베이스 주자 박희철의 연주로 '실내악의 밤'이 꾸며진다.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대미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장식한다.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랄프 고토니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협연으로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특별히 부산 청중을 위해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지휘자 랄프 고토니가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주며 강동석과 김상진의 브루흐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 협주곡'도 감상할 수 있다.

일 시 9월 2일(월) ~ 7일(토)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부산국제마루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www.bnimt.co.kr)



지역을 넘어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부산문화회관 초대 개방형관장

박성택

1988년 개관 이래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자리매김해온 부산문화회관이 개관 25년 만에 개방형 관장제도를 도입,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할 첫 개방직 관장으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박성택 관장이 7월 11일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어느 공연장을 둘러봐도 부산문화회관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없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의 탁월한 전망과 넓은 광장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전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다이내믹한 도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자문위원으로 최근 부산을 자주 찾았던 박성택 신임관장은 198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한 전문 예술경영인이다. 그동안 예술의전당 총무부장, 기획부장, 전시사업팀장 등 주요 부서장을 역임한 박성택 관장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이후 2012년 1월까지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공연 예술 활동가이기도 하다.

박성택 관장은 국내 최대 공연장의 운영경험을 살려 부산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집중된 ‘부산문화회관의 예술경영’과 ‘부산시립예술단의 활성화’라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객관적으로 그 해법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서울의 예술과 부산의 예술이 다를 수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산 사람 스스로가 부산의 문화인구가 부족하다는 단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지역을 넘어 최고의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성택 관장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첫째는 고객중심경영이다. 공공기관에서 공연장을 운영하다보면 관객서비스가 뒤떨어질 수 있다는 그는 고객중심이 아닌 관리자 중심의 행정은 소비자들의 소비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 앞으로는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고객’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박성택 관장의 생각이다.

둘째는 예술단의 활성화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창작 활동 단계에서 한층 더 나아가 예술작품을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알리고 상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 박성택 관장은 그동안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에서 마케팅 개념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술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시민들의 세금인 만큼 공연장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 공연을 잘 만들고, 시민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모션 등을 기획, 다양한 계층에게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는 극장의 환경 조성이다.

“공연장은 공연이 열리는 저녁시간은 물론이고 낮 시간에도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문화공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연은 공연장을 찾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라는 박성택 관장은 광안대교, 해운대 등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광장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고 낮 시간에도 극장 로비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기업, 단체의 모임장소로도 제공, 많은 사람들이 부산문화회관을 편안하게 찾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악은 보는 예술입니다.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음악은 듣는 예술이라는 인식이 많아졌지만 직접 공연장에 와서 보고 느낄 때 음악의 감동은 배가 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모습, 예술단이 전하는 생생한 감동을 부산문화회관에서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오페라하우스, 링컨센터, 바티칸센터 등이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한 데는 극장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예술인들의 열정,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박성택 관장. 그와 함께 그려가는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25년, 그 변화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설렌다.

음악을 들은 와인이 더 맛있다?!

■ 김지혜_ 독일통신원
독일 LWL 아동청소년 전문정신치료병원 음악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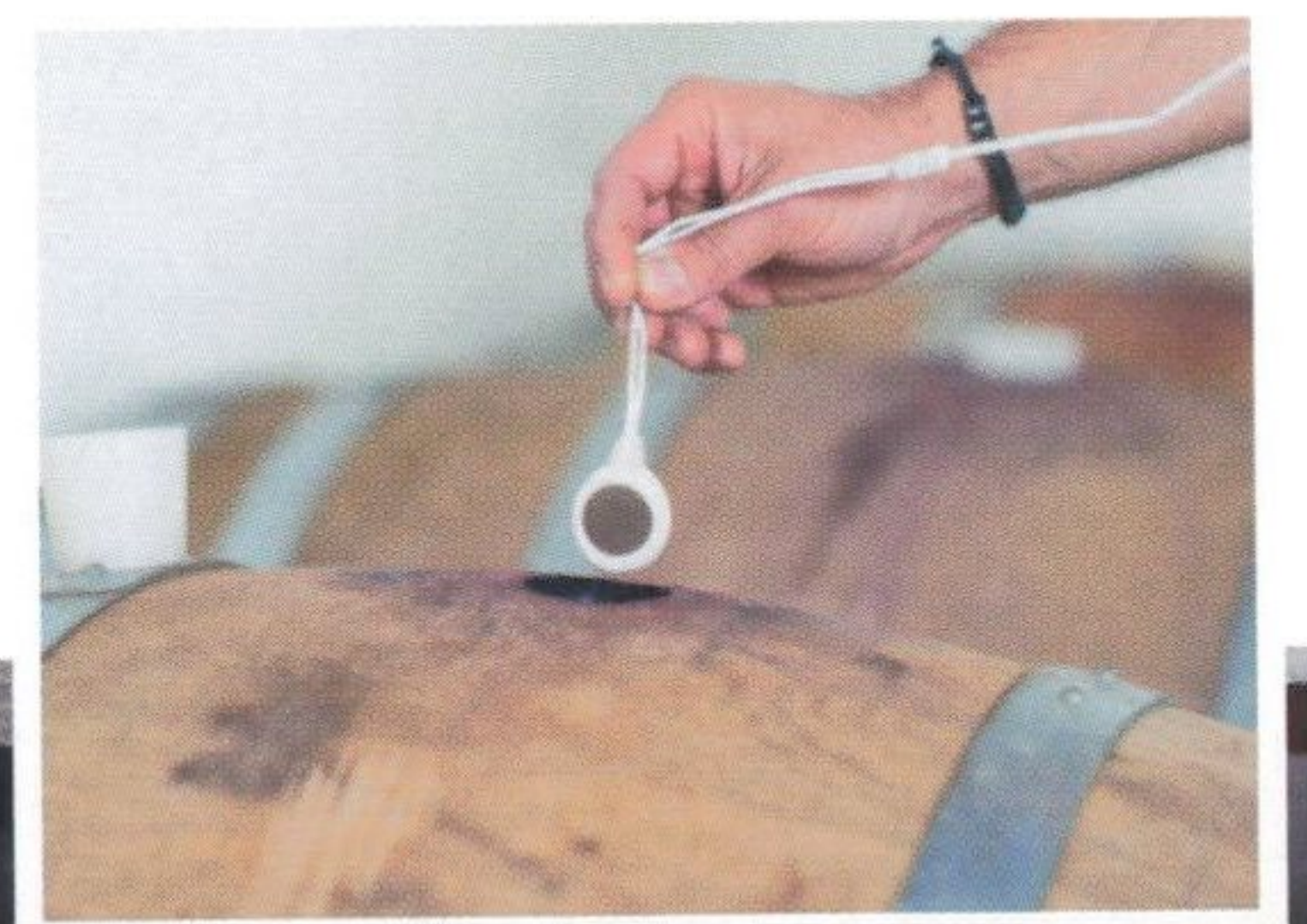
영국 신경과학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 게재된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학교 바로리 사림푸어 박사 팀의 기고문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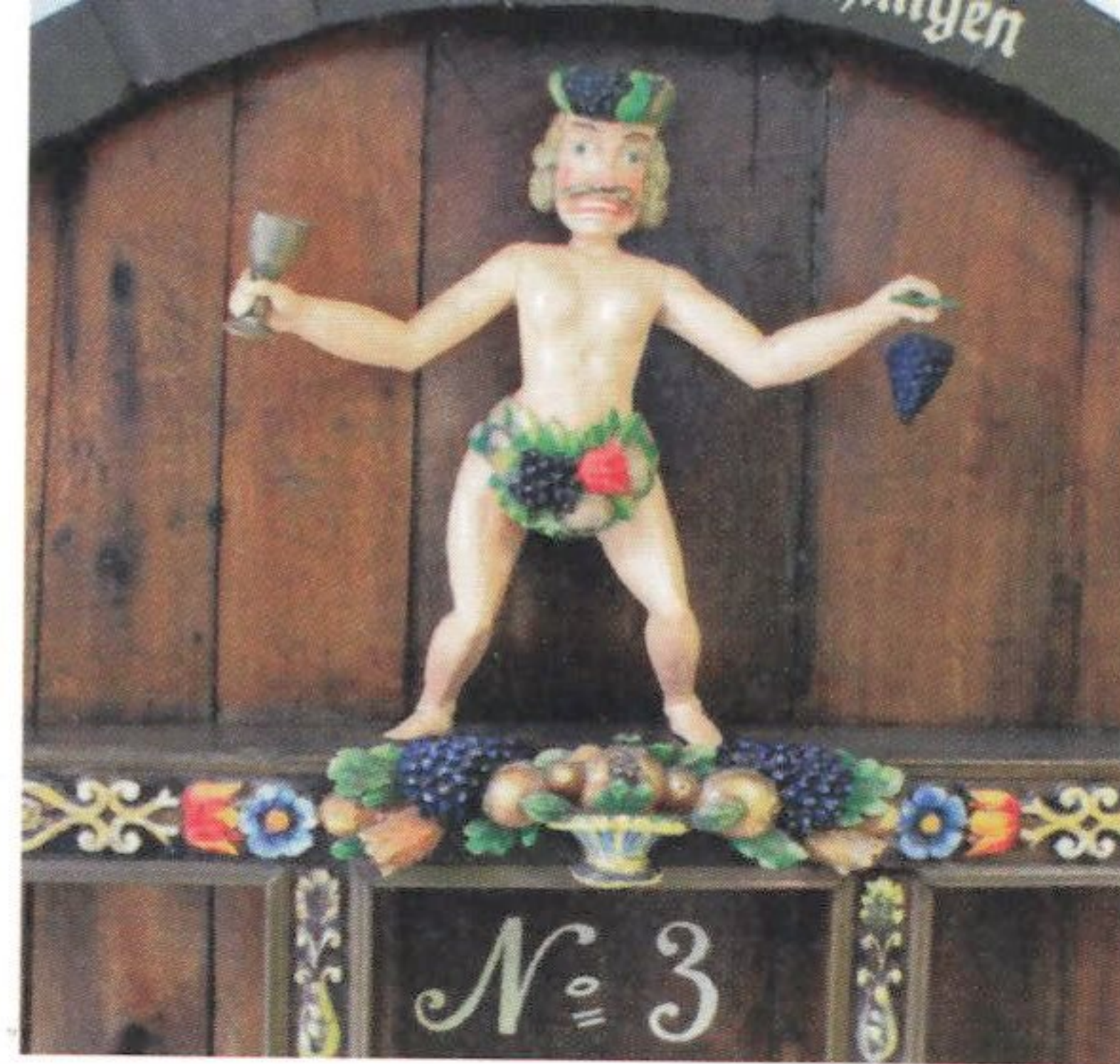
실험 참가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심장박동과 호흡, 땀의 증가 등 생리

적 요인을 측정한 결과 평균 6%내지 9%의 도파민(동물체 내에서 생산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 뇌신경 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증가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21%까지 도파민 수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약을 복용했을 때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와 거의 비슷한데 그 원리는 음악을 들으면 이것이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되어서 대뇌 피질이 도파민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독일의 가장 큰 와인 산지인 팔츠 지역의 한 와인 생산인 크리스티안 부츠씨는 이런 음악의 긍정적인 면을 와인 생산에 응용한 결과 클래식 음악이 포도 숙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의 일방적인 확신이 아니라 와인을 맛본 사람들 역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연 무생물인 와인의 '음악 치료' 비밀은 무엇일까? 와인 생산자 부츠씨는 포도가 발효되어서 판매용병에 들어가기까지 숙성기간인 약 10주 동안 저장고에 매일 해가 뜰 때와 질 때 각각 1시간씩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 음악의 중





류는 브람스의 자장가, 비제의 카르멘 조곡 등 특별히 '엄선된' 클래식 음악들이다. 시음자들이 눈을 가리고 일반 와인과 음악감상 와인을 시음한 결과 음악을 들은 와인이 더 맛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훨씬 더 맛과 향이 풍부하고 강렬하다고 한다. 그가 생산한 특별한 와인은 반응이 좋아서 구매도가 아주 높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각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독일 가이젠하임 대학교 와인학과에서는 미생물인 효모와 박테리아가 어떻게 음악에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서 연구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자들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는 특별한 해답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음악이 와인 숙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단지 효모와 박테리아가 사람이나 동물처럼 음악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세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음악이 울릴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큰 와인통이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효모와 박테리아의 움직임 역시 활성화된다는 물리적인 진동 효과를 가설로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음악들은 각기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서 다이내믹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고 미생물의 움직임 역시 이에 상응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청각이 없는 식물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주인이 매일 턱담을 가까이서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본 대학교 식물학과 연구자들은 식물이 여러 종류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어떻게 식물이 음악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 못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 감상과 와인의 숙성 과정 비밀 역시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이 수수께끼의 비밀은 아직 미궁 속에 있지만 여하튼 음악으로 인해서 맛있는 와인이 생산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와인 제조업자들 사이에서도 이 비법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맛있는 스윙 와인을 마시면 사람들의 기분도 한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4번 죽은 자의 노래 (上)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20세기 최고의 교향곡 작곡가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는 평생동안 무려 15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으며, 베토벤 이후 징크스가 되어버린 '마의 9번 교향곡'의 벽을 뛰어넘은 소비에트 음악계의 기린아이다. 그의 교향곡은 러시아를 찬양하는 음악, 러시아 혁명에 대해 냉소적으로 표현한 음악, 러시아 혁명의 승리를 찬양한 음악,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를 표현한 작품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져 있다. 교향곡 제14번은 후기의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들 중 가장 파격적이고 어찌 보면 젊은 날의 실험적 작품인 2번이나 3번 교향곡보다 더 전위적인 경향을 띤다.

교향곡으로서의 윤곽이나 균형에 있어 제13번은 구스타프 말러의 뒤를 잇는데, 교향곡 제14번도 말러의 '대지의 노래'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곡가의 생의 의미와 예술가의 고독, 그리고 죽음을 다루고 있다. '죽은 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여진 이 곡은 가장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고뇌를 쏟아 부은 걸작으로 실내악적인 오케스트라 반주에 소프라노와 바리톤이 부르는 연가곡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악 파트는 현악과 타악기가 전부이며 게다가 현악은 일반적인 5부가 아닌 4부 편성으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중 가장 작다. 외형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쇼스타코비치의 모든 교향곡들 중 가장 이단아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후에 작곡된 마지막 교향곡 제15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쇼스타코비치의 사실상 마지막 교향곡으로까지 보는 이들도 있을 정도이다.

교향곡의 구성은 스페인 내전 때 살해당한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에서 1, 2악장, 프랑스 시인 귀욤 아폴리네르에서 3악장에서부터 8악장까지, 러시아 시인 빌헬름 뢰헬베커에서 9악장, 독일 시인 라이너 릴케에서 10, 11악장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아폴리네르에서 슬픔과 향수에 젖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슬픔에 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이며 야만적인 분출이기도 하다. 그 외의 모든 가사들은 죽음을 노래하는 명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것들을 본질로 갖고 있다.

소련의 신문 '프라우다'의 1969년 4월 25일판에 실린 쇼스타코비치의 글에 의하면 이미 1960년대 초에 무소르그스키의 가곡집 '죽음의 노래와 춤'을 관현악으로 편곡하면서 이 곡의 구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가사 구성의 리듬과 화성에서도 느낄 수 있다. 물론 무소르그스키의 영향은 예전 작품들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 곡에서는 특히 죽음이라는 명제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향곡 제14번에는 죽음에 관한 열한 편의 시를 바탕으로 격동기를 살아온 한 작곡가가 경험한 혁명, 전쟁, 독재, 학살 등 비극적 죽음이 끊임없이 어둡고 암울하게 전개되는 세계처럼 그려진다. 절망스럽고 암울하며 지옥의 도전을 받는 듯한 교향곡 제14번에 대해

쇼스타코비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을 원하는 자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종말이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혀...” “나는 죽음에 불복한다. 나는 도살자의 사형에 응할 수 없다. 나는 죽음에 거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실주의 논리에 따라 예술은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긍정의 힘과 낙관주의를 지녀야 한다는 당의 논리에 이 곡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작품으로 비쳐졌다. 그 때문에 소련 당국과 쇼스타코비치의 대립각이 거의 마지막으로 세워진 곡이기도 하지만 쇼스타코비치가 이미 소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높은 국제적 명성을 얻은 만큼, 당국으로서도 예전처럼 대놓고 불쾌함을 표시하기 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방관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1악장 ‘깊은 곳에서’ 바이올린이 느린 템포 속에서 아주 여리게 기본 악상을 켜는 가운데 베이스가 담담하지만 약간 우스꽝스럽게 노래하는데, 시의 내용도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희화화된 죽음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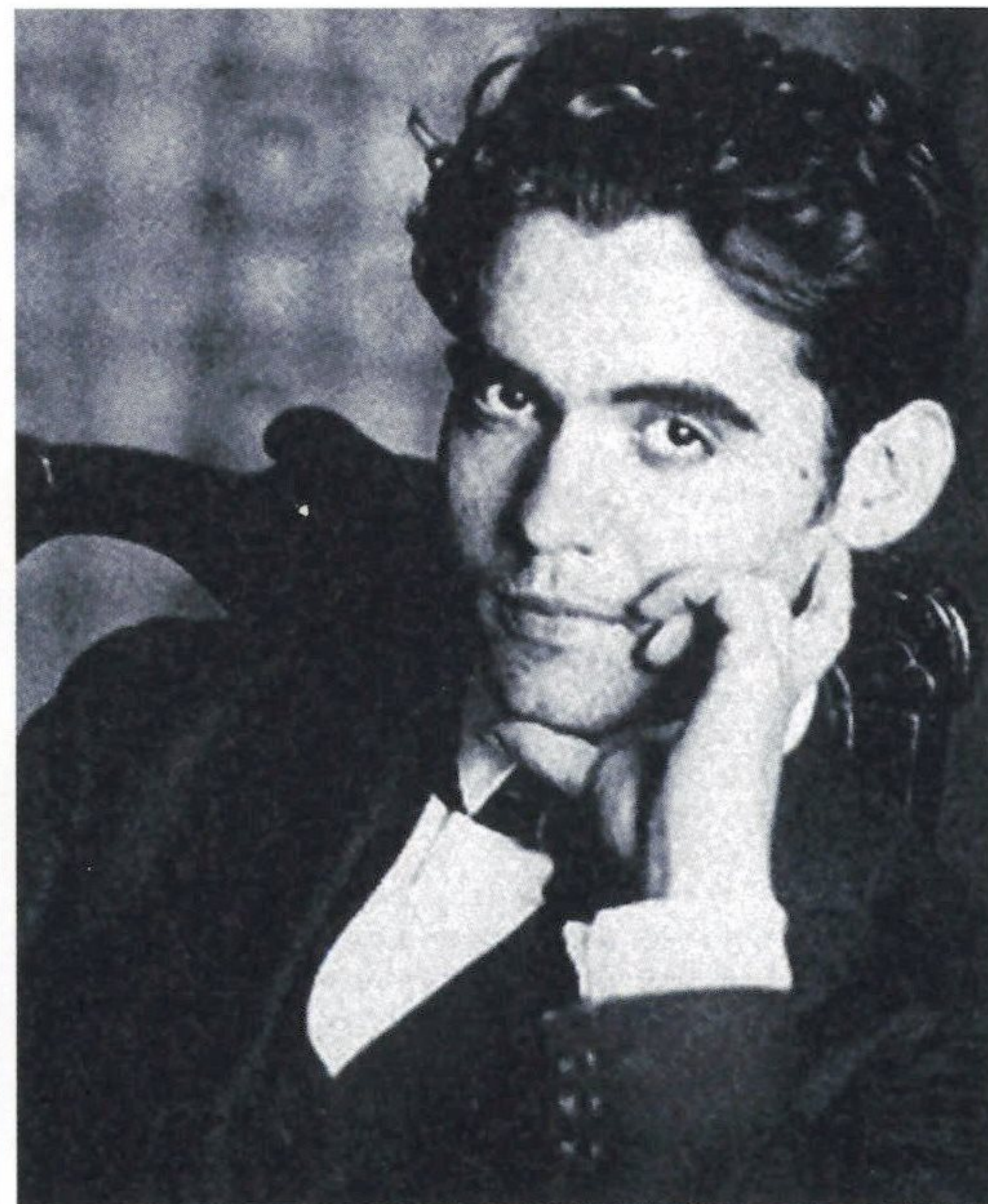
저 백 명의 연인들이 메마른 땅 속에 영원히 잠든다.
안달루시아에는 길고 붉은 빛의 도로가 있다.
초록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 코르도바에는
백 개의 십자가가 그들을 추모한다.
저 백 명의 연인들이 메마른 땅 속에 영원히 잠든다.

2악장 ‘말라게냐’ 말라게냐는 스페인 남부 말라가 지방의 민속 춤곡으로, 1악장의 정적이고 어두운 바리톤에 대비해 동적이며 밝은 소프라노의 노래이다.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춤곡 리듬을 시작하면 소프라노가 격앙된 목소리로 노래하며 후반에는 캐스터네츠까지 더해져 흥분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의 내용은 1악장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에 늘 존재하는 죽음에 대한 관찰로 되어 있다.

죽음이 들어온다! 그리고 나간다, 선술집으로부터.
검은 말과 불행한 사람들이 기타의 골짜기에서
방향한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흔들리는 소나무에는
소금냄새와 여인의 피 냄새가 난다.
죽음은 항상 나가고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온다.
죽음은 계속 떠나가고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 선술
집으로부터. (계속)



■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 시인 로르카

21 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 III

■ 임채홍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

바그너의 음악에서 특별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그너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악극' (Musikdrama)를 만들어 낸 데 있다. 습작 또는 초기작품에 해당하는 '요정들' '연애금지' '리엔치' 등에서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대규모 오페라의 영향은 드레스덴에서의 창작시기를 기점으로 사라지는데, 이때로부터 자기양식에 의한 창작과 변혁이 시작된다. 이러한 변혁 내지 혁신을 뒷받침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악극 창작의 소재가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게르만족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신화 또는 전설들로부터 발췌된다는 점이 되겠고, 다음은 바로 이러한 소재들로 악극을 만드는 수단과 방법, 곧 작곡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의 독특함이다. 이 두 번째 요소는 줄거리, 가사, 노래, 오케스트라의 음악, 의상, 연기, 조명을 포함한 무대 구성 등이 한 덩어리로 용해되어, 이른바 '종합예술작품'으로 불리는데, 여기에 삽입되는 모티브들과 테마들 또는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생성되는 장면들은 전적으로 바그너의 독창적인 착상에서 비롯된다. 마지막 작품인 '파르지팔(Parsifal)'에 삽입된 '성 금요일의 마법(Karfreitags-zauber)'은 여기에 적합한 한 예가 된다.

바그너가 그의 악극에서 추구한 것은, 회화극(연극)에서처럼 극 줄거리의 중단 없는 흐름이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끝없는 선율' 개념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데, 결국 이것은 극의 줄거리를 담고 있는 기존의 레치타티보의 개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극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줄거리가 아리아로 인해 정지 상태에 빠짐으로써 중단되는 것을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예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크-전통의 다카포 아리아와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꽃으로 간주되는 아리아 자체를 포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 오페라의 개혁에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대안, 말하자면 뼈대로서 사용된 것이 소위 '유도동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나 사물과 특정 음형을 연관시키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등장인물들의 예리한 심리묘사 및 각 대상이나 사물에 내재하는 생명력을 음악적으로 묘사 또는 암시하는데까지 이른다. 이러한 수없이 많은 유도동기들을 만들어 낸 바그너의 음악적 착상력은 마치 슈베르트의 경우에서처럼 천부적 또는 천재적이다.

그러면 바그너가 그의 낭만오페라와 악극들을 통해 추구한 것, 곧 정신적 갈망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명약관화하다. 가장 빈번하고, 일관하는 테마는 역시 '구원' (Erlösung)이다. 그는 일생토록 이것을 가장 깊이 사색했다. 니체도 그의 저서 '바그너의 경우(Der Fall Wagner)'에서 '그의 오페라는 구원의 오페라다. 그에게서는 항상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랬다: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 - 이것이 그의 문제다'라고 쓰고 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이미 그의 첫 완성작인 '요정들(Die Feen)'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과 '누구를 향한 구원'으로 양분된다. 자신의 발언에 근거하는, 그의 진정한 첫 오페라 '방랑하는 네덜란드인(Der fliegende Holländer)'에서는 저주를 받아 바다 위를 떠도는 네덜란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죽을때까지 변심하지 않



■ 바이로이트에서 2006~2010년에 걸쳐 상연된 '발퀴레'('니벨룽의 반지' 2편)의 무대장치 특별전시(2011년 시즌)

는 한 여인이 필요했다. 마치 '심청' 과도 같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으로써 제물이 되는 여주인공 젠타로 인해 네덜란드인의 유령선이 가라앉고, 그에 대한 구원은 성취된다.

여기서는 특히 구원이 가시적으로 묘사된다. '멀리서 네덜란드인과 젠타가 수면으로부터 승천하는데, 둘 다 변용된 모습이다[예수의 산위에서의 변용 개념이 여기에 사용된다]; 그가 그녀를 껴안고 있다'라고 작곡가는 총보에 연출지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막이 내린다. '로엔그린(Lohengrin)'에서는 놓쳐버린 구원이 중심 테마인데, 여기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구원을 위한 주체가 된다. '탄호이저(Tannhäuser)'에서는 구원자인 여주인공 엘리자벳이 죽지만, 천사가 되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죄지은 가수 탄호이저의 친구이자 역시 엘리자벳을 사랑했던 볼프람 폰 에셴바흐(Wolfram von Eschenbach)가 탄호이저에게 '하인리히, 너는 구원받았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역시 숨을 거둔다. 이처럼 구원은 이승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에서는 저승에서의 구원이 전제 및 암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사랑의 죽음(Liebestod)'을 직접 긴 그리움의 노래에 담아 고백한 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죽는 이졸데를 통해 완성된다. 오케스트라의 후주 역시 구원을 상징하는데, 오랜 반음계들과 완전한 해결을 향해 끝없이 진행된 화성들이 나-장조의 순수한 으뜸화음으로 마감된다 - 바로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성취에 대한 화성적인 묘사다. 이와 유사하게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에서도 마지막 편인 '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에서 여주인공이자 발퀴레 자매들의 일원인 브륄힐데(Brünnhilde)의 긴 마감독백 이후에 오케스트라는 평온한 장조화성으로 종지된다. 이 4부작에서의 구원은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의 상징임과 동시에 첫 도둑 알베리히의 저주가 담긴 '금'으로부터 해방되



■ 지멘스(Siemens)사가 제공한 '축제연주의 밤(Festspielnacht)' 야외 전승공연 장면(2011년 '로엔그린'의 한 장면: '엘자, 난 너를 사랑해!') 2013년 연속.



■ 바이로이트에서 2006~2010년에 걸쳐 상연된 '발퀴레'(니벨룽의 반지 2편)의 무대장치 특별전시(2011년 시즌)

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사뭇 다르다. 바그너의 마지막 작품이자 '무대축성축제연주(Bühnenweihfestspiel)'라는 독특한 부제가 붙어 있는 '파르지팔(Parsifal)'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등장하는데, 대본의 마지막 가사인 '지극히 높은 구원의 기적: 구원자에게 구원을!(Erlösung dem Erlöser!)'에서 '구원자'는 주인공 '파르지팔'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처럼 바그너의 오페라 및 악극의 총체는 구원이라는 대 주제와 전제 하에서 전개될 뿐 아니라, 그 핵심적 내용이 된다. 이것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창작자의 암호이기도 하다. 구원의 종류는 이상에서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진실함을 힘입든지, 많은 사람들이 금(돈)의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성취되고, 이른바 '예술종교'의 성향이 짙은 '파르지팔'에서는 구원자 그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 이 구원의 주제는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반유대적인 기고문 '음악에서의 유대주의(Das Judenthum in der Musik)'에서 그는 보편적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몰락'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옛사람들의 더위 식히기 법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다산 정약용

〈모임에 참석한 제공 열한 분의 연세를 보면 칠십일 세에서 팔십일 세에 이르렀고, 오직 청평(淸平) 심공(沈公)만이 칠십 세에서 두 해가 모자란데, 적겸모(狄兼謨)*의 고사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다. 금년 유월 오일에 그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잠깐 날이 개자 제공이 모두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수레를 타고 와서 승례문 밖 흥 첨추의 집에 모인 뒤 함께 연못의 연꽃을 감상하였다. 이 때 좌석 배치는 어디까지나 나이 차례로 하였을 뿐 관직의 고하는 따지지를 않았는데, 학발(鶴髮)에 동안(童顏)으로 술잔을 날리며 단숨에 들이키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신선들과 같다고 찬탄하며 부러워하였다. 이윽고 제공이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이를 모사(模寫)해서 채색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명위(名位)와 연기(年紀)를 기록해서 나에게 한마디 써 넣도록 위촉해 왔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건대, 오랜 수명을 누리고 귀한 신분에 처하는 것은 모두가 특별한 복이라고 할 것인데, 그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겸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드문 일로 여겨진다.〉

* 적겸모는 당나라 적인걸(狄仁傑)의 증손으로 어사중승(御史中丞)과 동경유수(東京留守)를 지낸 강직한 인물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백거이(白居易)의 그 유명한 구로회(九老會)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 때 적겸모와 노정(盧貞)만이 나이 70세가 안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한편 조선에서는 태조때부터 70세 이상의 문관 출신으로 벼슬이 정2품 정경(正卿) 이상을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이라 하여 우대했다. (〈연려실기술〉 별집 권6, 관직전고, 耆社).

한양 승례문 밖의 모임에 관한 위의 기록은 조선중기 문인관료 장유(張維; 1587~1638)의 〈계곡집(谿谷集)〉(제31권, 칠언율시)에 나온다. 배경은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연못에 연꽃을 감상하러 모인 장면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장유가 제화시를 써 준 데에서 나온다. 마치 송나라 문인관료 구양수(歐陽脩; 1007~1072)가 조직한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연상케 한다.

또 더위는 그 맹위를 피하는 데에만 있는게 아니라, 아예 더위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거주공간을 계획적으로 연출하는 법도 있었다.

〈여름철 찌는 듯한 한더위에는 북쪽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청풍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깊숙이 자리잡은 집이 저절로 그늘져서 햇빛이 엿보지 못하며, 찬 얼음으로 둘러싸고 큰 부채를 마주 부치며, 거기에 또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그늘을 제공하고 맑은 소리를 보내어 서늘한 기운이 8~9월의 기후와 같게 하니, 인간 세상에 쇠를 녹이고 돌을 태우는 듯한 무더위가 있음을 알지 못하네. 이것은 내가 여름에 얻는 풍경이네.〉

이 내용은 고려 후기 문신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

集)》(제24권, 記)에 실려있다. 무신정권의 집권자 최우(崔瑀; ?~1249)가 십자각(十字閣)이라는 독특한 집을 지었는데, 이규보가 그의 집을 보고 느낀 점을 썼다. 창문의 방향을 조절하여 얻는 바람효과, 수목을 심어서 누리는 시원한 그늘. 그야말로 선학(仙鶴)이 노니는 집같다. 이어서 읽어보면 최우의 화려한 생활이 짐작이 간다.

〈기이하여 실로 인간 세상에서 일찍이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무릇 집을 짓는 제도는 들보를 가로 지르고 마룻대를 세로 지르며, 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세우고 서까래와 네모진 서까래를 거는 것이 통례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집은 네모가 나서 십(十)자와 같고 그 속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井)자와 같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장려(帳廬)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십자(十字)라 이름하였다. 정자처럼 네모 반듯한 안에는 모두 밝은 거울이 걸려서 그 광명이 안과 밖을 환하게 비쳐, 무릇 사람과 물건의 굵고 가는 것과 크고 작은 것의 일변 일태(一變一態)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니, 쳐다보면 놀랄 만하다.〉

이규보는 원래 순수한 문관의 풍치가 있었지만 후에는 입신출세를 위한 보신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학문과 지식은 뛰어났으면서도 글쓰기는 심사숙고한 결과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게 차라리 맞다. 문순(文順)이라는 시호가 그의 성향을 말해준다.

더위를 식히는 데에는 웅대하고 화려한 집짓기보다는 소박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여



■ 渡船

유를 찾는 것이 숫제 지혜로운 법이다. 조선후기 대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은 무더운 여름에 이른바 더위를 없애는 여덟가지(消暑八事)를 제시했다. 조상들이 쓰던 더위를 식힌다는(消暑) 말속에도 현대인들이 쓰는 피서(避暑)와 달리 더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다. 내용은 이렇다. 소나무 단상에서 활쏘기(松壇弧矢),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타기(槐陰鞦韆), 빈집에서 투호놀이 하기(虛閣投壺),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清簟奕棋), 연못속의 연꽃감상하기(西池賞荷),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東林聽蟬), 비오는 날 시짓기(雨日射韻), 달밤에 발담그기(月夜濯足)다. (《다산시문집》 제6권, 詩)

덥다고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차가운 빙과류를 먹는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색하겠지만, 옛사람들의 운치가 묻어 나온다. 지면상 여덟 번째 〈월야탁족〉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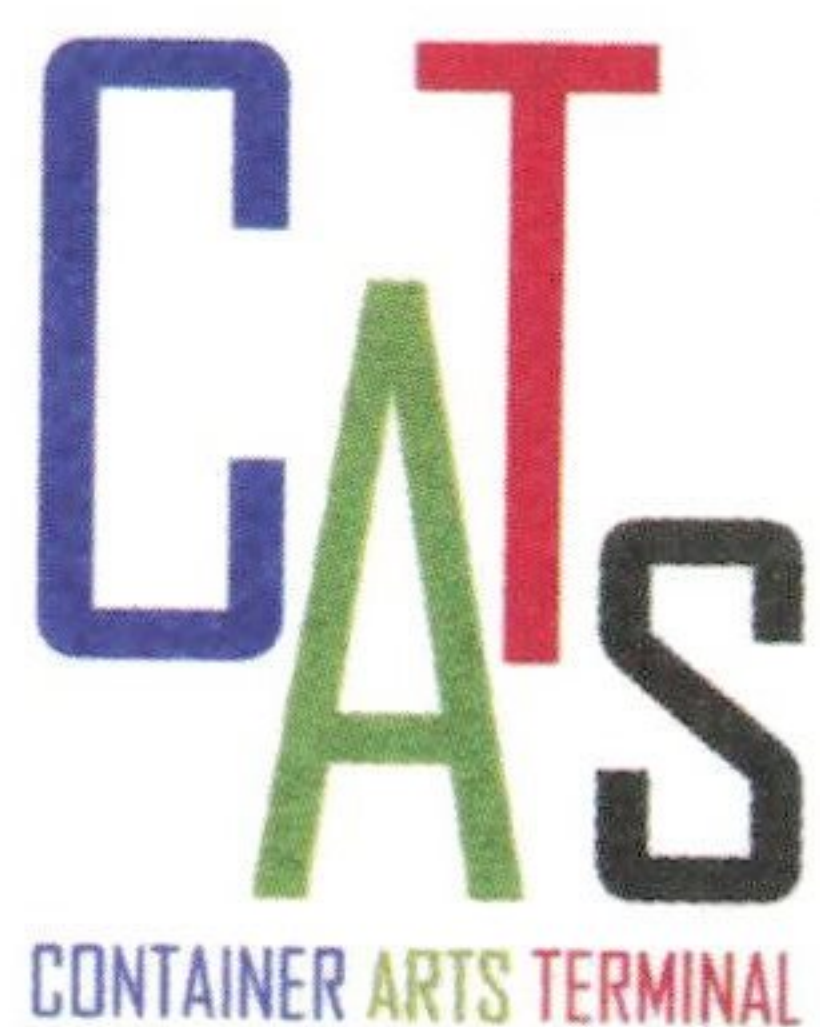
나직한 집 걱정 풀고 석양을 보내노니
 矮簷排悶送殘陽
 하얀 달빛 낚시터에 서늘하게 비추구나
 素月流輝釣石
 노야의 어부노래 물 흐린 것 걱정되고
 魯野漁歌愁水濁
 진나라 난정 모임엔 난초향기 생각나네
 晉亭禊事憶蘭香

시를 읽다보니 한적한 강촌이 그림다. 김홍도의 〈도선(渡船), 종이담채, 32×42cm, 소장처미상〉 작품은 뱃사공이 선비를 태우고 건너가는 무심한 강촌의 정경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어떤 선비가 어부가를 노래하면서, 창랑(滄浪)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고 했다. 무릇 사람 사는데 있어서 자연의 환경에 맞추어 사는 진리를 말해준다.



부산 청년,
인디문화의 메카



사상 인디스테이션
Container Arts Terminal

부산-김해 경전철 환승역인 사상역 앞 광장. 서부산 교통의 중심지인 이곳에 부산 청년, 인디문화의 중심지가 될 새로운 '인디 스테이션(Indie Station)'이 탄생했다. 바로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이 그 곳.

'CATs'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뜻의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Container Arts Terminal)'를 줄인 말. 그 이름처럼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화물수송용 컨테이너 27개를 이어 만들었다. 그 독특한 구조물만으로도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지난 7월 12일 문을 연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총 부지면적 1,624m²에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2동으로 구성되었다. 공연과 전시, 쇼케이스 등을 위한 '소란동'과 다문화센터로 운영되는 카페 '무지개'와 관리실, 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와 레지던스가 갖춰진 '도란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메인 공연장이 있는 소란동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연에서부터 전시, 강연, 세미나, 영화 상영까지 다양한 기능을 자랑한다. 변형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 배치와 천장 개폐식 공연장은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지향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감성과도 맞아떨어진다. 1층 공연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오픈된 2층 공간은 마치 홍대 앞 클럽처럼 연주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 도란동 1층에 자리한 다문화카페 '무지개'는 다문화주민 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편하게 들려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문화쉼터로 운영된다.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은 현재 부산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부산의 청년, 인디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개관식이 열린 지난 7월 12일에는 인디밴드 '휴먼레이스', 'J-tong', '스카웨이커스', '에브리 싱글데이', 'JUDE', '언체인드'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인디밴드 콘테스트가 열리기도 했다. 또 개관 기념전으로 부산지역 출신 밴드인 '에브리 싱글데이', '피아' 등의 소장품과 지난 10여년간 열렸던 지역의 인디공연 포스터, 리플렛, 입장권 등을 전시하는 '부산 밴드 최강展'이 열리고 있어 관심있는 인디밴드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관행사를 시작으로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는 앞으로 인디공연, 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우선 매월 2, 4주 금요일 저녁에는 상설공연인 '불금파티'가 펼쳐진다. 인디밴드, 힙합, 비보이 등 인디 예술인들이 펼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디문화를 하나씩 알려낼 예정이다. 매월 한차례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공연팀과 재능있는 청년작가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기획공연, 전시가 열린다. 8월에는 '힙합아 놀아봐(가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힙합팀을 초청, 평소 잘 접할 수 없었던 힙합의 매력을 통해 세대간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밖에 2013년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도시공공예술프로젝트로 선정된 부산노리단이 매월 두차례 이곳에서 '에코 D.I.Y. 프로젝트 in 사상'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는 창작준비를 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공연시설과 회의시설, 옥외 공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청년 및 인디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게 우선 대관할 예정이다.

■문의/CATs 사상인디스테이션(316-7630, www.facebook.com/catssasang)



■ 부산 청년, 인디문화의 중심지가 될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앞으로 인디공연, 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 7월 20일, 감전동 한 건물에 들어서자 청량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바깥 기온만큼이나 음악적 열기로 가득한 곳, 이곳에서는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연습이 한창이다. 올해로 벌써 창단 14년을 맞는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그 역사만큼이나 뛰어난 연주실력을 자랑한다. 지난 1999년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현대주부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초창기 '모티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의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지난 2001년, 지금까지 10여년 넘게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 고신대학교 교수를 만나면서 부터이다. 단원들 대부분이 전업주부인데다 어머니 마음처럼 따뜻한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단원들의 바람을 담아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로 단체이름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면 감전동에 자리한 연습실에 모인다. 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여름, 겨울 두차례 있는 공식적인 휴가기간을 빼놓고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빠진 적이 없다. 그 열정만큼 매년 단원들의 실력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현재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단원은 곽춘란 회장을 비롯해 모두 25명. 단원들 반 이상이 오케스트라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했던터라 단원간의 호흡만큼은 최고를 자랑한다. 시간내기 어려운 주말 연습시간에도 90% 이상이 참석할 정도로 오케스트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단원들의 이런 열정을 알기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충근 지휘자 역시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연습만큼은 빼놓지 않고 참석한다.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2003년 첫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지금까지 매년 1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하이든 심포니 93번, 영화주제곡 모음 등을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고아원, 병원, 외국인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자매요양원, 안나노인건강센터, 현대요양원 등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음악사랑을 펼쳤다. 이밖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에도 서온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지난 5월 부산시 북구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연주회와 6월 통도사 천연염색축제 축하연주회에 참가, 관객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흥겨운 무대를 갖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도 8월 부산국제마루음악제 프린지콘서트를 시작으로 9월 성지문화원 초청연주회, 10월 부산시청 수요 로비콘서트 등 연주회 일정이 빽빽하다. 계속되는 연습과 연주에 해가 갈수록 단원들 실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 특히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1인 2악기는 기본. 바이올린에서부터 플루트, 색소폰, 클라리넷, 피아노, 오보에, 타악기, 여기에 단소, 해금 등 국악기까지 연주하는 한신자, 강생임 단원처럼 오케스트라에는 실력있는 숨은 연주자들이 많다.

현재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총무를 맡아 오케스트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박영숙 씨는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주자이다. 클라리넷을 연주한지도 벌써 20여년이 다되간다는 박영숙 씨는 현대주부오케스트라 시절부터 활동한 원년멤버.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여러 악기가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그는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보다 많은 젊은 연주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립멤버이자 67세 최고령으로 오케스트라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양영주 씨는 10여년이 넘게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악장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바이올린은 이제는 펠레야 펠 수 없는 그에게는 분신같은 존재이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가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양영주 악장. 10여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앞으로 쪽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다.

■ 문의/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악장 양영주(010-4747-0883,
cafe.daum.net/bmo)



서울바로크합주단 현악6중주를 보고

■ 신설령_음악평론가

6명의 현악기 연주자가 뿜어내는 아름다운 울림이 충만한 음악의 향연이었다. 7월 17일 저녁 <고은 사진미술관>의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에서 베푼 향연이다.

첫 번째 연주곡은 브람스의 현악6중주 제1번이다. 브람스라고 하면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성 깊은 음악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곡을 작곡할 때의 브람스 나이인 28세에 걸맞게 1악장은 밝은 빛이 가득하다.

연주자들의 면면을 보는 사이 곡은 2악장으로 넘어가 있다. 2악장은 비교적 단순한 화성과 첼로의 지속 저음 같은 느낌의 연주로 바로크 음악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곧 이어 첼로의 빠른 패시지가 그 기교를 드러내고, 비올라와 바이올린이 제 목소리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3악장은 하이든의 현악사중주를 생각나게 하듯 경쾌하다. 유려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 그리고 각 악기 특유의 음색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조화로움을 보여 주고 4악장이 끝난다.

두 번째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현악6중주였다. 이 곡은 시작부터 속이 팍 찬 느낌으로 충만한 음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1바이올린 주자가 음악을 이끌어감이 특히 돋보였지만 6명 연주자 각자의 기량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주였다.

오래 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가 한 대사가 생각난다. 모차르트가 황제 앞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사람이 여러 명 모여 각자 이야기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혼란스럽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6중창도 가능하고 8중창도, 10중창도 가능한데 오직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열변을 토하던 장면이다. 그의 말처럼 6명의 연주자가 각자 다른 음들을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곧 각자의 탁월한 기량을 드러내되 절제와 배려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마치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 연주회장이 팍 차는 소리의 충만함과 더불어 빠른 패시지에서 일사불란함은 그 연습정도를 짐작케 한다.

'플로렌스의 추억'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곡은 2악장이 특별히 아름답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을 정말 예쁜 음색과 깊은 음악성으로 제1바이올린이 노래하고, 그 선율을 받아 노래하는 첼로의 음색 또한 아름답다.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썼던 1890년은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이 많았던 낭만음악 후기일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만적인 음악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는 이태리 피렌체에 서 체류했던 시기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3악장은 비올라가 그 시작을 열었다. 독특한 리듬과 단조로 열어나가는 이 악장은 또 얼마나 매력적이던가. 패기가 넘치는 이 곡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이후에 나타날 우울의 그림자도, 구름도 없어 보인다. 4악장 또한 재미있다. 푸가의 사용 등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쫓고 쫓기는 듯한 패시지에서조차 연주자들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다. 이날의 연주가 너무 좋아 연주자들의 이름을 적지 않을 수가 없다. 소개하자면 바이올린 유재원, 이현애, 비올라 김재운, 윤진원, 첼로 정재운, 황운정.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주곡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연주곡에 대한 프로그램 노트나 연주자의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날의 연주는 차이코프스키 곡이 단연 압권이었다. 그런데 브람스는 겨우 28세 때 현악6중주를 작곡했다. 차이코프스키는 수많은 곡을 쓰고 난 후 그의 창작 인생 말년인 50세 경 이 곡을 썼다. 어쨌든 황홀한 음악의 향연이었다.



지역영화의 힘

■ 김희진_영화감독

〈지슬-끊나지 않은 세월2〉를 만든 오명 감독은 제주도 태생으로 제주도에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오명 감독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영화를 통해 묘사하여 제주도산 영화의 대표적 감독이 되었다. 제주도 이야기를 제주도를 배경으로 제주도의 배우들과 함께 제주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만드는 그의 영화는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제주도 영화이다. 영화 산업이 전무한 제주도에 이렇게 큰 성과를 만들어 낸 오명 감독은 분명 주목 받아 마땅하다.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제주도는 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문제로 다시금 몸살을 앓고 있다. 4·3사건이 역사 속에 한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일이었다면 강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 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강정을 다룬,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들이 최근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주도라는 지역이 본격적으로 영화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2011년에 〈Jam Dacu 강정〉, 〈여기는 강정마을입니다〉, 〈구럼비 가는 길에 펜스를 치던 날〉, 〈구럼비아 사랑해〉가 만들어졌고, 2012년엔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부산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조성봉은 아예 제주도에 살며 만든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곧 공개할 예정에 있다. 〈구럼비-바람이 분다〉란 제목의 이 작품은 얼마 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지원 펀드에 당선되기도 했다. 조성봉 감독은 이미 오래 전부터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통해 제주도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부산이라는 변방의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다른 변방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다큐멘터리 〈비념〉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4·3사건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문제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보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이 영화는 제주도식 위령제를 제주도의 자연과 풍속 속에서 진행해나간다. 오명 감독은 2011년 작인 〈뽕뽕〉에서 제주도라는 변방에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한순박한 감독을 보여주는데, 그는 영화 속에서 서울에서

온 배우에게 ‘언어도 안 되고, 액션도 안 된다고’ 타박을 준다. 제주도말, 곧 사투리도 안 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런 일상도 연기해 내지 못한다는 이 말은 결국 지역영화라는 개념의 조건을 잘 말해준다. 곧 그 지역의 언어와 풍속, 문화를 담아야 진정한 지역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때 부산사투리를 사용하는 영화들이 잠시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투리라는 게 왠지 서울배우가 부산말을 배워서 한다거나 코미디적 상황을 위해 억지로 부산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 우린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 또 부산 관객들이 부산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며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왠지 교양 있어 보인다는 관념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부산이라는 지역의 영화는 점차 색깔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단지 부산의 풍경을 영화 속에 담으려는 유행만 있을 뿐 부산의 문화와 풍속을 담은 영화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명 감독의 작품들 〈어이그 저 췌겏〉(2009), 〈뽕뽕〉, 〈지슬〉 등은 모두 이런 점에서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과연 지역영화라는 것은 어떠한지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인 인정까지 받으며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산은 영화도시라는 이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화 활동들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역영화인 부산영화의 출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섬 가덕도 여름여행



■ 가덕도에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불을 밝힌,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0호인 옛 등대와 2002년 새로 건립된,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높은 새 등대가 나란히 서 있다.



때아닌 마른장마에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7월 12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 역사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88번째를 맞는 7월의 테마여행지는 역사의 섬 가덕도. 최근 거가대교가 개통하고 신항만 공사로 다리가 놓여지면서 더욱 가까워진 가덕도는 때문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12일 이른 아침,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면서 조용하던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부산해진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환한 회원들의 미소가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이번 가덕도 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정란, 이태형 씨가 동행했다.

한시간 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가덕도 천성항 선착장. 길이 좁고 꼬불꼬불 산길이라 대형버스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첫 방문지인 가덕도 등대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항포까지 배로 이동해야 한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이번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문화유산해설사 배종진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드디어 출발. 드넓은 바다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절경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천성항에서 외항포까지 뱃길은 10여분 남짓. 외항포에 내려서는 가덕도 등대까지는 걸어서 40여분, 가는 도중 군부대를 지나야 한다. 그래서 가덕도 등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산지방해양청에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 출입문이 보이면 이제 거의 등대에 다왔다는 신호이다. 군부대 입구에서 작성한 출입신고서와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문을 통과, 다시 얼마를 걷자 드디어 가덕도 등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덕도에는 두 개의 등대가 있다. 대한제국의 말기인 1909년 12월 불을 밝힌 옛 등대와 2002년 새로 건립된 지금의 등대가 그것.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옛 등대는 서구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 대한제국 시기 등대로는 유일하게 사무공간과 숙소, 등탑이 연결된 복합건물 형태이다. 중앙에 높이 9.2m의 등탑이 세워져 있고 등대 출입구 천정에는 그 당시 조선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李花) 모양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옛 등대 바로 옆에 세워진 새 등대는 팔각으로 된 돌출형으로, 등탑높이 40.5m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대이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등탑 꼭대기까지 올라간 회원들은 등대 아래 펼쳐지는 절경에 시선을 떼지 못한다.

등대 바로 옆에는 가덕도 등대 100년을 기념해 가덕도 등대의 100년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등대기념관과 가덕도 주민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덕도 민속생활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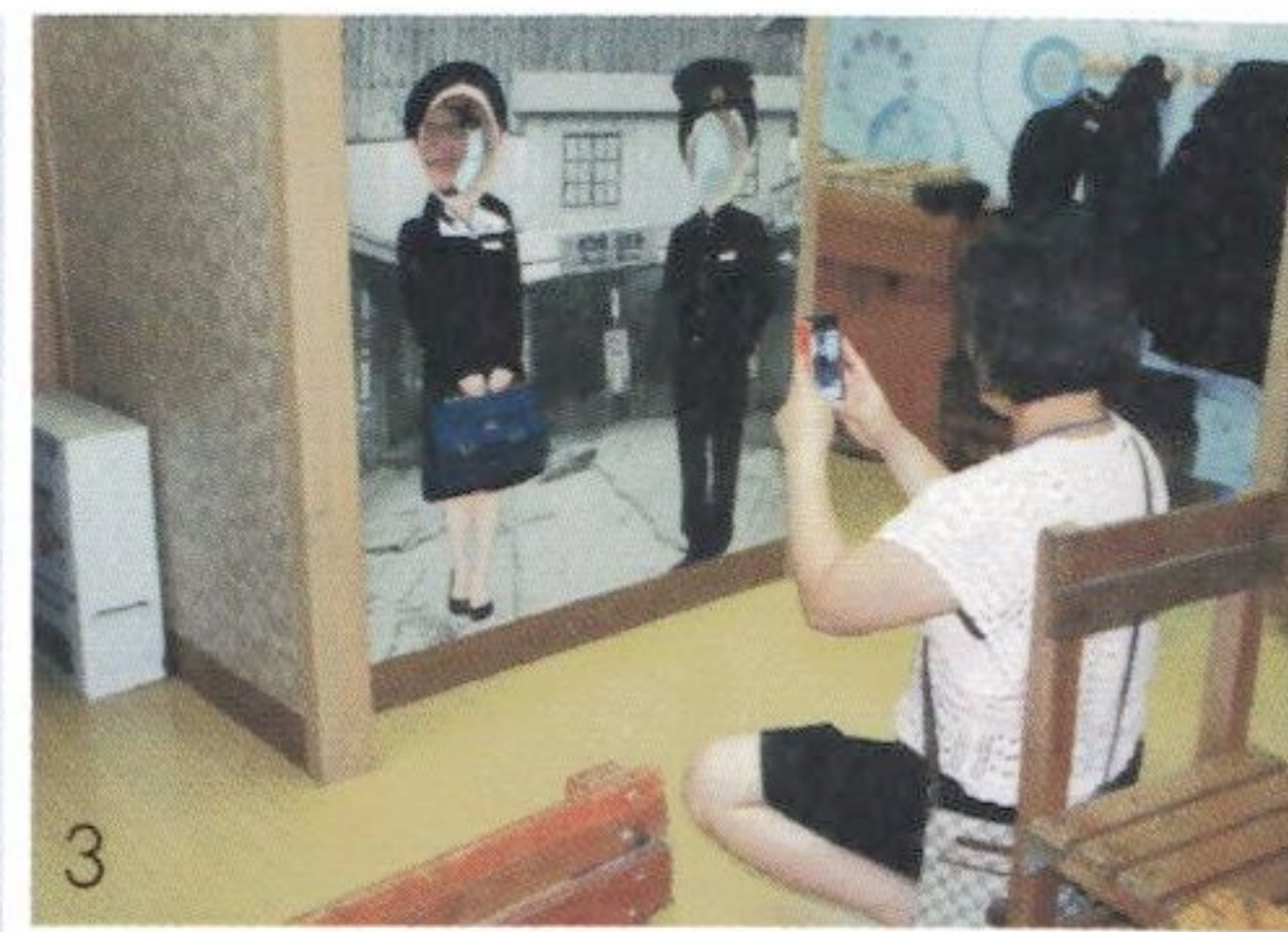
■ 가덕도 등대로 가기 위해서는 천성항에서 외항포로 배로 이동해야 한다.



■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최초로 주둔했던 외항포의 일본군 포진지



- 1. 가덕도 등대를 배경으로 한 단체사진
- 2. 부산시립합창단 이정란, 이태형씨의 야외콘서트
- 3. 4.7가지 주제별 전시관에 2천여점의 민속품이 전시되고 있는 록봉민속교육박물관



둘러볼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행군에 살짝 지친 회원가족들은 전시관 그늘아래 옹기종기 모여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이어지는 순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인 이정란, 이태형 씨가 준비한 야외 콘서트 무대.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퍼져나가는 두 성악가의 청량한 노래소리에 회원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등대 앞에서의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등대 탐방을 마친 회원들은 외항포로 발길을 되돌렸다. 회원들은 배를 타기 앞서 선착장 가까이 자리한 일본군 포진지에 잠시 들렀다.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최초로 주둔했던 외항포는 사실상 일본의 대륙침략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당시 사령관이 사용했던 막사와 화약고, 무기고 등 일본군 포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본군 포진지는 육로는 물론 바다 어느 곳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토성으로 쌓아 외부에서 보면 마치 마을 뒤 언덕처럼 보이도록 위장되어 있다.

일본군 포진지 탐방까지 마친 회원가족들은 천성항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승선했다. 가덕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재래식 어로법인 '육수장망 송어들이'로 유명하다. 무동력선들이 펼쳐놓은 그물 속으로 들어온 한무리의 송어떼를 그물을 끌어올려 잡는 '육수장망 송어들이'는 매년 4월 '가덕 송어들이축제'를 통해 시연해오고 있는데, 김태복 선장님의 배려로 송어들이가 직접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돌아볼 수 있었다.

천성항에 도착하자 다시 버스를 타고 천성마을 입구에 자리한 록봉민속교육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1년 11월 폐교였던 천성초등학교에 새롭게 문을 연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은 유아교육자였던 염춘자 씨와 그의 남편인 故 손진옥 씨가 30년 넘게 발품을 팔아 수집한 2천여점의 민속품이 전시되고 있다.

추억 속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학교관'에서부터 1960~70년대 사용되었던 옛 전자제품을 만날 수 있는 '전자관', 1980년대 이전의 장난감을 모아놓은 추억의 놀이관인 '재미관' 등 7가지 주제별 전시관이 모여있어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체험은 정작 아이들보다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어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록봉민속교육박물관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다시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특별한 '부산'을 만났던 가덕도 여름여행은 오랫동안 회원가족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9월에는 영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8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8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김유진(동구 좌천동)
 손서영(연제구 연산5동)
 이애진(서구 동대신동3가)
 이영래(수영구 남천2동)
 이필숙(남구 용호동)
 이자명(수영구 민락동)
 이준엽(금정구 장전동)
 최지윤(양산시 북정동)
 한지은(서구 토성동)
 황미영(서구 아미동)

● 신규가입자

강유미(금정구 부곡동)
 구미정(연제구 거제동)
 김금란(북구 화명신도시로)
 김유진(동구 수정동)
 백영희(사상구 학장동)
 신명철(부산진구 부전동)
 이상근(연제구 법원로)
 이수현(부산진구 초읍동)
 이현시(사상구 주례3동)
 조현주(남구 용호동)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옴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4 New Music
- 55 New Book
- 56 Special Movie



제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하늘에서 비처럼 마술사가 내린다면?’

8월 2일-5일 금-월요일

해운대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대, 중, 소극장

입장료 | 2일(개막식), 하루오 시마다 특별전 무료
부산국제마술대회 2만원,
유호진 스페셜쇼, 기획공연 료 & 김유정국,
하루오 시마다 스페셜 토크쇼,
스페셜 위너쇼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나이트갈라쇼 VIP석 4만원 · R석 3만원

문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626-7002, www.hibimf.org)



국내 유일 세계 최대 규모의 매직 페스티벌 제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올해는 특히 마술사 데이비드 스톤, 러시아 전통적인 느낌을 가미한 마술사 네체포 랜코, 수십년의 활동을 통해 노련미와 카리스마를 갖춘

여성 마술사 줄리아나 첸, 마술계의 살아있는 역사 나 기사 하루히코 등 마술역사에 족적을 남길 해외 매지션들과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기석, 듀오매직(유현민, 박은경), 박설하, 양희준, 양재혁, 최철승 등이 한국마술사들이 출연한다.

▶개막식

8월 2일(금) 오후 7:30 해운대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

제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식 행사, 식전행사, 개막선언, 매직갈라쇼 등 국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의 화려한 매직 갈라쇼가 펼쳐진다.

▶부산국제마술대회 본선 및 결선

본선 8월 2일(금)-4일(일) 오후 1:00

결선 8월 5일(월) 오후 1:00 대극장

‘나는 가수다’의 마술사 버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20여명의 마술사들이 몇 년에 걸쳐 완성시킨 마술연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명인 렉처

8월 2일(금)-5일(월) 오전 10:00~12:00 소극장

세계 최정상 마술 명인들과 함께 하는 마술 강의로 통합권 구매자만 입장 가능.

▶딜러 부스

8월 2일(금)-5일(월) 오전 11:00~오후 7:00(2일은 개막식 관계로 오후 5:00 마감) 대극장

주행사장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국내외 매직 바이어들의 정보교류 및 매직산업 관련 세일즈를 위한 딜러부스를 설치, 세계각지의 다양한 마술 도구들을 선보인다.

▶나이트 갈라쇼

8월 3일(토)-5일(월) 오후 7:30 대극장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국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이 매일 색다른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페셜쇼

8월 3일(토)-5일(월) 오후 3:00 중극장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3일은 FSM(세계마술연맹)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그랑프리를 차지한 유호진의 스페셜쇼, 4일은 역대 BIMF(부산국제마술대회)의 수상자들의 스페셜 위너 쇼, 5일은 마술계의 거장 하루오 시마다의 스페셜 토크쇼가 진행된다.

▶명인 클로즈업쇼

8월 3일(토)-5일(월) 오후 5:00 소극장

국내외의 마술 대가들이 소극장 형태에 맞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들을 중심으로 쇼를 만든 맞춤형 마술공연인 명인 클로즈업.

▶기획공연-료, 김유정국

8월 3일(토)-4일(일) 오후 5:00 중극장

2006년 JAPAN CUP 클로즈업대회 대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의 멘탈매지션 료와 2001년 대한민국 마술대회에 입상하면서 마술계에 입문하기 시작한 김유정국의 특별무대.

▶하루오 시마다 특별전

8월 2일(금)-5일(월) 오전 10:00~ 오후 7:00

(2일은 개막식 관계로 오후 5:00까지 진행) 중전시실
마술계의 거장 하루오 시마다의 특별 전시회로 그와 함께 해온 마술도구들을 통해 마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루오 시마다는 Tannen's Magic Jubilee에서 Lifetime Achievement Award를 수상하고 세계 각지에서 50년 이상 공연, 1980년 데이비드 카퍼필드(David Copperfield)의 TV Special Guest 등으로 출연한 바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연주회

CONCERT-Summer Fantasy, 콘서트

- 써머 판타지

8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지휘 오세종

연출 박흥영

오세종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기존 POP합창음악회와는 다른 Soul(영혼), Love(사랑), Body(몸짓), Joy(기쁨)의 4가지 테마로 화려한 무대를 연다. Soul 무대는 A Cappella가 있는 차분한 무대, Love(사랑)는 뮤지컬 테마곡, Body(몸짓)무대에서는 신나고 경쾌한 댄스곡을, 마지막 Joy(기쁨)의 무대에서는 Pop과 Jazz의 향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프로그램

Soul/My Lord, What a Morning

Love/‘닥터 지바고’ 중 ‘라라의 테마’ ‘남태평양’ 중 ‘발리 하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 메들리

Body/뮤지컬 ‘맘마미아’ 중 ‘댄싱 퀸’, 상하이 트윈스 트, 여인의 향기, 스웨이

Joy/Summer Time, Smooth Sailing 등 수곡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무대연출/박흥영(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

· 특별출연/Couple Dance(이병철, 박지은)

· 협연/홍광현(기타), 김정태(기타), 김진훈(드럼)



브니엘예술고 무용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브니엘예고(582-7671)

브니엘예고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 프로그램

한국무용 길, 소고춤, 고요새의 합창, 화풍유희
현대무용 One two Punch! The Story, 라 바야데르 등
· 연출/김태훈(창원대학교 교수)
· 감독 및 지도/현임숙(브니엘예고 무용부장)
· 안무 및 지도/박주현 · 재구성 및 지도/손선경

제 11회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8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8266-3298, 010-2536-2321)



2002년 창단 후 10년간 민간청소년오케스트라로 꾸준히 활동하며 저력을 발휘해 온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신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환우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로 음악사

랑을 실천해왔다.

▶ 프로그램

디즈니 클래식/뮤지컬 영화 메리퍼핀스, 신데렐라 스타미츠/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사장조 이병우/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중 '비엔나음악학원' 왕익남자 중 '먼길' 괴물 중 '한강찬가' 등 수록

· 지휘/정흥기
· 협연/이승현(바이올린), 현채윤(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대극장

청소년 음악회의 대명사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3년 무대. 매년 여름방학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레퍼토리로 어렵고 지루하다는 클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해온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 해설로 청소년음악회의 대표 레퍼토리인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1886년 초연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생상스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 프로그램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 지휘, 해설/금난새(유라시안 필하모닉 CEO, 인천시립 교향악단 예술감독)
· 피아노/맹의진, 문지수
· 첼로/김민지 · 플루트/김성희
· 클라리넷/손민 · 타악기/김자연

부산시립무용단 2013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권봉정

장래훈

황선희

단원들의 창작 열정이 살아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의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황선희, 부수석 단원 권봉정, 상임단원 장래훈이 정기공연에서 선보일 수 없었던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빛어낸 참신한 창작 무대를 선보인다.

작품

지독한 사랑(안무/권봉정 · 드라마투르기/정진희 · 출연/김주령, 오수연, 김미란, 최의옥, 권봉정)
화살이 빛나간 백조(세레나데)(대본, 안무/장래훈 · 연출/서정연 · 출연/이현정, 김진영, 김경미, 김모세)
꽃잎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네(대본, 안무/황선희 · 연출/이성원 · 출연/강미향, 김도은, 김시현, 장영진, 박미나, 김수잔, 황선희)
· 예술감독/홍경희

부산의치대관현악단 제 41회 정기연주회

8월 15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의치대관현악단(010-8502-7613)

인간미 넘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힘든 학업중 틈틈이 음악수업을 진행해온 부산의치대 관현악단의 제41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베버/오베론 서곡

랄로/스페인교향곡 라단조 작품2

슈만/심포니 제4번 라단조 작품 120

· 지휘/강원호 · 해설/조희영
· 협연/김경혜(39기 단원) · 악장/황보진(36대 악장)

어린이영어뮤지컬 '피터팬(Peterpan)'

8월 15일 목요일 오후 4:00,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극단 꿈꾸는 아이(010-7503-6564)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을 영어 뮤지컬로 구성한 극단 꿈꾸는 아이의 '피터팬(Peterpan)'.

해피앙상블 온가족이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8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피앙상블(010-3839-1084)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해외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들이 음악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해피앙상블'의 온가족과 함께 하는 '해피콘서트'. 클래식한 목소리로 성가곡, CCM, 대중음악 및 가곡, 민요, 영화음악,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열어온 해피앙상블은 10회의 정기연주회와 KBS, MBC 초청연주회 등 수백회의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애국가, 스마일 연가, CM송 메들리, 우리들은 미남이다, 난 할 수 있어 등 수곡

출연

테너 이홍길, 황성학, 허동권, 이승우, 우원석, 조동훈
바리톤 고정현, 김대성, 장진웅, 베이스 김정대, 박상진
· 피아노/안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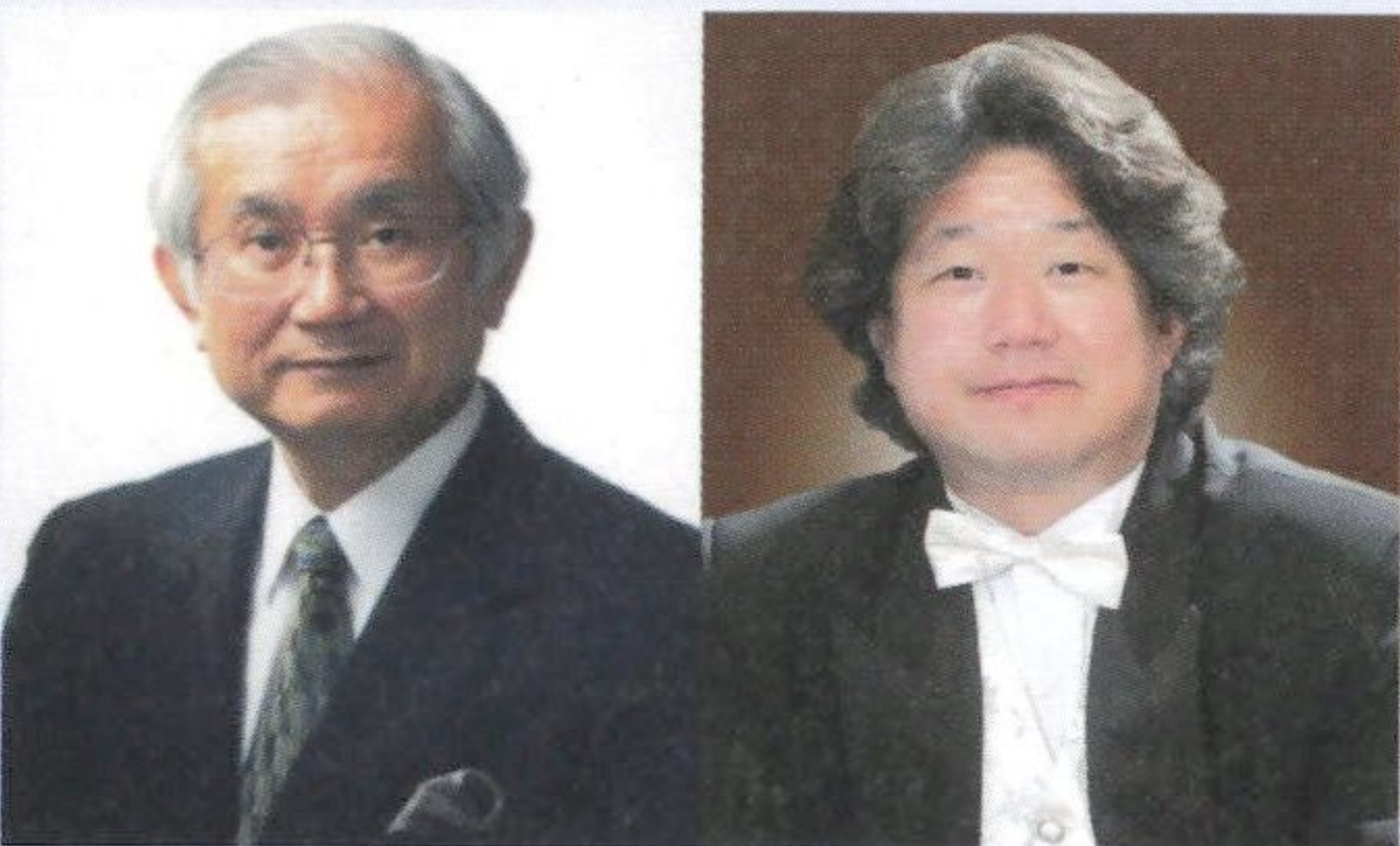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본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초청 합동음악회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이와자키 요우이치

전상철

2007년 우정만들기 등의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음악회를 가진 바 있는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창단 40주년 기념 합동음악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지휘자와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이와자키 요우이치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

번무대는 세계명가곡모음, 박지훈의 2편의 꽃노래, 한국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세계명가곡모음/호두까기인형 중 왈츠, 캔터키엣집
윤용하/보리밭
베르디/오페라 '맥베드' 중 '하늘에서 어둠이 내려오고'
일본곡/さくら さくら(사쿠라 사쿠라), ほたるこい(반딧
불코이), 水平線(수평선), つきよ(달밭)

박지훈/2편의 꽃노래 도라지꽃, 진달래꽃

연합합창/故郷,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민지, 베이스 박기현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와자키 요우이치)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BYO) 제18회 정기연주회

8월 17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010-3661-6806)

1998년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을 목적으로 부산YMCA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부산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18회 정기연주회.

전문적인 음악 인력의 확충과 악단운영의 효율화, 합주를 통한 협동심 제고,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 개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한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는 장진지휘자와 함께 수차례의 특별 및 초청연주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심포니 2번 1악장, 피아노 협주곡 2번, 에그몬트
서곡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1번 K.313 등 수곡

· 지휘/장진

· 협연/강지나, 조성철

YMD원드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8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기울(010-3496-4445)

기획력 있는 연주회와 전문연주인력 양성을 목표로 젊은 관악주자들이 의욕적으로 창단한 YMD원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네 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과 그렉스의 튜바 협주곡을 베이스트롬본으로 부산초연 협연하고 만시니의 드럼협주곡을 비롯해 과거에 많이 연주 되었던 다양한 관악곡들로 신나는 무대를 열어준다.

· 상임지휘자/김기울

프라하 챔버(PUELLARUM PRAGENSIS)

오케스트라 초청 오주영의 비발디 사계

8월 21일 수요일,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3만원 ·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1600-1803)

초등학교 5학년때 미시건주 국제 음악캠프 콩쿠르에서 초, 중등부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1위를 차지, 현지 음악인들을 놀라게 한 신동에서 뉴욕 필하모닉 단원으로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과 프라하 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특별 무대. 오주영은 뉴욕의 카네기홀 데뷔 독주회에서 뉴욕의 콘서트 리뷰지로부터 '그는 천재적인 기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거장으로스의 테크닉과 음악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적인 연주자'라는 평을 받았다.

Joy of Strings 수석, 창원시향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이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바흐/바이올린 이중 협주곡 BWV 1043

드보르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비발디/사계

· 특별출연/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방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여름 인기프로그램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국악가요를 비롯해 줄타기 명인 초청 무대, 우리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등 새로운

시도로 재미있고 시원한 국악무대를 선보여왔다.

올해는 국립창극단의 대표 소리꾼 박애리의 사회와 노래, 대학가요제 스타 이상우, 박성희의 판소리, 타로설장구의 흥겨운 장구가락으로 더위를 씻어준다.

▶ 프로그램

원일/국악관현악 '신벚놀이'

국악가요/공항의 이별, 엄마 엄마 우리엄마, 배 띄워라 김희로 편곡/수궁가 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전 이경섭/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 지휘/김철호

· 협연/박애리(국립창극단 단원), 이상우(가수),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타로 설장구(권보름, 이경희, 이충인, 최정욱, 권두술, 이주영, 전정현)

· 객원/조용운(드림,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 유경훈(베이스기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장미여관&불독맨션

8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극장 콘서트의 새로운 전형을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그콘서트 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

▶ 22일(목) Vol.36 장미여관

보컬/기타 강준우와 육종완을 주축으로 2011년 결성된 장미여관은 2012년 배상재(기타), 윤장현(베이스), 임경섭(드럼)을 영입하여 현재의 5인조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지난해 KBS TOP밴드2에서 단숨에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방송, 클럽



공연, 페스티벌 등 섭외 1순위로 사랑받고 있는 장미여관은 2013년 정규앨범 '산전수전 공중전'을 발표, 북고풍 멜로디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 23일(금) Vol.37 불독맨션



1999년에 결성된 팝 록 밴드 불독맨션은 한국에서는 드물었던 펑크장르와 락의 조화를 기본으로 자기 색깔이 있는 발랄한 음악으로 주목을 받으며 많은 고정팬들을 확보했다. 2002년 1집 '펑크'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반으로 기억되고 있다. 2집 'Salon de Musica'를 끝으로 잠정 해체했다가 2013년 9년 만에 컴백. 5월 3집 'Re-Building'을 발매, 음악팬들을 설레게 했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주현(010-4182-2622)

1990년 2월, 초대 단장 박지훈을 비롯해 6명의 의과대학 학생으로 출발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음악캠프를 개최하며 꾸준히 성장, 음악을 혼자들과 공유하며 여름 봉사활동, 환우들을 위한 병원 로비 콘서트 등을 열어왔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로자문데 D 797 작품 26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슈베르트/교향곡 제3번 등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바다를 위한 전주곡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사무국(624-0234)



부산시민이 만들고, 부산시민이 키우고 있는 부산시민 오케스트라의 제1회 정기연주회.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오케스트라, 시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힐링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2012년 7월 결성된 부산시민오케스트라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운영위원단, 수석지휘자, 수석 및 차석급 연주자와 엄격한 오디션 거쳐 선발된 부산의 청년 연주자 등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프로그램

글린카/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웨버/뮤지컬 '에비타', '오즈의 마법사' 주제곡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등 수곡

· 지휘/장진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미소지자 입장가능)

문의 |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010-4842-6688)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을 키워온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의 제13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는 2000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영상 플러스 뮤

직 스토리 등을 열어왔다.

▶ 프로그램

주페/경기병 서곡

바흐/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슈베르트/미완성교향곡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 협연/김현정(바이올린, 브니엘예고 3학년),

박관유(바이올린, 데레사여고 2학년)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6회 정기연주회

8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5만원 · 학생 3천원

문의 | 노은주(010-2565-9780)

부산대학교 최정순 명예교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의 제6회 정기연주회로 각 분야의 연주자들이 피아노 듀오 음악을 비롯해 귀에 익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거친/쿠바 서곡, 라벨/리발스,

미요/스카라무슈, 피아졸라/카페1930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한인숙, 바리톤 윤풍원, 피아노 김은희, 정미선,

홍유리, 성민주, 이은정, 기타 고충진 외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의 합창축제

8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 울산, 김해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의 합창축제'.

2001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의 문화·예술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시작된 3개 시·도 교류음악회는 매년 3

개 시·도 합창단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여 3개 시도를 순회하며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는 한국 합창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이영만이 지휘한다.

▶ 프로그램

남성합창/ 'Sanctus(거룩 거룩)' 'Gaudete(기뻐하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밀양아리랑'

여성합창/옛님, 국화 옆에서, 동요로 꾸민 고향 '사계'

혼성합창/Leonardo Dreams of His Flying Machine

Eric Whitacre, '명태' '아리랑' 등 수곡

· 지휘/이영만(김해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18회 정기연주회

8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고신의대관현악단(010-4848-9602)

1993년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고신의대 관현악단은 의료계열 학생들, 환우들을 넘어 부산시와 삭막한 의료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랑을 전해왔다.

▶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재즈 모음곡

드보르작/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 지휘/박진

제1148회 MBC목요음악회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차세대 Diva, Duo 콘서트'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오케스트라 사무국(070-7727-0188)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차세대 Diva, 소프라노 김지현, 김현주 듀오콘서트. 서울대학교와 Long Island University 음악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오페라 무대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김지현과 9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박사과정 졸업 예정인 소프라노 김현주가 아리아,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 프로그램

포스터/Beautiful Dreamer

푸치니/Quando m'en vo', O mio babbino caro

로저스/Climb every mountain 등 수곡

· 상임지휘/김병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무대예술의 결정체인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시골의 기사도' 라는 뜻의 이 작품은 현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른바 베리스모(진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1막짜리 오페라지만 극적인 내용이 풍부하고, 격한 감정과 부드러운 서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프로그램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하이라이트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소프라노/구민영 · 테너/김지호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 바리톤/고영호

극단 토타루 '우리 집엔 리어왕이 산다'

- 기억, 환상 그리고 실체

8월 30일-9월 4일 평일 오후 7:30,

토,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토타루(070-4205-9958)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인 '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라는 큰 틀로 새롭게 담 아낸 극단 토타루의 '우리 집엔 리어왕이 산다'.

· 대본/조금희 · 드라마투르기/변지연

· 연출/조금희 · 조연출/양지웅

· 출연/리어왕 권철, 코델리아 강민지, 광인 김학준



BN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6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30,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 KNN(1899-0048)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열어온 BN그룹 · 대선주조가 선사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여섯번째 축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따뜻한 색채의 피아니스트 김정권, 정제된 감성의 우아한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열정의 첼리스트 양욱진이 문화로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 베토벤/삼중협주곡 작품56
- 번스타인/ '캔디드' 중 '화려하고 쾌활하게'
- 림스키 코르사코프/스페인 기상곡 작품34 등 수곡
- 지휘/마에스트로 오충근
- 협연/소프라노 전지영, 피아노 김정권, 바이올린 양경아, 첼로 양욱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IJMO)
제32회 정기연주회

8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IJMO(010-6865-0688)

음악을 통해 치유를 배우며 환우들을 위한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IJMO)의 제32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스피리도프/눈보라
- 드볼작/심포니 제8번 사장조 작품88
- 지휘/김예현 · 단장/강승엽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8월 10일

JJ매직패밀리 마술사 김유진 마술과 함께하는
summer vacation~!



국내 최초로 마술학도가 설립된 동아인재대학 출신의 엘리트 매지션 10인으로 구성된 JJ매직패밀리의 특별무대.

▶ 프로그램

- 오프닝 마술
실크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
- CD 마술
음악에 맞춰서 CD가 사라졌다 나타나는 마술
- 스타워즈 광선검 마술
영화 '스타워즈' 에서 나온 광선검을 이용한 마술
- 관객 참여 마술
마술사와 함께하는 관객 체험 시간
- 여왕카드 찾기 마술
큰 카드 3장 안에 있는 여왕카드 찾기
- LED 불빛 마술
불빛들이 이동하고 늘어나고 사라지는 마술

부산지역 청춘보컬팀 블루웨이브! '청춘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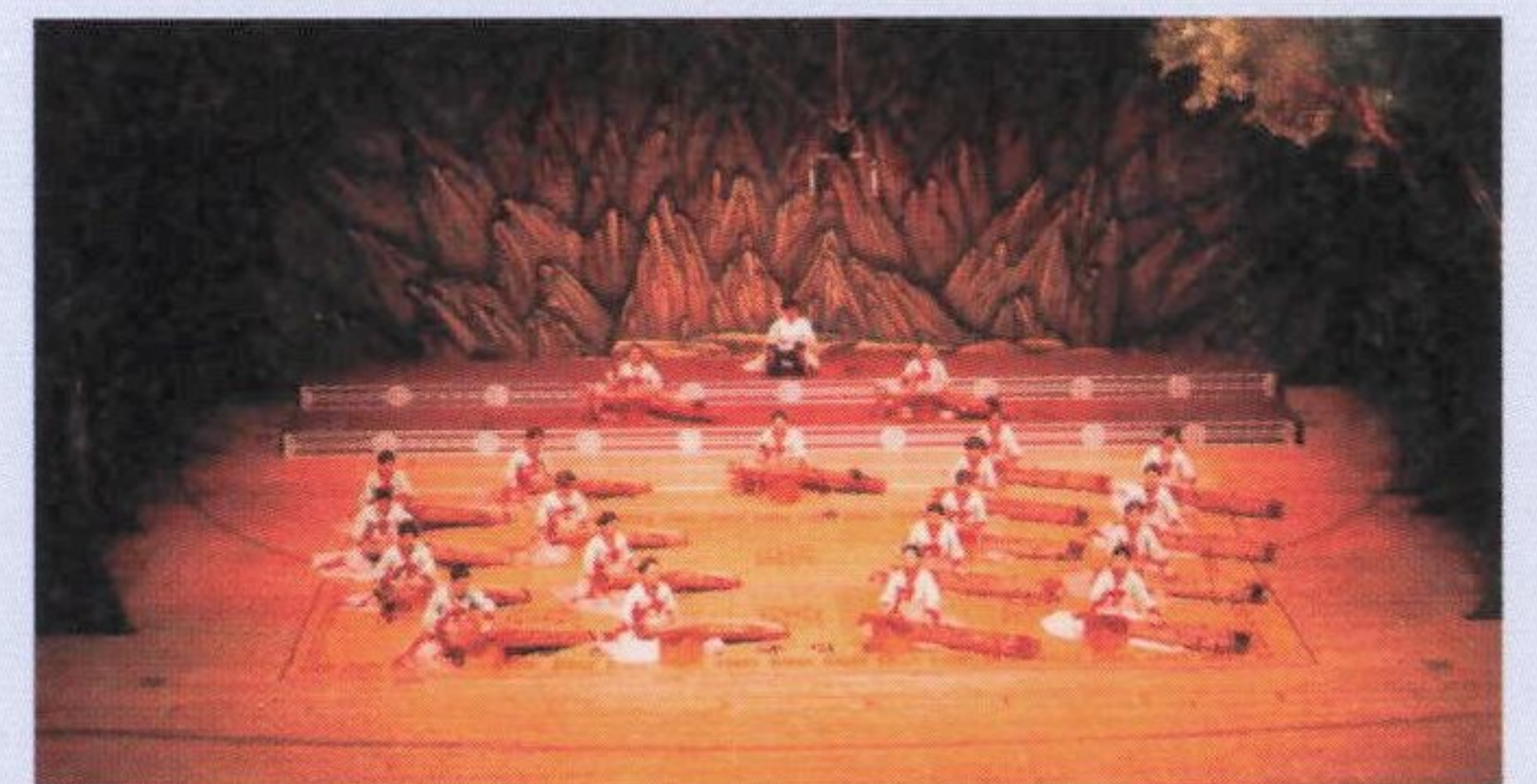
블루웨이브 사이클럽에서 현재 3,700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전국의 젊은 팬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부산지역 유일의 대학연합 혼성 보컬팀

▶ 프로그램

- 영화, 드라마 OST/My Heart Will Go On(Celine Dion), 사랑아(THE ONE)
- 중창곡/그남자 그여자(바이브 & 장혜진), 미워도 사랑하니까(다비치), 라라라(SG워너비)
- 솔로곡/눈의 꽃(박효신), 보고싶다(김범수)

8월 17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 대취타(등채/김/수일 · 태평소/김용우, 강영현 · 나각/진형준, 최영훈 · 나발/황두호 최재호 용고/방병원, 최오성 · 자바라/이주현, 박일 · 징/박재현)
- 신래동 류 거문고 산조(거문고/전혜정, 장구/이장우)
- 대풍류(대금/손한별 · 피리/박영은, 진형준 · 해금/김소현 · 장구/송강수 · 좌고/박재현)

흥겨운 민요 '신사철가, 동해바다' (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황두호 · 피리/정주아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엄애리 · 장구/송강수)

시나위(대금/최재호 · 피리/박순자 · 해금/방병원 · 아쟁/박일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이대하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Music

갤러리 움에서 떠나보는 실내악의 여행-3강 클라리넷 5중주

8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초등학생은 50% 할인)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갤러리 움과 함께 떠나는 실내악 여행 세 번째 무대. 클라리네티스트 이원기,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류승연, 비올리니스트 백나경, 첼리스트 김기량이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작품 115'를 들려준다

해외관광객을 위한 공연 'Heritage of Korea'

매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한국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중 종묘제례악,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등 엄선된 6작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3일 프로그램

춘앵전, 풍류장구춤, 남도민요 '동백타령, 태평성대', 가야금병창 '명기명창', 태평소와 관현악, 사물놀이

▶ 10일 프로그램

보허자, 포구락, 판소리 '춘향가' 중 '초경이경', 진주교방굿거리춤과 동래한량춤, 신뎃놀이(원일 작곡), 판굿 등

▶ 17일 프로그램

해령, 무산향,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

방아타령', 살풀이춤, 굿풍류, 밀양백중놀이춤 등

▶ 24일 프로그램

수제천, 무고, 영남성주굿, 부채춤, 취타풍류, 서도민요 '산염불, 자진염불', 꽃나부풍장놀이춤

▶ 31일 프로그램

검무, 수룡음, 태평무, 가야금병창 '제비노정기',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박범훈 작곡), 사물놀이 등

'다함께 즐기는' 두레라움 토요일야외콘서트 두레라움원드오케스트라 명곡시리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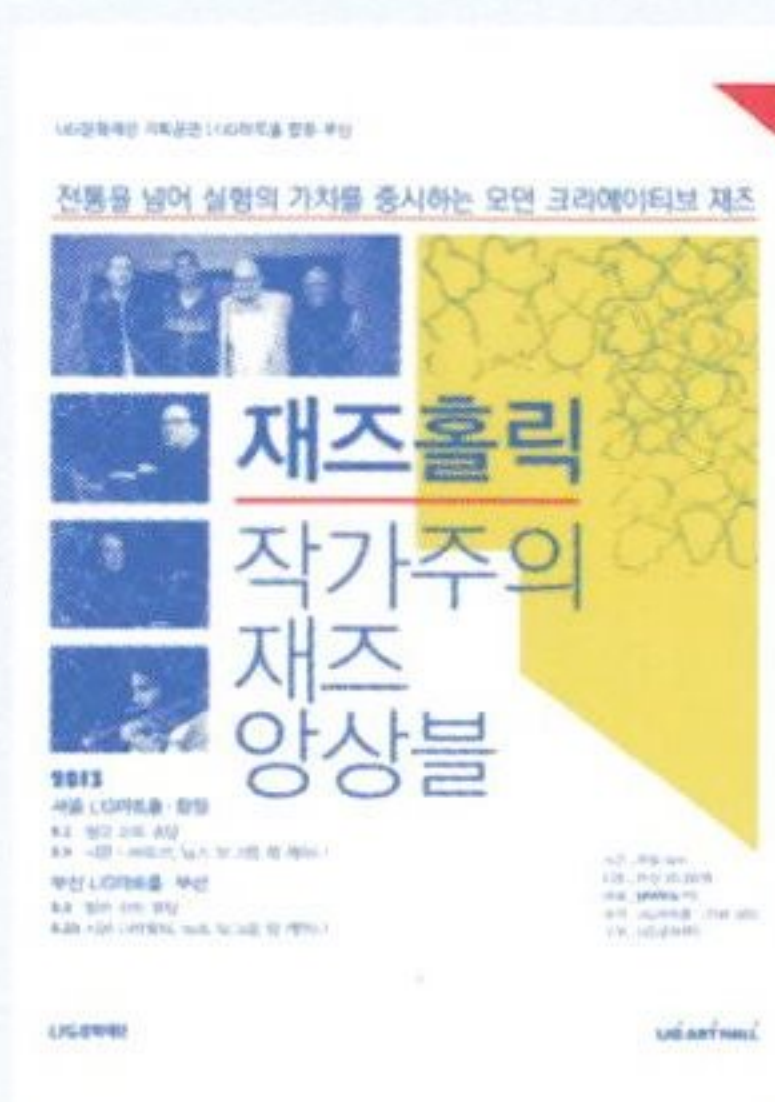
8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지는 시민들을 위한 토요일야외콘서트. 지역예술인들로 구성된 두레라움원드오케스트라가 영화음악에서부터 클래식 모음곡, 팝송, 가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김성진 · 해설/정두환
· 연주/두레라움원드오케스트라

재즈홀릭: 작가주의 재즈 앙상블

8월 3일(토), 10일(토) 오후 5:00 LIG아트홀 ·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LIG아트홀(1544-3922)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모던 크리에이티브 재즈'의 대표 주자들을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3일 빌리 하트 콰텟

재즈사에서 짙은 발자취를 남긴 재즈계의 거장 빌리 하트(드럼)를 리더로 마크 터너(색소폰), 벤 스트리트(베이스), 이든 아이번슨(피아노)으로 구성된 빌리 하트 콰텟의 무대.

▶ 10일 시몬 나바토브 - 닐스 보그람 - 탐 레이니

전통적인 모던 재즈에서부터 제3세계 음악, 실험적인

프리 재즈에 이르기까지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시몬 나바토브, '트롬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닐스 보그람, 현대 재즈 드럼의 아름다운 방랑자 탐 레이니의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재즈 앙상블의 무대.

아지무스오페라단 제18회 정기공연 한여름밤의 시원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

8월 6일-8일 화-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 · B석 2만원
문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지휘 정금련

· 예술총감독/손욱
· 지휘/정금련 · 연출/안주은
· 출연/곽성섭, 조윤환, 이해성, 강민성, 고예정, 장은영, 하병욱, 강경원, 조성빈, 김건우, 최현욱

2013 제5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8월 6일 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 일반 2만원
문의 | KNN(1899-0048)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음악, 자연, 관광'이라는 컨셉으로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

객들에게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김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후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한국민요/아리랑 환타지

미셀 쇤베르크/레미제라블 하이라이트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테너 전병호, 소프라노 강민성, 바리톤 한규원

· 국악/국립부산국악원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국립부산국악원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8월 7일-8일 수-목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남상일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신명나는 우리 춤과 소리로 펼쳐는 청소년 국악한마당.

'국악계 사이'로 불리는 소리꾼 남상일의 재치넘치는 해설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공연을 선보인다.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 7일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지난 2011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후 그동안 2차례 정기연주회와 진주호반음악제, 부산YWCA 66주

년 기념 평화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온 부산YWCA 브라스밴드가 마련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 14일 멜로톤의 힐링콘서트 '팔빙수'

피리와 하모니카, 기타,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퓨전그룹 '멜로톤'의 힐링 콘서트.

· 연주/최요셉(퍼커션, 피리), 김정현(하모니카, 아이리시 휘슬), 권영찬(기타), 손민국(베이스), 손민본(드럼), 문현정(보컬), 이정은(신디사이저)

▶ 21일 나진주 재즈퀸텟 재즈콘서트

익숙한 멜로디를 재즈스타일로 편곡,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한 여름밤의 재즈콘서트.

· 출연/나진주(피아노), 이광현(기타), 김일황(트럼펫), 변재갑(베이스), 박성진(드럼)

▶ 28일 소프라노 조신미 콘서트



경성대학교 성악과와 효성가톨릭음악대학원 성악과, 동서대학교 선교음악대학원 피아노과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아모로제성악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조신미의 첫 번째 콘서트.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초등학생 50% 할인, 4회 공연 예매시 20% 할인)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부산악기시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재즈 뮤지션 초청으로 마련되는 한 여름밤의 재즈 콘서트.

▶ 8일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폭넓은 사운드와 에너지 넘치는 색소포니스트 신현필 초청 무대.

▶ 15일 브라스 빅밴드 '아트 앙상블 오브 부산'



부산예술대학교 최창근 교수가 부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뮤지션들을 모아 창단한 '아트 앙상블 오브 부산'의 무대.

▶ 22일 기타리스트 탁경주 퀸텟

국내 재즈연주자로서는 드물게 기타리스트로서의 풍부한 음색을 선보이고 있는 기타리스트 탁경주 퀸텟의 무대.

· 연주/탁경주(기타), 임대섭(베이스), 이창훈(드럼), 하지림(피아노), 강윤미(보컬)

▶ 29일 재즈 피아니스트 하지림 & 재즈밴드 '러브레터'

재즈밴드 '러브레터'가 리더인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과 함께 유러피안 재즈의 부드러움과 뉴욕의 그루브한 리듬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재즈의 모미를 선사한다.

· 연주/하지림(피아노), 허진호(베이스), 최창근(색소폰), 최은아(보컬), 곽영일(드럼)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로젝트 콘서트

8월 10일(토)-11일(일), 17일(토)-18일(일) 오후 7:30
신세계 센텀시티 센텀광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070-7687-8291~2, www.webhard.co.kr)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국제음악페스티벌 2013 부산 마루국제음악제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미니콘서트. 금관5중주 매직브라스, 클라리넷 앙상블 라에툼, 퓨전 국악그룹 음악대륙 가이아, 성악앙상블 라온 등 4개팀이 출연,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 ● ●

2013 제9회 부산기타페스티벌

8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문의 | 서승완(010-5198-0074)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매년 여름 부산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13 부산기타페스티벌.

올해는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과 기타리스트 황민웅, 서울기타과르텟, 조이오브기타앙상블이 출연한다.

▶ 프로그램

한형일/Nada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줄리아니/기타협주곡 제1번 가장조 등 수록

● ● ●

해운대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미니오페라 '사랑의 묘약'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출연/소프라노 신민원, 테너 장진규, 바리톤 이종훈, 베이스 권영기
· 피아노/김효성

● ● ●

제18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한국가곡연구회 '정다운 우리가곡의 밤'

8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드림문화예술(550-6611)

우리 귀에 친숙한 정다운 우리가곡으로 꾸며지는 제18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 출연/소프라노 김현숙, 정서영,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테너 김동윤, 이흥득, 바리톤 함도관, 심정보, 하병욱
· 피아노/하영화, 하수민 · 음악감독/장진규

● ● ●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서희태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6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 게스트/영화감독 권수경

순박한 시골청년 네모리노가 아름다운 처녀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의 묘약'을 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도니제티의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 미니콘서트.

· 출연/소프라노 신민원, 테너 장진규, 바리톤 이종훈, 베이스 권영기

· 피아노/김효성

2013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

8월 14일(수)-9월 6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 2013년 무대. 8월 14일 화음체임버오케스트라의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7개의 실내악팀이 화려한 앙상블 무대를 선보인다.

▶ 8/14(수) 오후 8:00 오프닝 콘서트-화음체임버오케스트라

1993년 창단된 실내악단 화음을 모태로 1996년 현악합주 체임버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출발한 화음체임버오케스트라의 무대.

▶ 8/19(월) 오후 8:00 트리오 제이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로 구성된 트리오 제이드의 무대.

▶ 8/21(수) 오후 8:00 서울스트링앙상블

2012년 제1회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에서 오프닝콘서트를 장식했던 서울스트링앙상블의 무대.

▶ 8/25(일) 오후 5:00 클래식 앙상블

지난 2007년 미국 줄리어드음대, 맨하탄음대, 메네스음대에서 수학한 전문 연주자로 결성된 클래식 앙상블의 무대.

두장의 음반제작을 시작으로 뉴욕에서 활동한 클래식 앙상블은 지난 2009년 귀국 후 젊고 실력있는 음악인들을 새로운 멤버로 영입한 후 그동안 테마가 있는 음악회를 선보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9/2(월) 오후 8:00 그리움 앙상블

손열음, 아비람 라이케르트, 이형민, 조재혁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춘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그리움 피아노 콰르텟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해외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는 손열음을 대신해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함께한다.

▶9/4(수) 오후 8:00

인터네셔널 플레이어즈 오브 부산(IPB)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비올리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양욱진, 피아니스트 정성흡 등 지역의 주목받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인터네셔널 플레이어즈 오브 부산'의 무대.

▶9/6(금) 오후 8:00

클로징 콘서트-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다양한 실내악곡과 대중에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실내악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무대로 2013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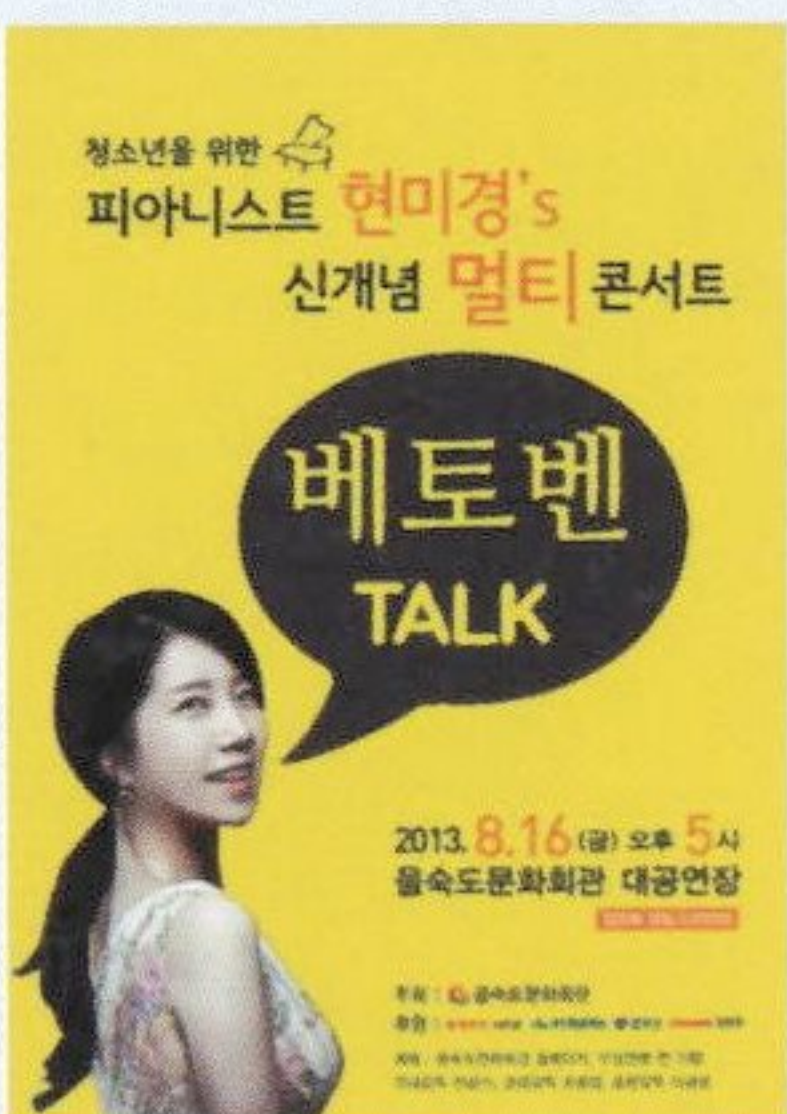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피아니스트 현미경's
신개념 멀티 콘서트 '베토벤 TALK'**

8월 16일 금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영국왕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현미경의 연주와 해설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피아노 소나타 '월광' '비창', 교향곡 제5번, 제9번 등

베토벤의 주요 기악곡을 들려준다.

· 연주/피아니스트 현미경, 김은지



**울속도문화회관 청소년 렉처콘서트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과 미술**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렉처콘서트.

인상주의 화가와 드뷔시, 바그너를 사랑한 프로방스 화가들, 쇼팽과 들라크루아의 우정 등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던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해설/큐레이터 옥성금
- 연주/유나이티드 코리아나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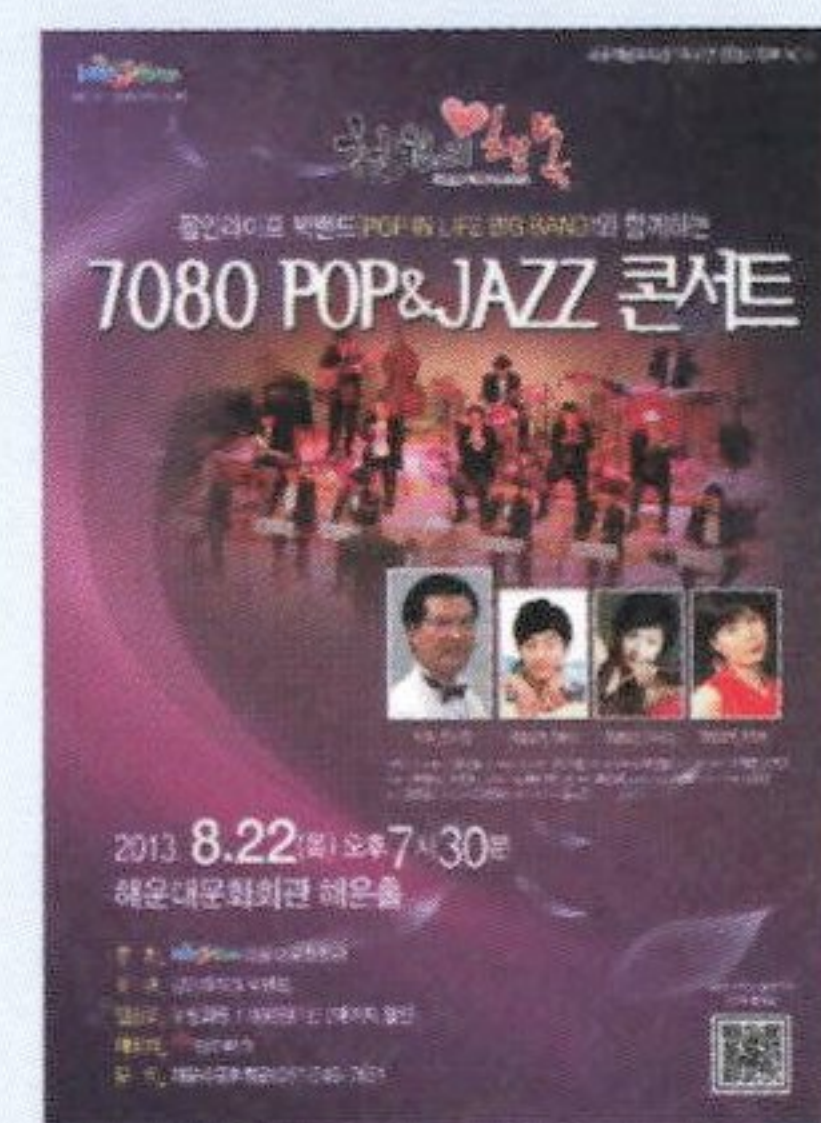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팝인라이프 빅밴드와 함께하는
7080 POP & JAZZ 콘서트**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2매까지 1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994년 부산MBC, 부산KBS, KNN 등 방송음악을 하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대중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팝인라이프 빅밴드와 함께하는 7080 POP & JAZZ 콘서트.

· 지휘/최낙용

· 특별출연/가수 진해성, 이수진, 편정원



김지원 귀국 첼로 리사이틀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



부산대학교와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지원 귀국 독주회. 한국베토벤협회, 낭만피아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은과 피에스타

기타앙상블, 기타퀼렛 Imagine, 듀오 카프리치오소 리더로 활동 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최인이 함께 한다.



동래구예술단 '한여름밤의 온천천 열린음악회'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온천천 음악분수대역

입장료 | 무료

문의 | 홍희철(010-2510-0753)



현재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효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중인 홍희철의 지휘로 동래구여성오케스트라, 동래구옥샘합창단, 동래구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 음악감독, 지휘/홍희철

· 사회 및 해설/박기홍(부산MBC 아나운서)

글로벌아트홀

연주자에게 편안함을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글로벌아트홀 8주년 기념행사

2013. 8. 1 ~ 2013.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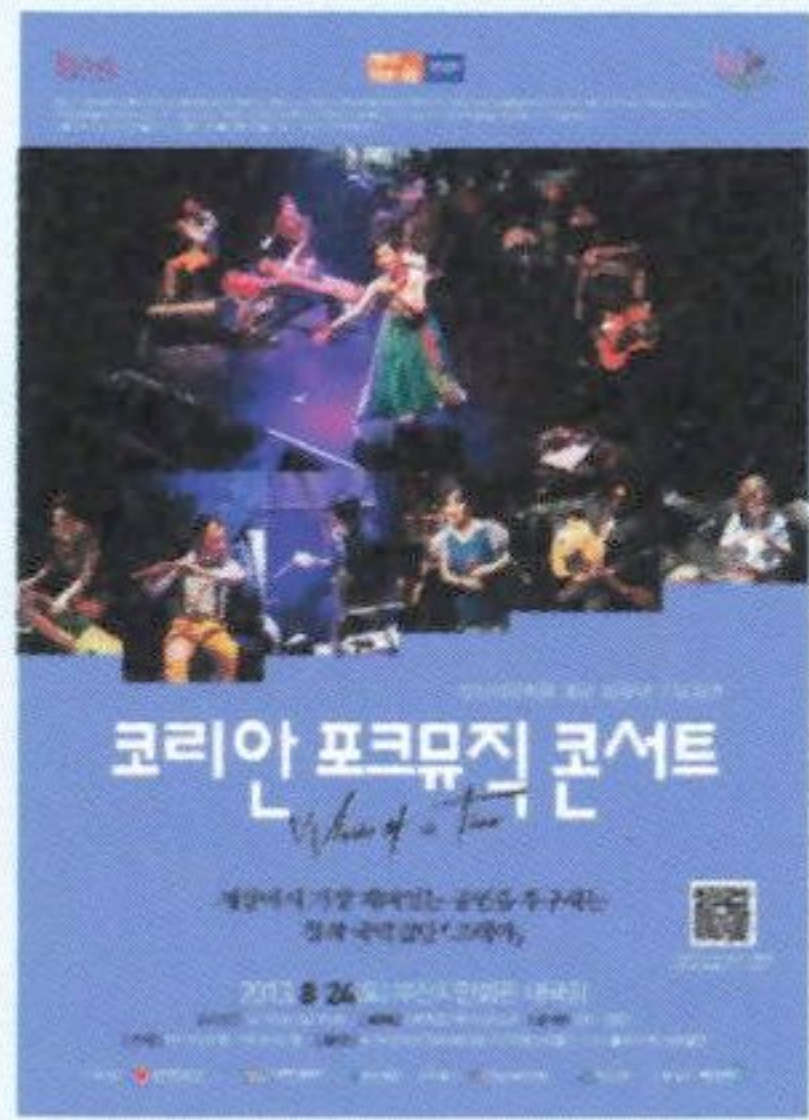
할인행사기간 신청시 30%할인
[리허설/공연/피아노/특수조명/냉난방]
60만 → 40만 (전체 5시간)

행사기간 : 2013. 8. 1 ~ 2013. 9. 14 (인터넷접수)
대관가능기간 : 2013. 8. 1 ~ 2014. 2. 28
신청방법 www.glovil.org 신청서 작성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문의 505-5995, glovil@hanmail.net

부산시민회관 개관 40주년 기념공연
코리안 포크뮤직 콘서트 Whale of a Time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전통음악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월드 퍼커셔니스트로 구성되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퓨전국악밴드 '고래야'의 무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민요와 판소리에서부터 영미의 록, 발칸반도의 집시음악, 슬픔과 흥겨움이 혼재된 남미와 아프리카 음악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 ● ●

최인 클래식기타 독주회

8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신준기 클래식기타 스튜디오
(010-3535-5095)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벨기에 레멘스인스튜트 석사과정, 독일 로스톡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클래식기타리스트 최인 독주회.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연주활동을 펼쳐온 최인은 귀국 후 기타쿼텟

Imagine, 피에스타 기타양상블, 듀오 카프리치오소 리더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성악의 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소프라노 박상희 소프라노 최부경 테너 채희진

한국전통오페라단 '부용'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상희, 최부경, 테너 채희진이 들려주는 성악의 밤. 클래식을 비롯해 국내외 가곡, 오페라 아리아, 팝페라 등을 들려준다.

· 피아노/최지미

● ● ●

제68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8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사진과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슈베르트 여행기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완벽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피아노의 시인 윤홍천의 해설과 연주로 들려주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독일 하노버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바이에른 주문화부장관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한 윤홍천과 함께 아름다운 비엔나의 사진 속에 숨겨진 슈베르트의 발자취를 따라 음악여행을 떠난다.

● ● ●

제53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오래된 노래, 무지카글로리피카

8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균일 1만원(사전 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지난 2002년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이 창단한 고음악 정격연주단체로, 국내외 정상급 고음악 연주자들과 함께 바로크시대의 레퍼토리를 정통적인 연주로 들려주고 있는 프로젝트 앙상블 그룹 '무지카글로리피카(영광을 돌리는 음악)'의 무대.

· 연주/김진, 김윤경(바로크 바이올린), 벤자민 알라드(하프시코드)

● ● ●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대금, 해금, 가야금 등 국악기와 건반, 베이스, 드럼 등 서양악기로 이루어진 퓨전국악그룹 소리팔레트의 연주로 마련되는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8월 무대.

● ● ●

카메라타부산 제2회 정기연주회

8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지난 2012년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로 결성된 챔버오케스트라 '카메라타부산'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독일 드레스덴 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볼프강 뢰그너를 초청, 유럽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음악감독/윤상운 · 지휘/볼프강 뢰그너

· 객원악장/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 연주/김희정(리더), 김여진, 윤주연, 하은영, 김가람, 이민지, 김은진, 성정인, 정준수, 박준현, 박경호



곽예지 귀국 바이올린 리사이틀

8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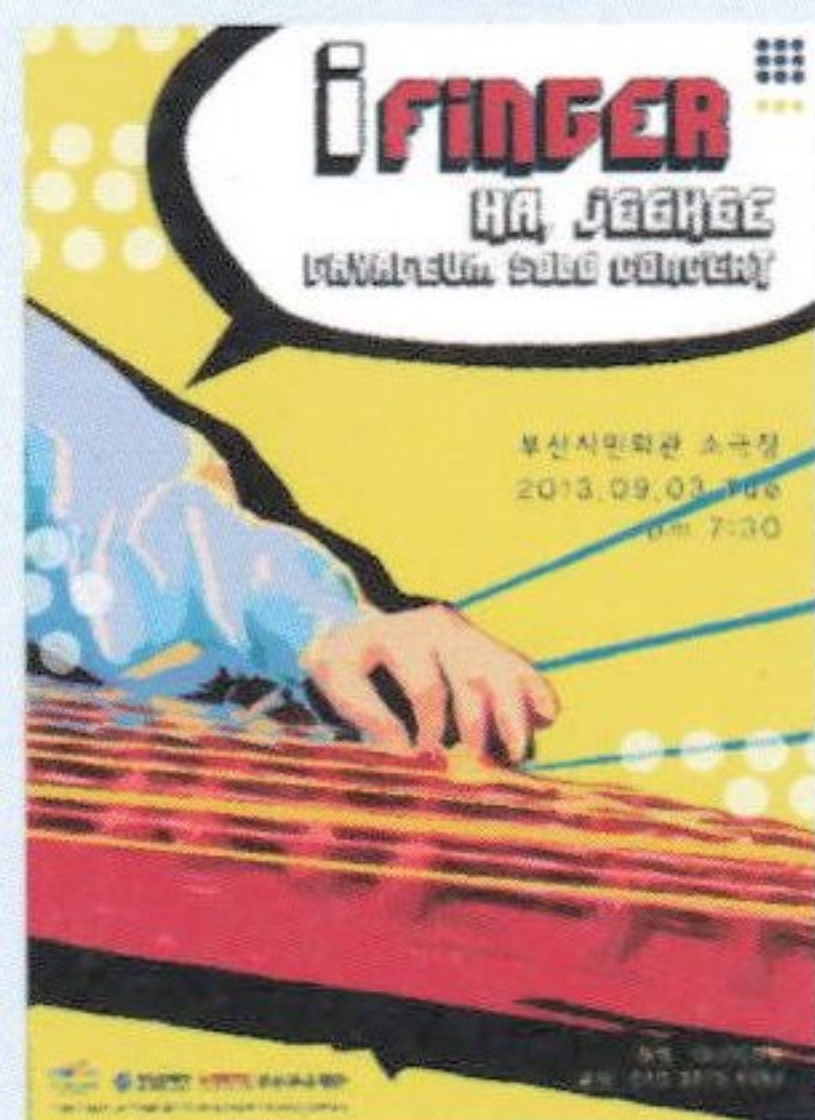
미국 뉴욕시립대 부록크린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곽예지의 부산 데뷔무대. 곽예지는 뉴욕시립대 오케스트라 악장, One World Symphony, Ensemble 212, Musica Bella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역량을 키워왔다.

· 피아노/김윤희



하지희 가야금 솔로 콘서트 'iFinger'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하지희(010-3273-818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와 전문사(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하지희는 부산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기악 일반부 최우수상,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은상, 전국김해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2현 전통 가야금과 드럼, 33현 옥류금으로 연주하는 쇼팽 에튀드, 현대무용수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25현가야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극 '50 손가락 피아니스트'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070-7687-8291~2, www.webhard.co.kr)



'음악 그리고 극'이라는 주제로 극예술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극 '50 손가락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후예'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1950년 헝가리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3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던 헝가리 피아니스트 조르주 치프라의 격정적인 삶을 그의 제자이자 프랑스 젊은연주자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파스칼 아모엘의 연주로 들려준다.

Play

코믹뮤지컬 '프리즌'

4월 4일(목)-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에 콘서트와 퍼포먼스, 비보잉, 마술 등이 결합된 코믹뮤지컬.



연극 '두 여자'

5월 30일(목)-9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코믹로맨스극 '하트브레이커'

7월 4일(목)-8월 23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행복하지 않은 연인들을 헤어지게 만들어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남자 '배태링'과 커플 연애조작단이 펼치는 코믹로맨스극.



코믹호러극 '막무가내들'

7월 12일(금)-9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천년 된 여자귀신에서부터 귀신을 쫓는 퇴마사와 저승사자, 거기에 사채회사 말단직원과 막장반장 김반장까지 5명의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공포 속 폭소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는 코믹호러극.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7월 16일(화)-9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아트레볼루션(010-8347-0129)



부산의 유일무이한 창작뮤지컬 집단인 아트 레볼루션 극단이 기획에서부터 극작, 작사, 작곡, 무대, 조명에 이르기까지 'Made in 부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할배와의 만남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다.

· 연출/박정우
· 출연/박준성, 이영진, 설재권, 채민수, 김범수, 손아영, 박다솜

연극 '어린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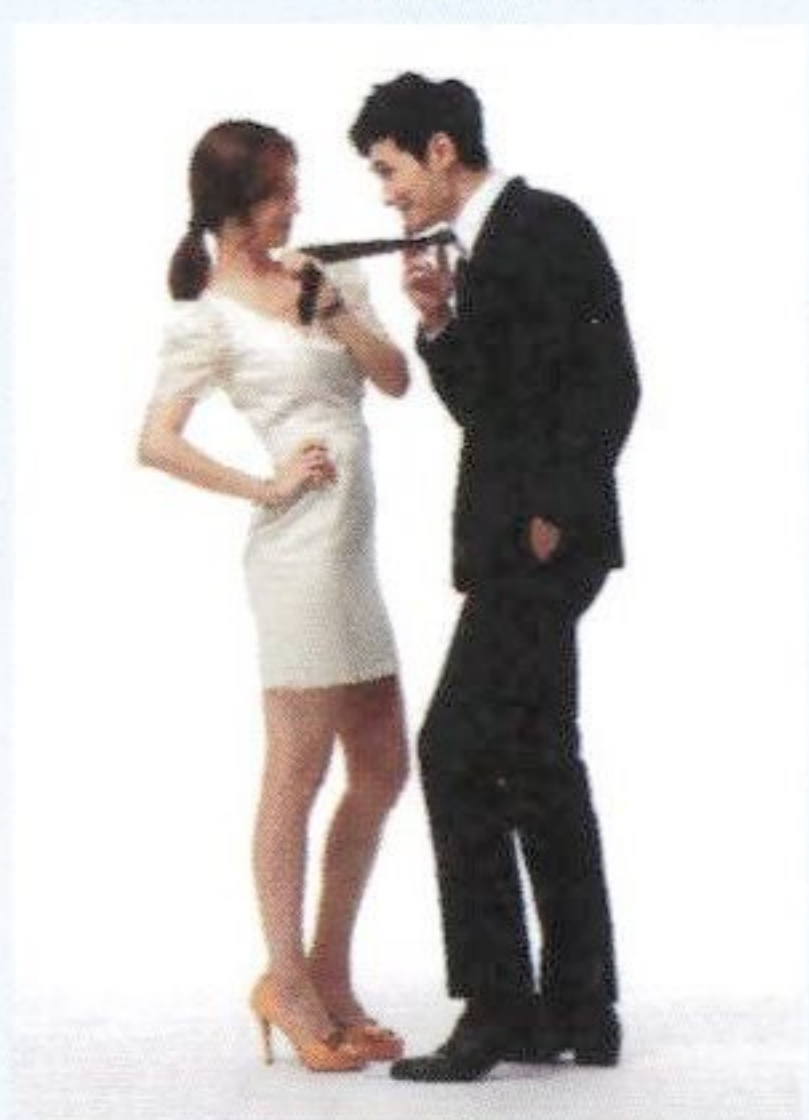
7월 18일(목)-8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정략결혼을 앞둔 28세 잘생긴 까칠남 진현과 좋아하는 남학생 태영과 펼쳐는 여고생 주희의 양다리 연애를 코믹하게 그려낸 연극 '어린신부'.



연극 '작업의 정석'

7월 19일(금)-8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230만명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송일국, 손예진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로맨틱 코미디극 '작업의 정석'. 마성의 작업남 서민준, 청순한 작업녀 한지원이 펼쳐는 피할 수 없는 밀당 승부와

작업의 기술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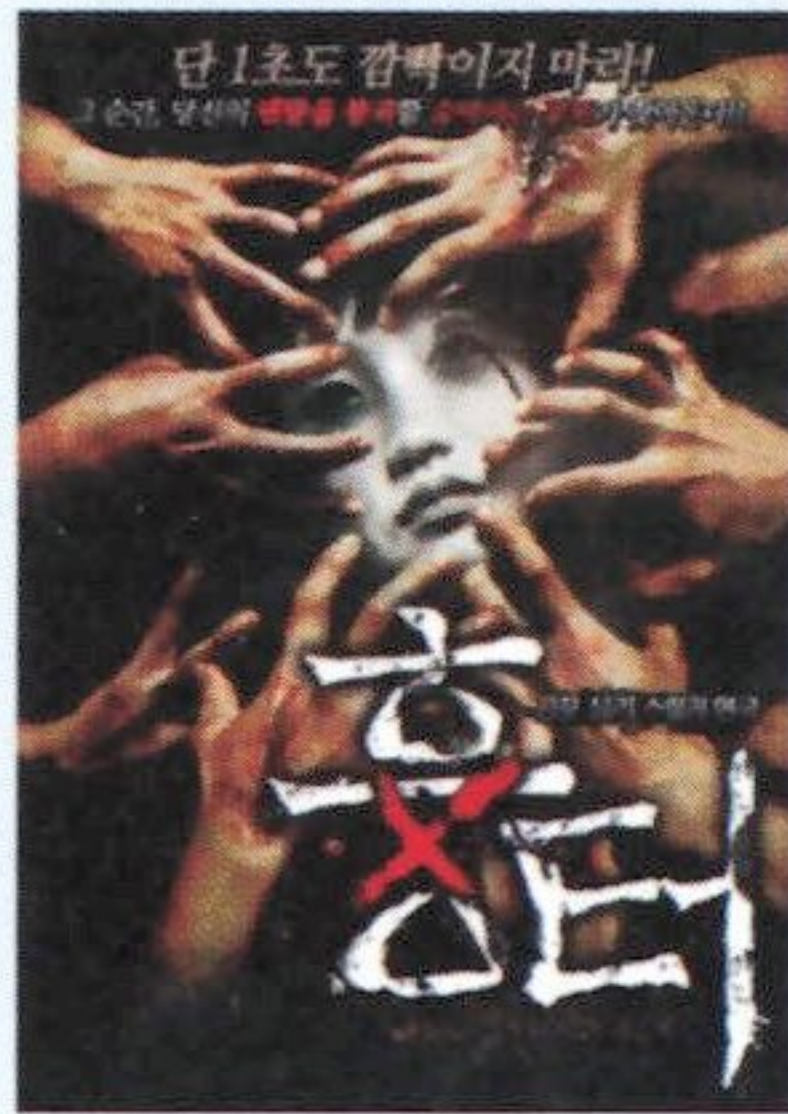
· 연출/황두수
· 작곡/임재신 · 안무/노준성



공포연극 '흉터'

7월 19일(금)-8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경성대학교 비너스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을 지워버린 남자와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



자, 같은 사건 그러나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통해 순도 100% 리얼 공포를 선사하는 공포심리 스릴러 연극.

· 연출/석봉준
· 출연/김동민, 김준래, 양시은



극단 누리에 '내 마음의 안나푸르나'

8월 1일(목)-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극단 누리에
(621-3573, www.nurie.co.kr)



큰아들의 죽음으로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한 가족이 뜻하지 않게 폭설로 꽁꽁 묶힌 고속도로에 갇히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창작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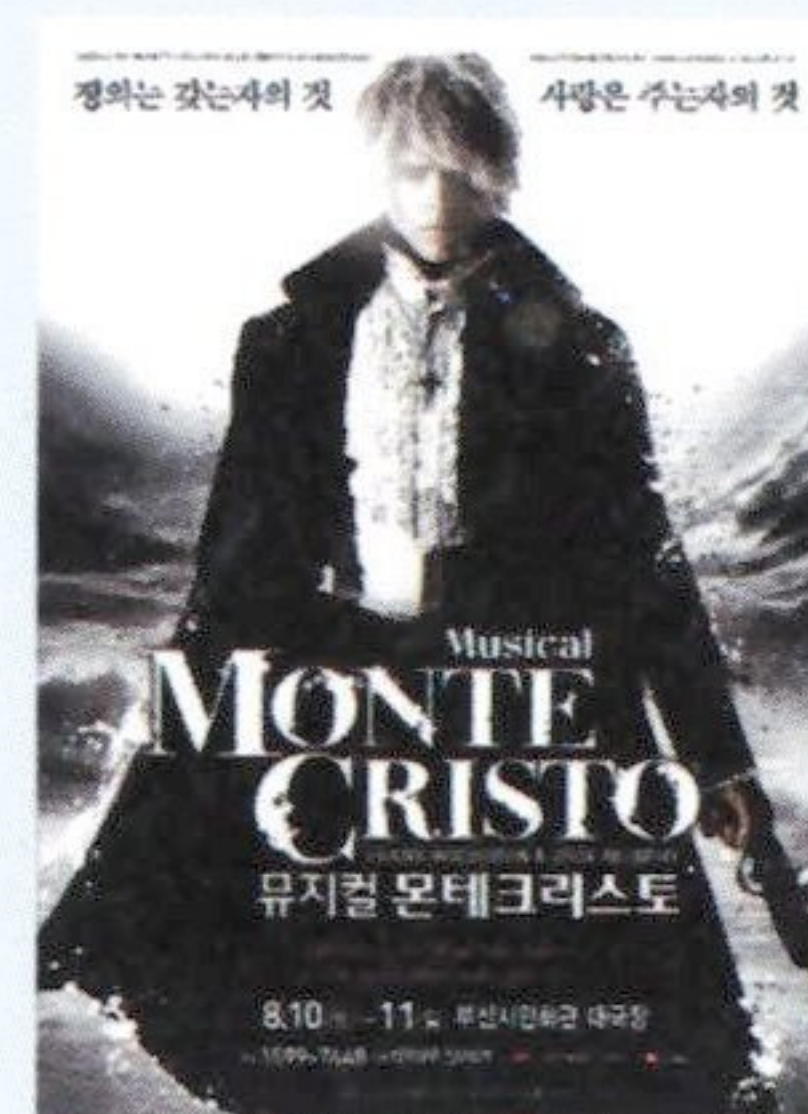
· 작/박춘근 · 연출/강성우
· 출연/김학준, 박정아, 이지혜, 박빈, 김고은, 배요한, 조성배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8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의 |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부산공연. 억울한 누명을 쓰고 14년간 감옥에 갇혀지내다 극적으로 탈옥한 주인공 단테스의 복수극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대세트와 더불어 실감나게 펼쳐지는 3D 입체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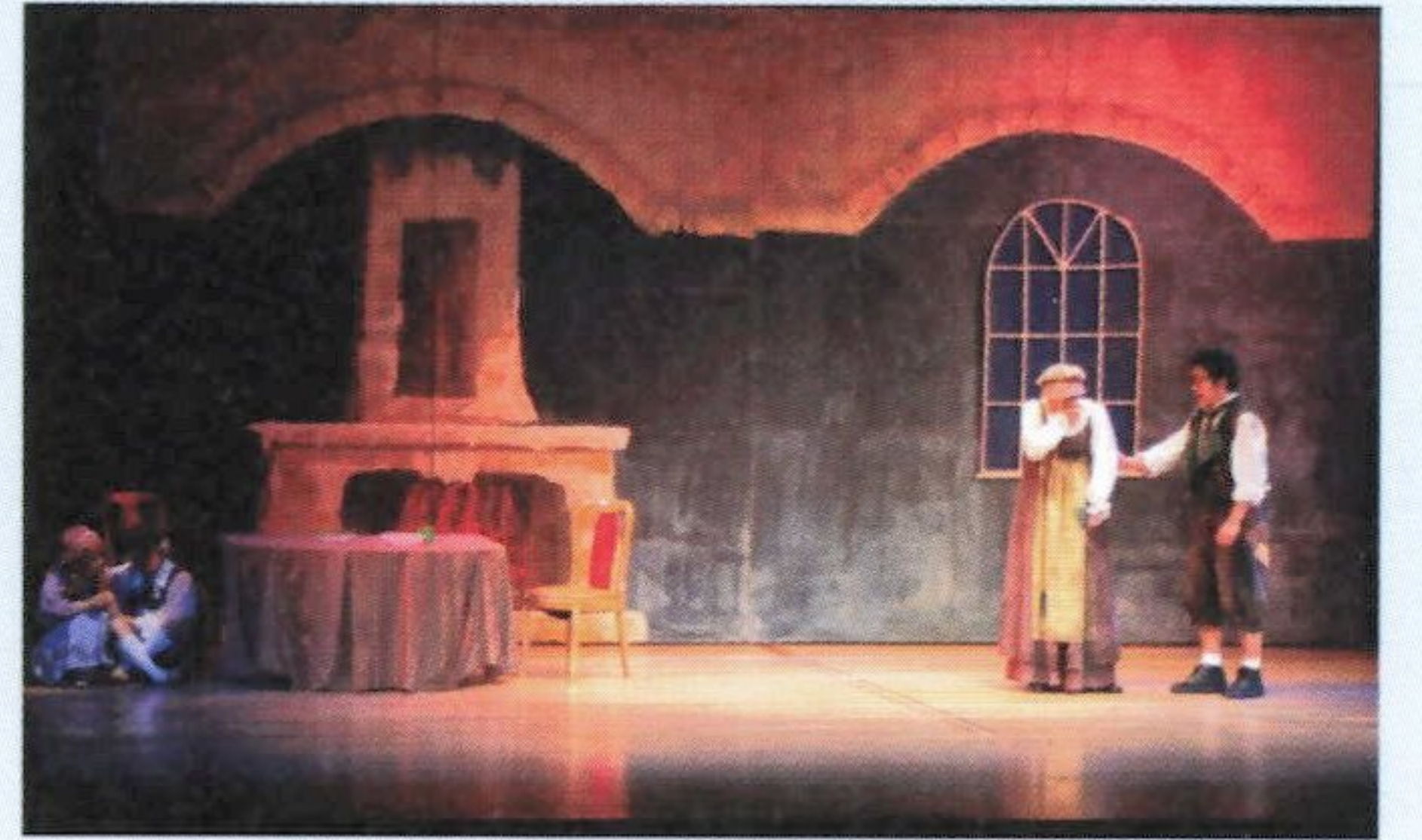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뮤지컬 배우 류정한, 임태경, 엄기준이 주인공 역을 맡아 3인 3색의 개성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오리지널 연출& 연출 슈퍼바이저/로버트 요한슨
· 출연/류정한, 임태경, 엄기준, 윤공주, 정재은, 최민철, 조희, 박철호, 조원희 외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마법과자집'

8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 2천원)
문의 | 가람뮤지컬(1544-4852)



가난 때문에 숲 속에 버려진 남매가 용기와 지혜로 숲속 마녀를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형제의 동화를 재미있게 각색한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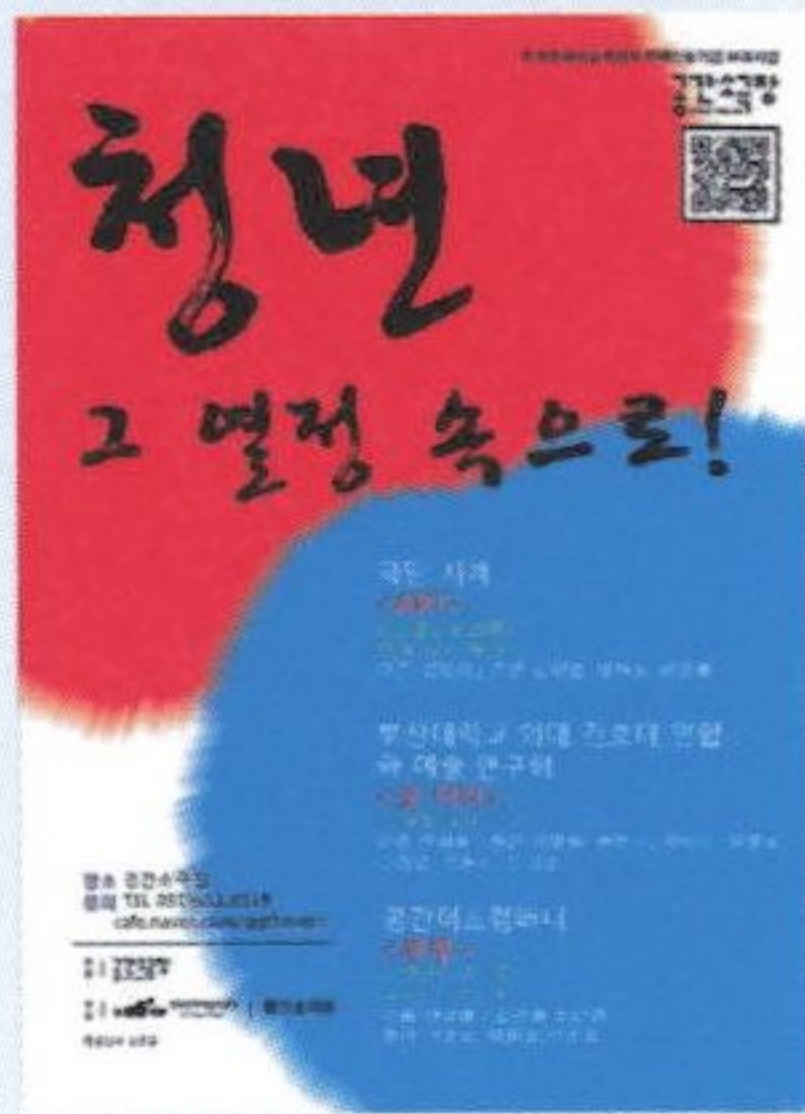
8월 13일-17일 화-토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입반 2만원 · 중학생 이하 1만 5천원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070-7536-7919)

인터넷으로 알게된 '일쌍달쌍 동화나라'를 통해 잊혀진 동화나라로 가게된 도로시와 친구들의 신비한 모험 이야기가 신나는 노래와 춤과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예술감독/이윤주
· 연출/강국희 · 음악/최원영

2013 청년 그 열정 속으로

8월 13일(화)-15일(목), 24일(토),
8월 30일(금)-9월 1일(일) **공간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공간소극장이 부산의 젊은 연극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청년 그 열정 속으로' 2013년 무대.

▶극단 사계 'ART'

13일(화)-14일(수) 오후 8:00, 15일(목) 오후 6:00
2억8천만원짜리 그림을 앞에두고 펼쳐지는 세 남자의 침 튀기는 수다한판 연극 '아트'.
· 작/아스미나 레자 · 연출/김정환
· 출연/신민호, 박현실, 이영봉

▶부산대의대간호대연합 극예술연구회 '굿 닥터'

8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홉의 칼럼을 원작으로, 미국 최고의 희곡작가 닐 사이먼이 우리의 삶을 겨냥한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낸 코미디극.
· 작/닐 사이먼 · 연출/한정혁
· 출연/이병준, 윤현지, 안은지, 허재석, 김하영 외

▶공간 아트 컴퍼니 '부부'

8월 30일(금) 오후 8:00,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6:00
사랑의 기억도 저 편으로 사라져버리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결혼 15년차 부부를 통해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창작극.
· 작, 연출/전상배
· 출연/구미석, 박준성, 이수정

● ● ●

뮤지컬 '그날들'-부산

8월 15일 목요일 오후 3:00, 7:00,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 A석 6만 6천원
문 의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950-6500)



그가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곁에 남아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故 김광석의 노래들**로 엮은 창작뮤지컬 '그날들' 부산공연.

이등병의 편지, 변해가네, 먼지가 되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부치지 않은 편지 등 **故 김광석의 노래**에 청와대 경호원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그날들'은 지난 6월 열린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창작뮤지컬로서 유일하게 9개 부문 후보에 올라 올해의 창작뮤지컬, 극본상, 남우신인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 출연/유준상, 오만석, 강태을, 최재웅, 지창욱, 오종혁, 방진의, 이정열, 김산호, 정순원 외

● ● ●

끼리프로젝트 두 번째 창작 레퍼토리 '바보미소'

8월 16일(금)-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 · 공휴일 오후 5: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끼리프로젝트(759-7112)



오지마을 봉암골을 배경으로, 조금 모자라지만 가슴따뜻한 소녀 미소를 중심으로 동화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창작극 '바보미소'.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 출연/홍선주, 안수빈, 이시라, 오세윤, 조효준

● ● ●

매직 신데렐라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8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이엔더블유(1688-5246)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 '신데렐라'를 마스크 플레이 뮤지컬로 제작한 '매직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이 눈 깜짝할 사이 화려한 드레스로 변하는 신기한 미술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개그 판타지쇼 in 부산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 부산홀**
입장료 | Vip 7만 7천원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 A석 4만 4천원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개그콘서트 사단 최강 개그맨 군단이 펼치는 요절복통 개그쇼.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황해'를 비롯해 전국구, 기다려 늑대, 애니멀 등 대표적인 개그코너를 선보인다.

● ● ●

로맨틱 클래식극 'Marry U?'

8월 21일(수)-9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070-7536-7919)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단막극 '청혼' '꿈'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은 로맨틱 클래식극으로, 사랑에 관한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Marry U?'.

· 원작/안톤 체홉
· 각색, 연출/안준영
· 출연/이원희, 조하은, 안준영, 박세다, 이민안, 심예란, 왕대륜, 박재한, 이지연, 김민우, 김아름
· 특별출연/신현석

● ● ●

미스터리 스릴러 연극 '몽타주'

8월 23일(금)-10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 작, 연출/김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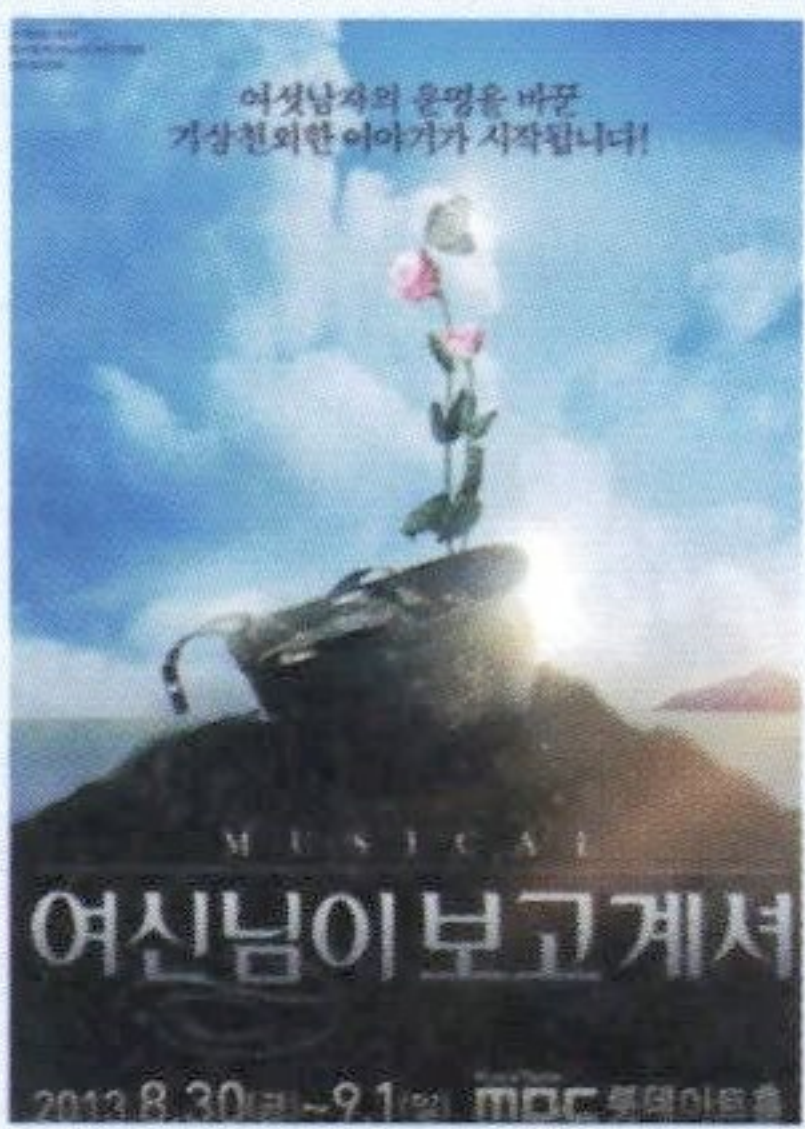
어린이뮤지컬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8월 24일-2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석 3만원 · 2층 2만 5천원
문의 | ES생활문화(1577-4868)

뽀로로 숲 속 마을에 나타난 장난꾸러기 도깨비와의 한바탕 소동을 통해 친구와의 우정을 그린 캐릭터 뮤지컬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3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9월 1일 일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문의 | (주)문화CONG(1688-8998)



2011 CJ CREATIVE MINDS 선정작,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 선정작, 2013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을 수상한 창작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참혹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기상악화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국군과 인민군 여섯 남자가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Movie

2013 한여름밤의 야외상영회

7월 2일(화)-9월 10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8:00(8/6일 상영없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명작의 감동을 즐길 수 있는 영화의전당 한여름밤의 야외상영회.

- 7/30(화) 브로드웨이를 쏘라(감독/우디 앨런)
- 8/13(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주걸륜)
- 8/20(화) 메종 드 히미코(감독/이누도 잇신)
- 8/27(화) 청설(감독/청편편)
- 9/3(화) 프랑스 여인(감독/레지스 와그니어)
- 9/10(화) 중경삼림(감독/왕가위)

2013 Summer Movie Night

8월 7일(수)-23일(금) 매주 수-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화의전당(780-6000)

꿈과 사랑, 우정이 가득한 디즈니 영화들과 스타워즈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상영회.

Concert

2013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8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벙스코**
입장료 | VIP 12만 1천원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 A석 7만 7천원
문의 |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버블진트 & 요조가 들려주는 사랑이야기 잘 지내니?

8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Event

미술체험전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미술공장'

7월 12일(금)-9월 1일(일)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입장료 | 체험료 2만원
문의 | 초록공간(1577-4868)

2013 세계약기여름페스티벌

8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용두산공원 특설무대**
문의 | 세계민속약기박물관(245-5025)

존 버거맨 그래피티 라이브 쇼

8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

2013 상주단체 페스티벌 한 여름밤의 꿈

8월 16일(금)-22일(목)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놀이마당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한여름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야외 공연 '한 여름밤의 꿈'.

▶ 16일 동해누리 '별주부와 토선생'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국악 한마당.

▶ 17일 뉴프라임오케스트라 금관6중주 연주회

전상균(트럼펫), 김성훈(트럼펫), 김영민(호른), 전해상(트럼본), 조용운(드럼), 김기울(튜바)로 구성된 뉴프라임오케스트라 금관6중주의 무대.

▶ 18일 극단 에저또 '붕어빵'

서로에 대한 표현이 서툴러 엇갈리기만 하는 아빠와 딸의 행복찾기 극단 에저또 창작극 '붕어빵'.

▶ 19일 드림문화예술 오페라 '사랑의 묘약'

순박한 시골청년 네모리노와 아름다운 아가씨 아디나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 20일 무용단 레드스텝 '향기가 있는 우리춤'

2011년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한 무용단 레드스텝이 선보이는 우리 전통춤 한마당.

▶ 21일 부산가야금연주단, 김혜경 무용단 공연

부산가야금연주단과 김혜경무용단이 펼치는 가야금과 민속춤의 만남.

▶ 22일 극단 맥 '해운이네 경사났네'

형제가 없어 집에 가면 늘 혼자 놀아야 하는 주인공 해운이의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 '해운이네 경사났네'.

제7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음악회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제1회 동호 김종근 시인 문학상 수여
제3차 독도사랑 詩낭송대회 및 우수작품시상식
8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詩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867-2569)



제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산바다를 웃음바다로

8월 29일(목)-9월 1일(일) 영화의전당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916-8828, www.bicf.kr)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2013 제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8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코미디언들이 참석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초청공연, 신인 코미디언 양성을 위한 신인 코미디언 경연대회, 거리공연, 포럼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테마가 있는 음악강좌
-황금의 트럼펫, 델 모나코를 위하여

8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거대한 성량, 강력한 고음, 빛나는 음색의 20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를 추억해보는 무지크바움 테마가 있는 음악강좌.

· 진행/김창욱(부산시민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음악평론가)

Gallery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체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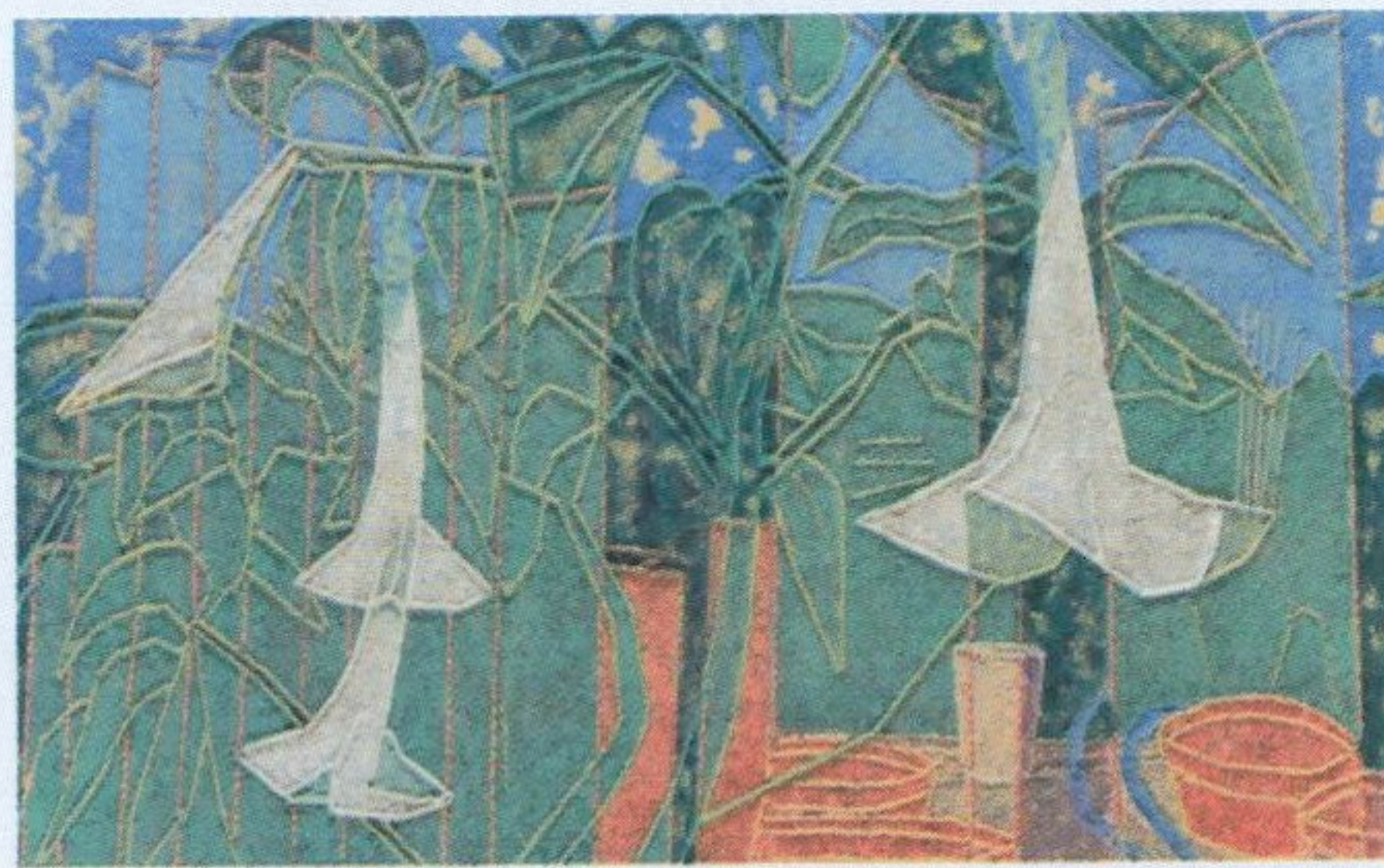
6월 4일(화)-9월 29일(일)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시관
입장료 | 일반 4천원 · 어린이, 청소년 2천원
문의 | 국립해양박물관(309-1900)

영화의전당에서 떠나는 세계기차여행

6월 29일(토)-9월 8일(일) 영화의전당
입장료 | 균일 1만 2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780-6014)

김남진 작품전 '황홀경'

7월 17일(수)-8월 19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전관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ART Plage 2013_한여름 밤의 꿈展

7월 17일(수)-8월 1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

심점환 작품전 '사유의 숲'

7월 19일(금)-8월 5일(월) 미광화랑
문의 | 미광화랑(758-2247)

제39회 부산미술대전

7월 19일(금)-8월 1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靑사진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이문호展 'INDEX'

7월 19일(금)-9월 9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YAMAHA·KAWAI·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여름방학 특별체험전 '모래랑 빛이랑'

7월 26일(금)-9월 15일(일)
부산시민회관 한솔갤러리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Tablewear 제안전 -석승현, 이주은, 신희창

8월 1일(목)-8월 31일(토)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747-2612)

한국의 멋 '부채'와 나라꽃 '무궁화'작품전

8월 1일(목)-8월 31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양소연, 최단미 '일상적 노래하기'

8월 4일(일)-8월 11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Color & Wave

8월 5일(월)-8월 31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색채와 다양한 기호, 형태들이 다채롭게 변주되어 나타나는 독창적인 표현을 시도하고 있는 젊은 작가 박봉래, 김민주, 박미소, 박재영의 작품 전시.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 '정정희, 장날 반추'展

8월 10일(토)-10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제5회 KT&G 상상마당 한국 사진가 지원프로그램 선정 작가전 사진 미래색 2013-박홍순, 이동근, 한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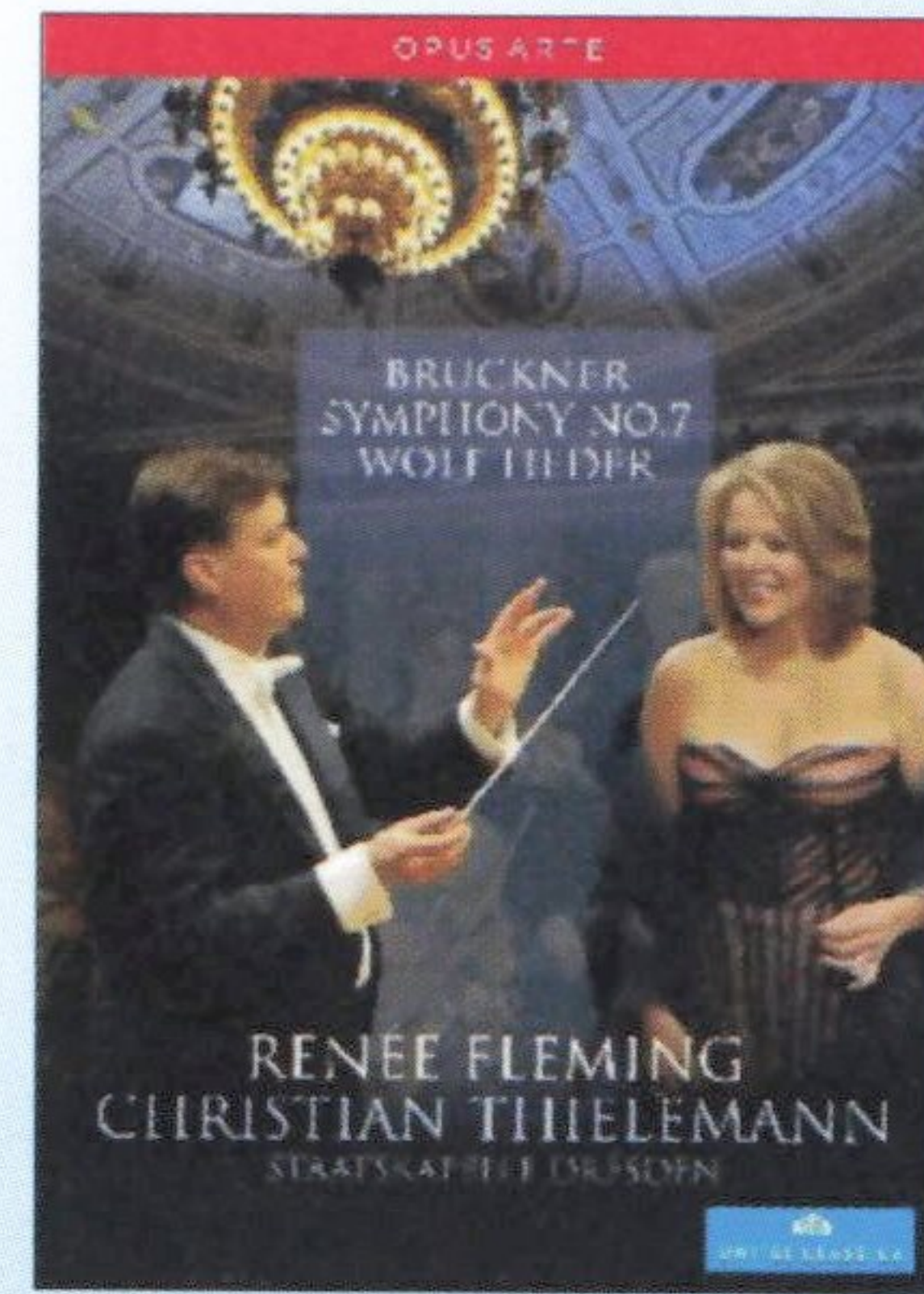
8월 10일(토)-10월 30일(수)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744-3924)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볼프 5개의 가곡, R.슈트라우스 Befreit

르네 플레밍(sop)/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실황

독일의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의 역사는 16세기 중반 작센 선제후의 궁전 오케스트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계승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이들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영상물은 2012년 9월 1일 드레스덴 젬퍼오퍼에서 있었던 그의 취임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한 해 앞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틸레만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정상급 디바 르네 플레밍이 이번에도 메인 게스트로 참여하였다. 잘츠부르크에서 R 슈트라우스의 가곡들을 들려주었던 플레밍과 틸레만은 후기 낭만시대 독일 리트의 또 다른 큰 별인 후고 볼프의 매력적인 가곡들로 콘서트의 전반부를 수놓았다. '그것은 그', '미봉', '요정의 노래', '아나크레온의 무덤', '은거' 등의 볼프의 대표가곡들이 부드러운 크림과도 같은 플레밍 특유의 음성으로 만날 수 있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이다. 틸레만 특유의 장중한 스케일과 온기와 중량감을 겸비한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의 사운드는 이 거작의 위력을 당당하게 증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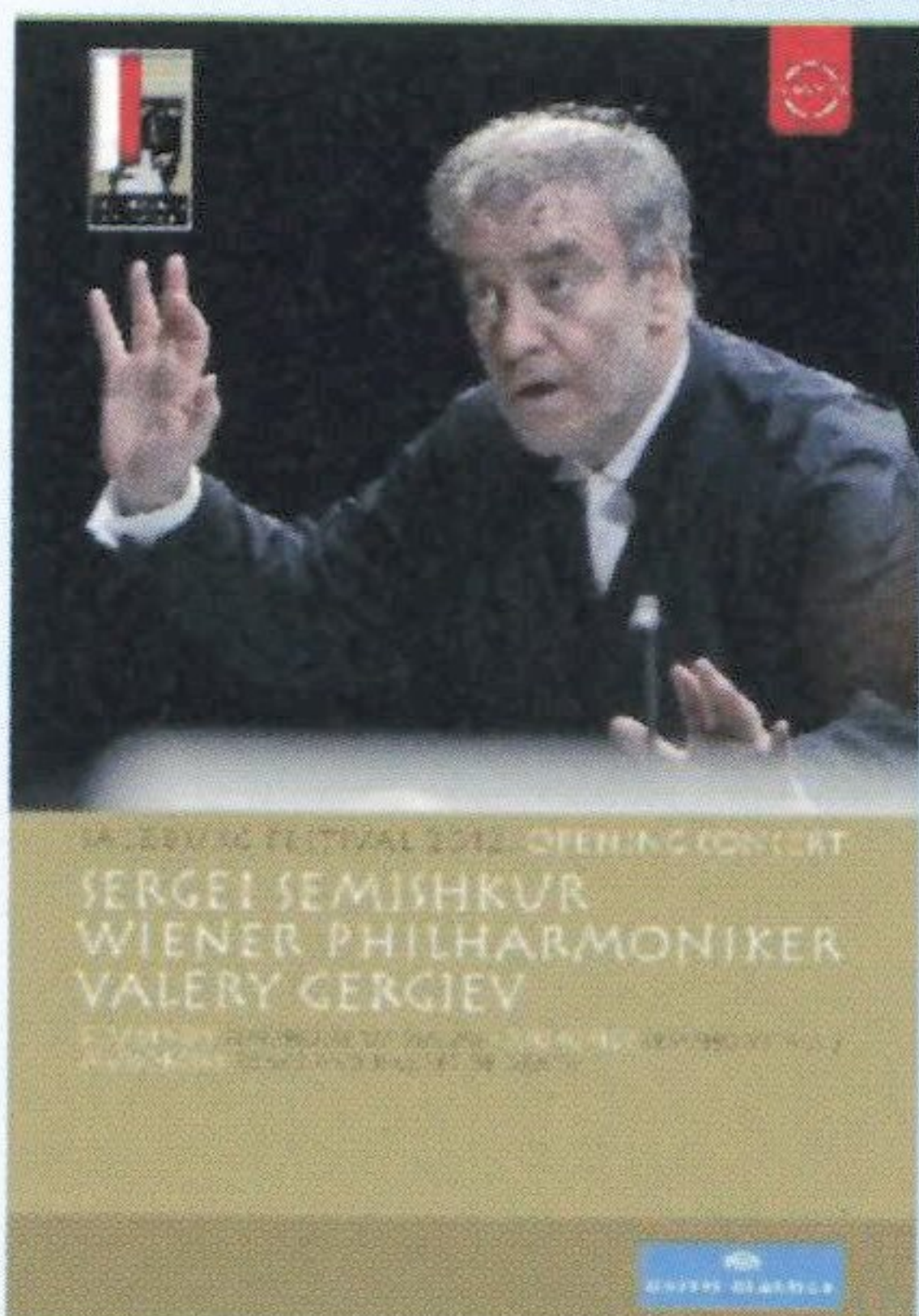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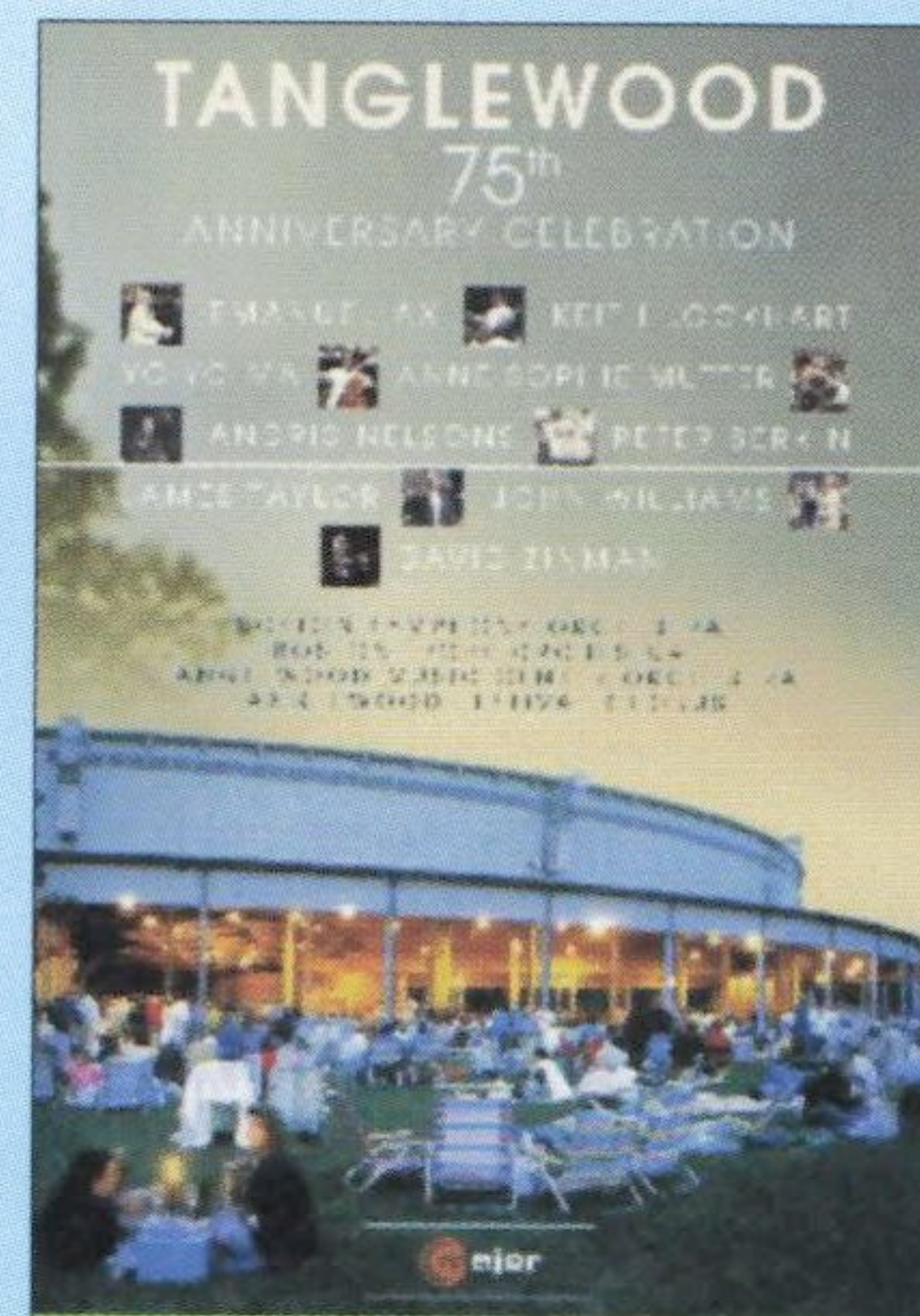
탱글우드 페스티벌 75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베토벤 합창환상곡, 라벨 라 발스, 사라사테 카르멘환상곡 외

안네-조피 무터(vn)/요요마(vc)/ 페터 제르킨, 엠마누엘 액스(pf)/데이비드 진만, 안드리스 넬손스, 존 윌리엄스, 키스 로카르트(지휘)/보스턴 심포니, 보스턴 팝스 외

▶ 탱글우드 페스티벌의 75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별들의 축제 한 마당

1937년에 처음 시작된 탱글우드 페스티벌은 신대륙 최고의 여름 음악축제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2년 탱글우드 페스티벌의 75주년을 기념하여 이 음악축제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려한 갈라 콘서트를 펼쳤다. 키스 로카르트가 이끄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는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와 번스타인의 'On the Town'으로 콘서트의 서막을 장식하였다.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보스턴 팝스의 객관지휘자인 존 윌리엄스는 70년대를 풍미했던 싱어 송 라이터 제임스 테일러와 함께 'Over the Rainbow', 'Shall We Dance' 등을 들려준다. 엠마누엘 액스와 요요마는 하이든의 피아노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를 각각 연주하였고, 안네-조피 무터는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으로 이 축제에 동참하였다. 보스턴 심포니는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안드리스 넬손스와 함께 라벨의 '라 발스'를 연주하였고, 데이비드 진만의 지휘 아래 베토벤의 '합창환상곡' (피아노-페터 제르킨)으로 이 갈라 콘서트의 대단원을 성대하게 장식하였다.



201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오프닝 콘서트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5번, 스트라빈스키 시편교향곡, 무소르그스키 죽음의 노래와 춤

세르게이 세미슈쿠르(te)/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빈 필하모니커

▶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빈 필이 함께 만들어내는 러시아 관현악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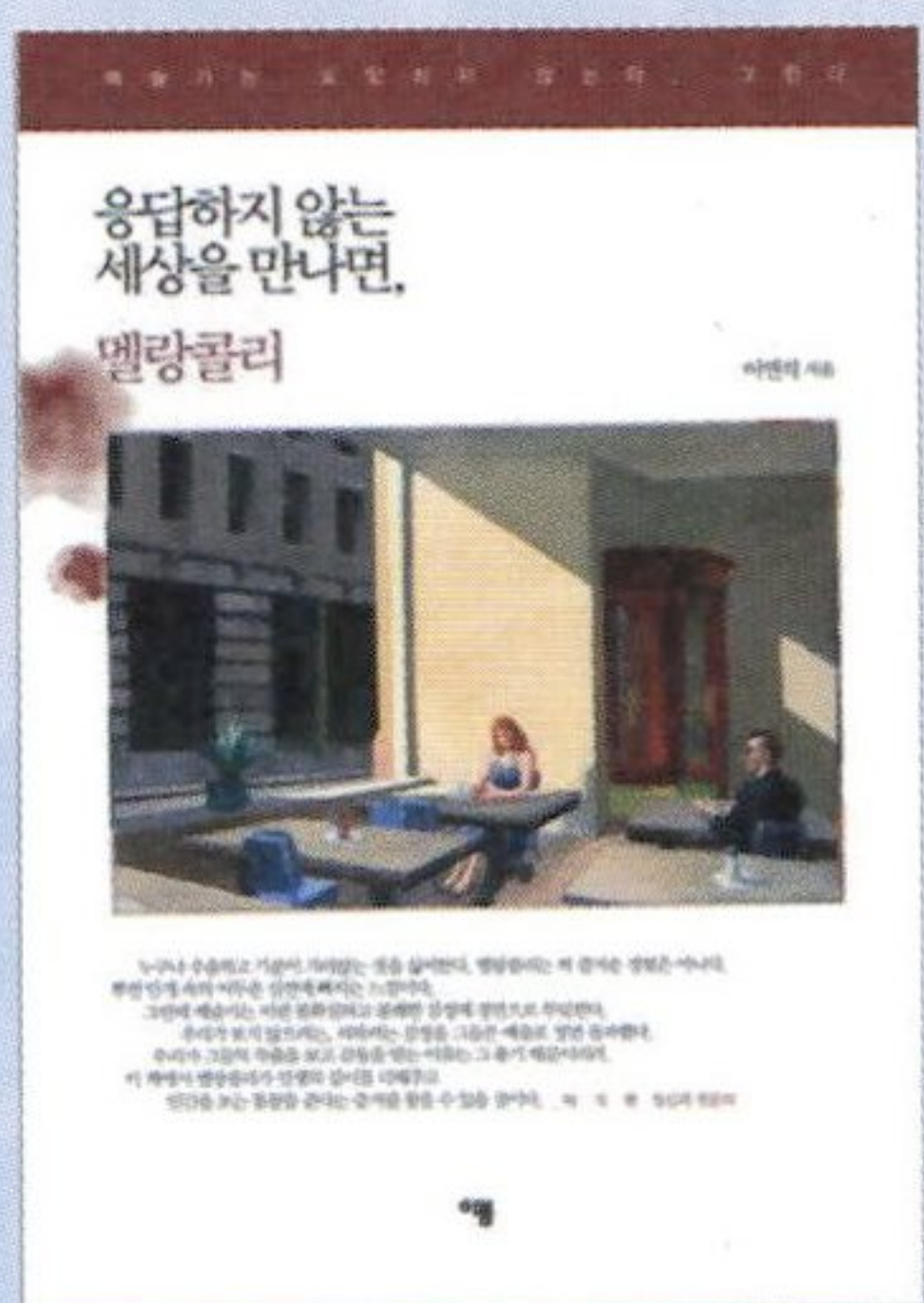
모차르트와 카라얀의 교향에서 매년 여름마다 펼쳐지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음악축제이다. 2012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오프닝 콘서트로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현악반주의 대편성합창곡이 오프닝 콘서트의 프로그램에 계속 포함되었는데, 2012년에도 역시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스트라빈스키의 걸작인 시편교향곡이 연주되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서법으로 삶과 죽음을 통렬하게 표현했던 무소르그스키의 연가곡 '죽음의 춤과 노래'는 현존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라스카토프가 관현악반주를 다시하고 간주곡들을 추가로 덧붙인 새로운 버전으로 수록되었다. 러시아의 신에 테너 세르게이 세미슈쿠르는 놀라운 표현력으로 이 작품의 음울한 정서를 충실히 연출해내었다. 콘서트의 대미는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1월에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과 더불어 전쟁교향곡의 양대 기둥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장인 44

서주희 지음 / 한국방송출판 / 323p / 1만 5천 원

장인(匠人), 우리 전통문화와 예술, 공예 등의 분야에 평생을 바쳐 그 가치를 오늘날에도 빛내어 주는 사람들을 이룰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문화캐스터 서주희 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4인의 장인을 만났다. 방송에서 캐스터(caster)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캐스터는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방송인을 말한다. 저자 서주희 씨가 만난 사람들은 승례문 복원에 앞장선 대목장 신응수를 비롯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전통을 지켜온 장인들이다. 그들을 직접 만나 전통의 아름다움과 뜨겁고 열정적인 삶의 자취를 생생한 사진 자료와 함께 소개하는 책이다. 1부 '몹시를 입히다'에서는 전통의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재현한 장인들을, 2부 '맛과 향을 지키다'에서는 전통의 맛을 지켜가는 이들을, 3부 '자연의 숨결을 품다'에서는 목공예에 잇는 장인들을, 4부 '삶에 예술혼을 심다'에서는 칠기와 도자기 등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을 소개한다. 5부 '承-미래를 잇는 사람들'에서는 민족의 소리를 재현하는 악기장과 문화재 복원가 등 전통의 맥을 잇는 이들을, 6부 '장인의 18번'에서는 장인들의 삶의 애환과 감동을 그들의 애창곡과 함께 실었다.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면, 멜랑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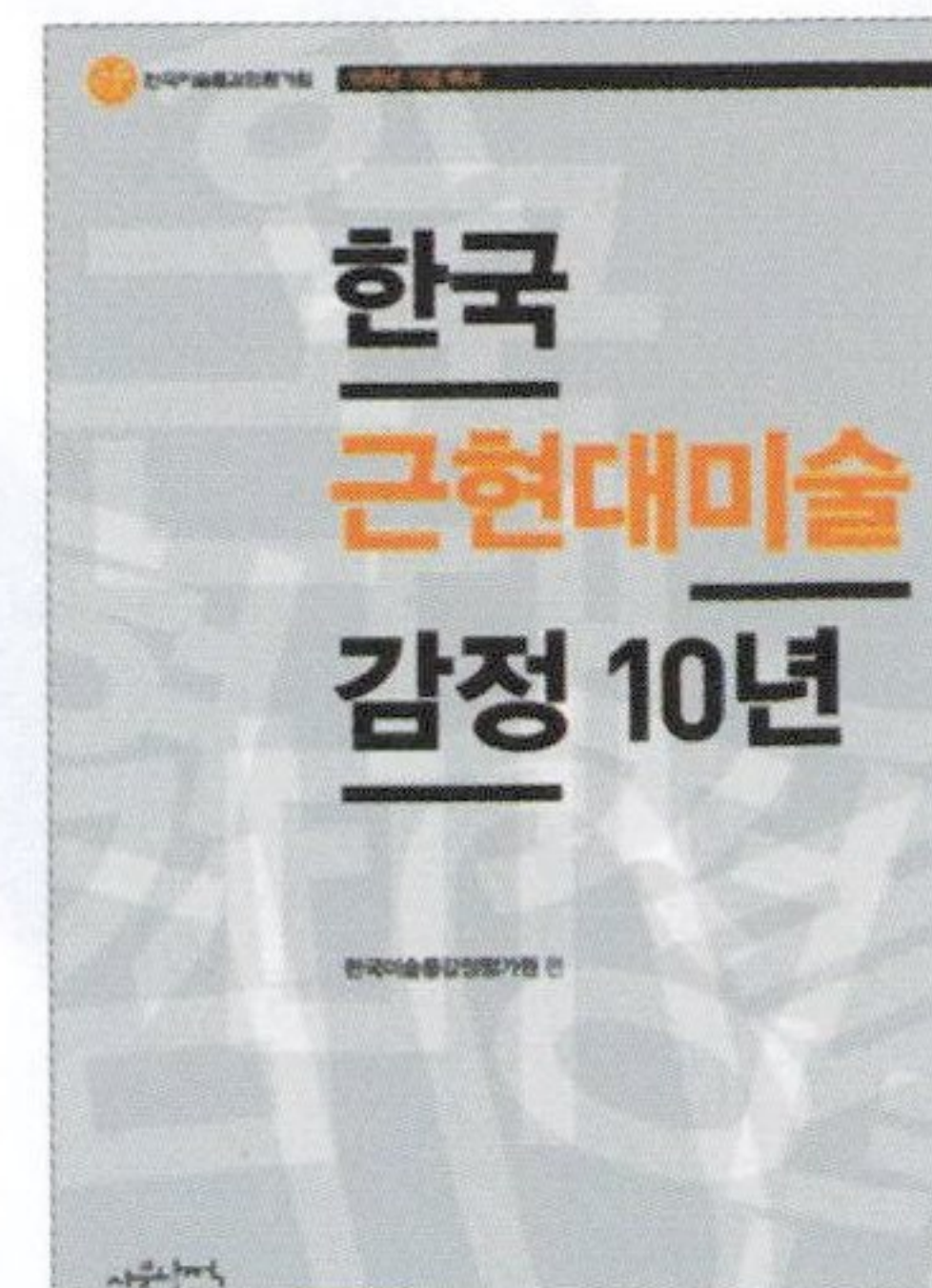
이연식 지음 / 이봄 / 272p / 1만 5천 원

멜랑콜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일종으로 우울 또는 비애'를 말한다. 하지만 멜랑콜리를 단지 '우울한 감정'만으로 볼 수는 없다. 멜랑콜리는 한때 낭만주의의 해석에 따라 창조성의 원천으로 불렸고,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울병' 등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문화이론가 수전 손택은, 멜랑콜리에서 매력을 뺀 것이 우울증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다시 말해 우울에 매력이 더해져야 비로소 '멜랑콜리'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려 하지만, 예술가들은 멜랑콜리라는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특별히 일곱 명의 화가에 집중했다. 일곱 화가의 화폭 속에는 명확하게 우울해 보이는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저자는 멜랑콜리가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수성임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 그의 완벽주의 때문인지 미완성품이 많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괴롭힌 고민의 흔적인 드로잉 작품에는 그의 멜랑콜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멜랑콜리와 대면했던 7명 예술가들의 세계를 소개한 책.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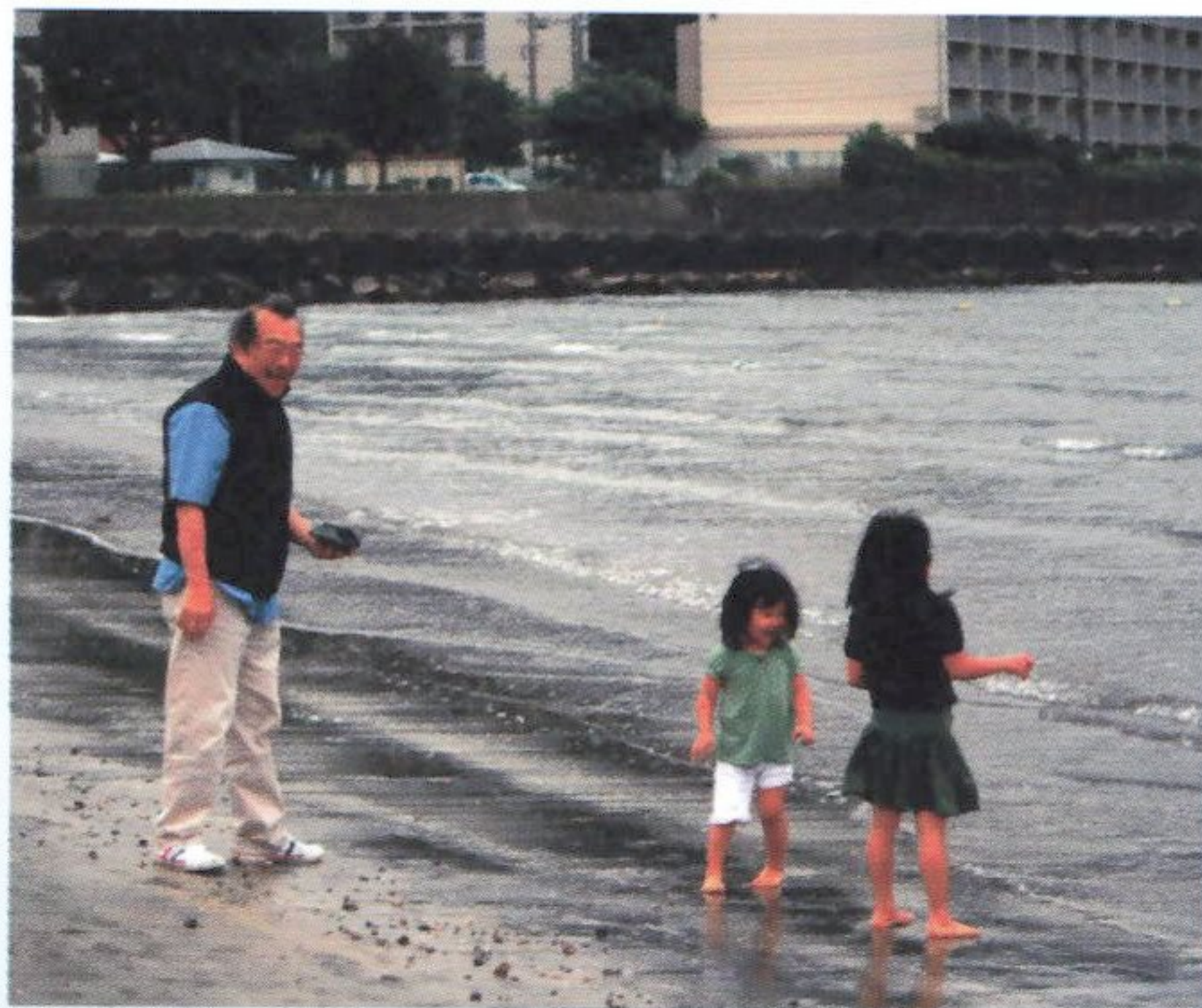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지음 / 사문난적 / 312p / 1만 5천 원

2013년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미술품 감정 평가를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미술품 감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뜻있는 미술계 인사들이 2002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를 설립한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미술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미술품감정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일은 역시 작품 진위의 논란이다. 가짜를 진작으로 탈바꿈시켜서 일어나는 사태와, 반대로 진작을 위작으로 잘못 판단해서 일어나는 사태가 있다. 2005년에 일어난 이중섭 위작 사건은 위작을 진작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었고, 2008년에 일어난 박수근 위작 시비는 진작을 위작으로 보려는 데서 일어난 것이었다. 위작을 진작으로 잘못 판단한 것과 진작을 위작으로 잘못 진단한 데서 이 두 사건은 정반대의 경우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주요 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10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과제를 제시했다.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열 개의 토픽을 나눠 살펴보았으며,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작 논란과 아카이브 현황, 감정과 관련된 그 외 에피소드들도 다양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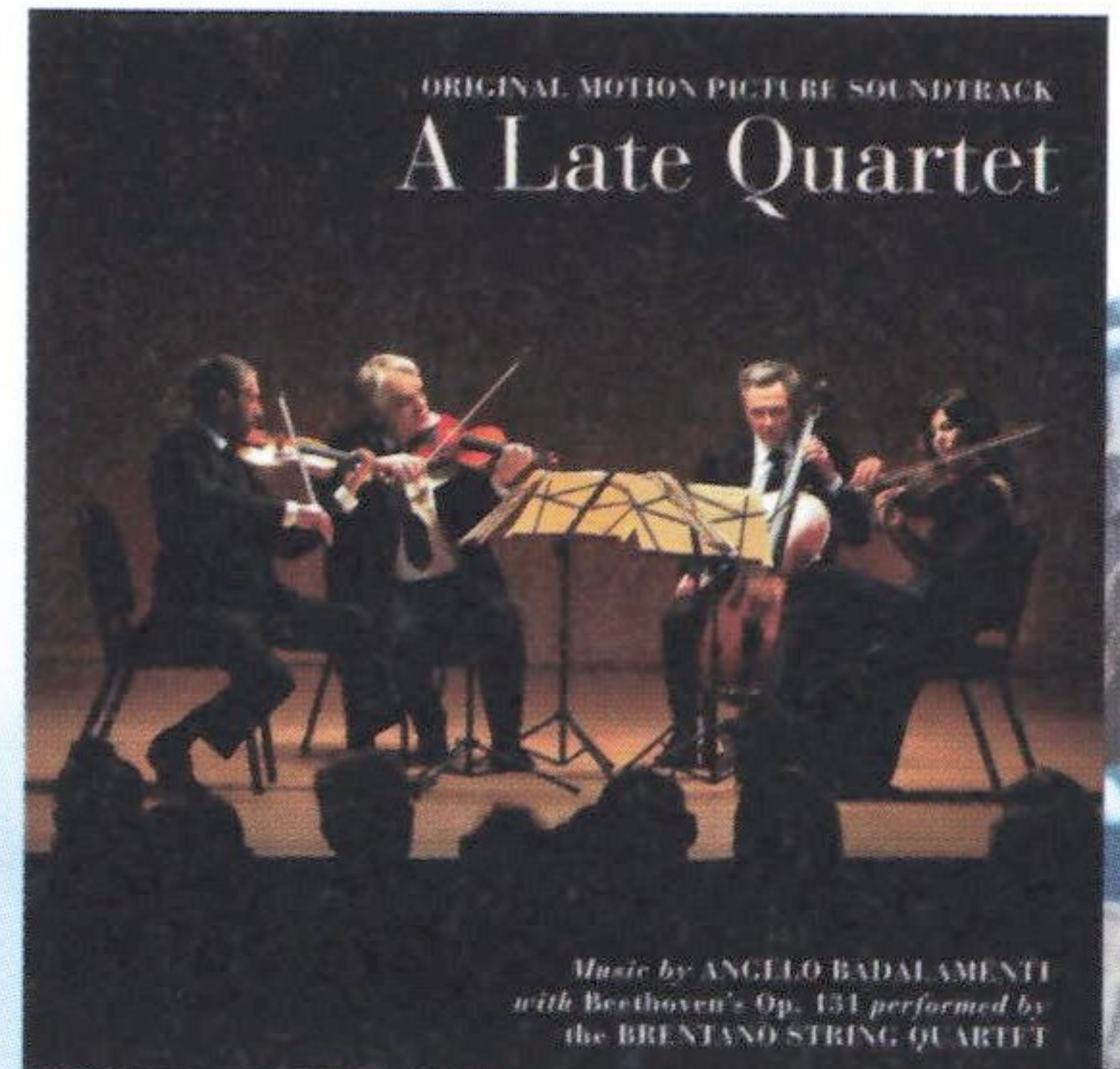




그랑 블루



엔딩노트



마지막 4중주

Dureraum Summer 2013 -영화, 세상을 유목하다

7월 30일(화)-8월 25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지중해의 빛나는 쪽빛 바다, 곤돌라가 떠다니는 물의 도시 베니스, 반짝이는 에펠탑과 센강이 흐르는 낭만의 도시 파리... 이런 곳이라면 당장이라도 훌훌 털고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는 영화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다. 바로 8월 25일까지 열리는 'Dureraum Summer 2013-영화, 세상을 유목하다'. 베니스, 그리스 등 눈부신 지중해 바다를 품은 영화에서부터 파리, 리스본, 부다페스트, 밀라노 등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남태평양의 작은 섬과 아마존 정글, 아이슬란드의 초원 등 세상의 변방을 담은 영화,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의 여름휴가까지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세계 곳곳을 누빈 다채로운 여정을 담은 특별한 영화들을 소개한다. 상영작은 ▶지중해의 기억-태양은 가득히, 베니스에서의 죽음, 그랑 블루, 지중해, 일 포스티노, 맘미아, ▶도시의 연가-낙원의 곤경, 현기증, 폰네프의 연인들, 리스본 스토리, 글루미 선데이, 월요일 아침, 제노바, 아이 엠 러브, 미드나잇 인 파리, ▶세상 끝에서-터부, 허리케인, 에메랄드 포리스트, 모스키토 코스트, 자연의 아이들, ▶휴가의 추억-윌로 씨의 휴가, 동동의 여름방학, 녹색광선, 마르셀의 여름, 마르셀의 추억 등 모두 25편이다.

영화의전당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정기상영회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소극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자막과 사운드로 추가 변환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화, 바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제는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위한 유명 배우 및 감독들의 재능 기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을 만큼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영화인들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친절하고 실감나게 영화를 소개하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영화적 체험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배급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영화의전당에서는 부산지역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상영회를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개최한다. 8월 26일에는 마미 스나다 감독의 '엔딩노트', 9월 16일에는 이한 감독의 '완득이', 11월 25일에는 장영치 감독의 '터치 오브 라이트', 12월 23일에는 주창민 감독의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상영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10월에는 상영회가 열리지 않는다. 특히 상영회에서는 시각 장애인과 약시력자들을 위한 리플렛을 제공한다.

한 여름에 즐기는 명품 걸작 마지막 4중주

8월 상영, 국도예술관

결성 25주년 기념 공연을 앞둔 세계적인 현악4중주단 '푸가'. 그들 내에서 음악적,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하던 첼리스트 피터가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네 명의 단원들은 25년간 숨기고 억눌러온 감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삶과 음악에 있어서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편, 본인의 병으로 인해 '푸가' 4중주단이 위태로워질 것을 깊이 염려하던 피터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베토벤 현악4중주 14번을 연주할 것을 제안하는데... '베토벤 현악4중주 14번'은 베토벤이 자신의 곡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작품으로 유명하다. 보통 4악장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의 형식을 벗어나 7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7개의 악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주자들은 40여분의 곡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연주한다. 영화 '마지막 4중주'는 한 발 한 발 씩없이 나아가야 하는 인생을 '베토벤 현악4중주 14번'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크리스토퍼 월켄,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 캐서린 키너, 마크 아이반니 등 개성 뚜렷한 4명의 연기파 배우들이 보여주는 관록의 연기와 세계적인 현악4중주단인 브렌타노 현악4중주단의 '베토벤 현악4중주 14번' 연주는 최고의 앙상블을 선사하며 영화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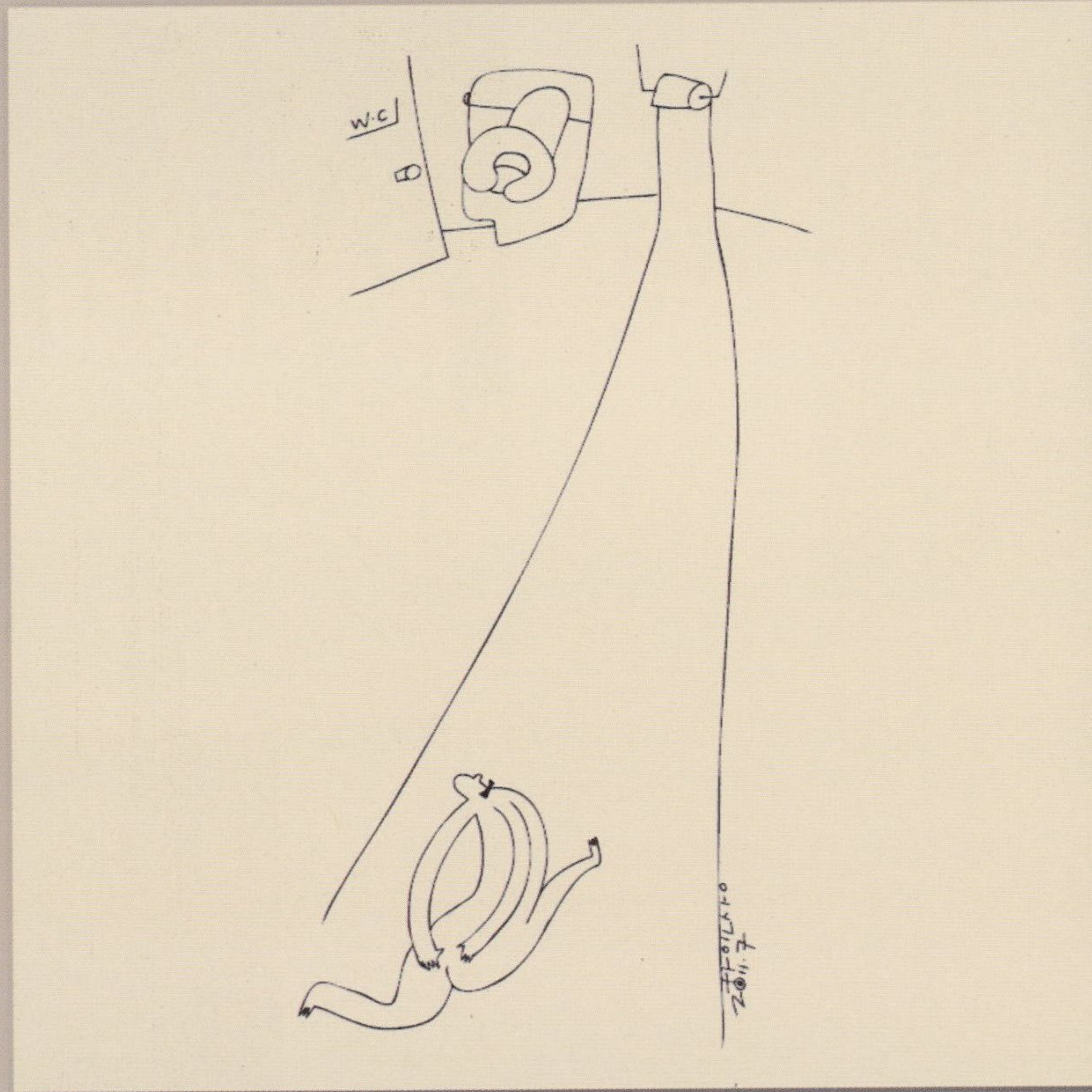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또 다른 레드카펫

살다보면 급해도 너무 급한 때가 많다. 그렇다고 서두르다보면 일을
그르칠 경우가 허다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게으른 우보(牛步)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제26회 부산합창제 참가 단체 모집

부산합창음악의 발전과 합창음악의 교류를 통해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월 개최되는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을 모집한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행사명	모집부문	비고
제26회 부산합창제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합창단 (혼성, 남성, 여성)	신청서 및 악보제출

2. 행사일

2013년 10월 23일(수)~2013년 10월 25일(금) 19시 30분

3.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 ▣ 참가신청 접수 : 2013년 8월 5일(월)~9월 6일(금)
- ▣ 참가단체 심의 : 2013년 9월 11일(수)
- ▣ 참가단체 통보 : 2013년 9월 13일(금)
(개별통지 및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기 간 : 2013년 8월 5일(월)~2013년 9월 6일(금)(토, 일 제외)
- ▣ 접 수 처 : 부산시립합창단 사무실(607-3141~4)
-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합창단 프로필 사진, 연혁(8줄 기준), 지휘자 및 반주자, 단장 사진 제출, 악보 제출.
※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합창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jpg 파일로 dongjoooh@naver.com으로 전송)



8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바다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8월,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활동도 활발하다. 8월에는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소외계층을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마련하는 나눔공연 '환우를 위한 희망 콘서트'를 시작으로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내사랑 부산공연 등이 펼쳐진다.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8월 2일(금)	15:00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소년소녀합창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환우를 위한 희망 콘서트'
8월 9일(금)	15:00	사상도서관 시청각실	국악관현악단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사상도서관 어린이 음악회'
8월 10일(토)	19:05	국립해양박물관 야외무대	교향악단	내사랑 부산 공연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
8월 15일(목)	10:30	시민회관 대극장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내사랑 부산 공연 '8·15 광복절 기념행사'
8월 20일(화)	16:00	재송어린이도서관	교향악단 금관 5중주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한여름의 클래식콘서트'

제7기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제7기 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운영기간 2013. 9. 4 ~ 11. 6 / 기간 중 총8회 실시
- » 시 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 » 장 소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 » 모집인원 100명(일반인)
- » 신청기간 2013. 8.19 (월) ~ 8.30 (금)
- »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공연과) 방문접수 or 팩스(607-6049) 접수

-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3. 9. 2(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하며, 접수명단은 매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 수 강 료 30,000원(교재비 포함) 정기회원 10%할인
-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5, 6057 문화대학 담당자
- » 강좌일정

 <p>1주 (9월4일)</p> <p>김완준 계명대 교수 왜! 오페라 하우스인가?</p>	 <p>2주 (9월11일)</p> <p>김유섬 창원대 교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中 비올레타의 사랑과 인생</p>	 <p>3주 (9월25일)</p> <p>이소영 솔 오페라단 단장 세계 오페라극장과 오페라 제작과정</p>	 <p>4주 (10월2일)</p> <p>이동신 부산시향 부지위자 오페라의 역사</p>
 <p>5주 (10월16일)</p> <p>김의준 국립오페라단 단장 국립오페라단 운영을 중심으로 한 오페라이야기</p>	 <p>6주 (10월23일)</p> <p>이용숙 오페라 해설가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감상법</p>	 <p>7주 (10월30일)</p> <p>김홍승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 오페라의 발전 방향</p>	 <p>8주 (11월6일)</p> <p>김덕기 서울대 교수 탄생200주년 베르디&바그너</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애잔한 선율과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 연주로
우리를 유혹하는 뉴에이지의 거장



2013. 10. 29(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Into the Variations

백혜선 피아노리사이틀

HAESUN PAIK PIANO RECITAL

“백혜선은 투박한 음악을 승화시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한다.
즉 이성과 감성, 두뇌와 가슴을 둘 다 실제로 만족시켜주는
드문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이다.” (뮤지컬 아메리카)



PROGRAM

하이든/변주곡 f 단조
J. Haydn / Variations in f minor, Hob. 17-6

베토벤/에로리카 변주곡
L.v. Beethoven / 15 Variations with Fugue in E flat Major, Op. 35 "Eroica"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S. Rachmaninoff /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F. Liszt / Venezia e Napoli

2013. 10. 31. THU.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티켓 R 50,000 S 40,000 A 30,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10%할인됩니다)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링크 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arts.com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 유리 시모노프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승자 -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2013. 11. 5(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 유리 시모노프(Yuri Simonov)
| 협연 : 안드레이 가브릴로프(Andrei Gavrilov) _Piano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13. 11. 29(금) ~ 30(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 부산문화회관

지난호정답

악	기	가	족	이	야	기	파	두
어			보		구		바	
의	상	대		좁	실	크	로	드
눈			오	비	이	락	티	
물	랭	루	즈		원	삼		
			의		무	국	러	
엘	비	라	마	디	간	유	투	브
렉			법		도	지	사	스
트			사		리	게	토	
라	퐁	젤		태	백	산	맥	리

7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부경(서구 서대신동3가)
초대권 김은미(부산진구 개금동)
 이성섭(부산진구 개금동)
 이지명(수영구 민락동)
 최지현(양산시 북부동)

조은극장 강승현(사하구 당리동)
초대권 김미연(서구 토성동)
 이규형(금정구 명장동)
 장은정(연제구 거제3동)
 최철호(사하구 하단동)

큰집 권민(동래구 온천3동)
식사권 서희영(동구 범일2동)
 송영숙(사상구 엄궁동)
 이창수(사하구 옥천로)
 최민기(남구 대연동)

도서 김윤정(동구 좌천동)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면, 멜랑콜리 남선경(남구 대연4동)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윤여경(부산진구 전포동)
 한수정(남구 대연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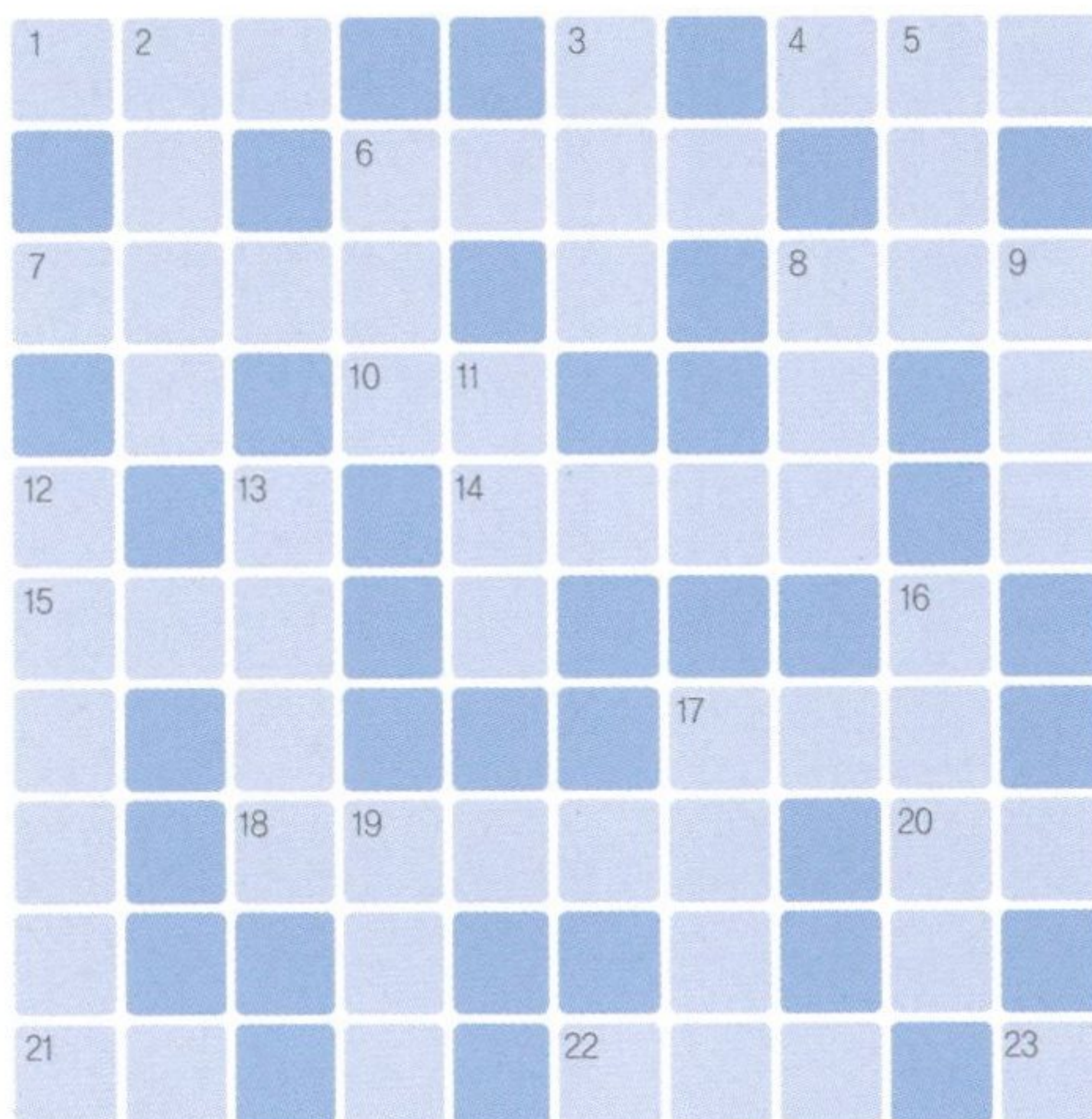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면, 멜랑콜리



[가로열쇠]

-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특유의 재치와 해박한 해설로 클래식음악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래식은 내친구'의 지휘자.
- 조선시대의 화가. 어린 시절 강세황의 지도를 받아 그림을 그렸고, 그의 추천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어 정조의 신임 속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았다. 모든 장르에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호는 단원(檀園).
-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 영화에서는 종종 영화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지칭한다.
- 북대서양 북동부에 위치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섬국가로 외부로부터의 잦은 침입을 막아내고 192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수도는 더블린.
-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배경이 되었던,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
- 현대 프랑스 음악의 거장. 대표작으로 교향시 '스페인 랩소디', 무곡 '볼레로', 발레곡 '라 발스' 등이 있다.

[세로열쇠]

-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진중(陣中)에서 쓴 일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전쟁이 끝난 1598년까지의 일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록했으며 현재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다. 국보 제76호.
- KBS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소재로 한 임권택 감독의 1985년 연출작, 제3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본선 진출, 제22회 시카고 영화제에서 게츠세계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 조선 명종 때의 임궽정, 숙종 때의 장길산과 더불어 '조선 시대 3대 도적'으로 꼽히는 인물.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 크레타의 왕 미노스와 파시파에의 딸이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두 번째 아내. 의붓아들인 히폴리토스를 사랑한 비극적 주인공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복플렉스'의 유래가 되기도 했다.
- 영국의 시인, 소설가인 J.R.키플링의 아동문학. 정글에서 늑대에게 키워진 소년 모글리가 정글을 떠날 때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 미국 하와이 제도(諸島)의 오아후(Oahu) 섬에 있는 만. 일본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맥주회사 기네스가 세계 최고기록만을 모아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기록집.
- 1964년 개통된 일본 신칸센에 이어 지난 198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프랑스의 고속전철.
-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솟덩이.
- 강철봉을 정삼각형으로 구부려 한쪽 끝을 실로 매달고 같은 재료의 막대로 두드리는 타악기. 소리가 매우 맑고 높다.
- 8년 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행하는 등 평생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하였으며 돈오사상(頓悟思想)과 중도사상(中道思想)을 설파한 고승으로 1993년 11월 4일 열반하였다.
- 배구에서, 공격수가 공격하기 쉽도록 공을 가볍게 띄우는 일.
- 트랜스젠더 록 가수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그린 록뮤지컬. 국내에서는 2005년 4월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올러진 후 현재까지도 계속 공연되고 있으며 조승우를 비롯해 오만석, 엄기준, 송창의, 조정석, 윤도현, 박건형 등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갔다.
- 무게의 단위. 귀금속이나 한약재 등의 무게를 잴 때 사용되며 한 〇은 한 냥의 10분의 1, 한 푼의 열 배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다.

- 서유럽 북해에 면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 수도는 브뤼셀.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로, 1839년 런던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받았으며, 1948년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네룩스(Benelux)를 결성하기도 했다.
-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을 원작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4년간 감옥에 갇혀지내다 적극적으로 탈옥한 주인공 단테스의 복수극을 그린 뮤지컬. 8월 10일과 1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 오스트리아의 초기 독일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로 '가곡의 왕'으로 불린다. 주요작품으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 '겨울 나그네' 등이 있다.
-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을 일컫는 사자성어.
- 영국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중남부를 차지하는 지방.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와 공업 지대가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 혁명이 처음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 이슬람교에서, 단식과 재계(齋戒)를 하는 달.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 흡연, 음주, 성행위 등을 금한다.



지휘 이와사키 요우이치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수석지휘자)

일본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초청 합동음악회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프로그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세계명가곡모음 - 호두까기인형 중 행진곡, 캔터키옛집, 송어, 흙 송 메들리, 라우다페 도미눔(solo Sop. 김민지)
- 베이스 박기현, 반주 김주연 - 보리밭, Come dal ciel precipita(하늘에서 어둠이 내려오고), Madama(카탈로그의 노래)
-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 さくらさくら(사쿠라 사쿠라), ほたるこい(반딧불 코이), 水平線, つきよ, 二月の雪
- 키타큐슈소년소녀합창단 - Laudate pueri, 彼方の光, 生命の奇跡, Journey to the Past, ポリタジャツ(보리타작), ポリバッツ(보리밭)
- 소프라노 김민지, 반주 이승윤 - Chi il bel sogno di Doretta(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Casta Diva(정결한 여신이여)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박지훈의 2편의 꽃노래(도라지꽃, 진달래꽃), 한국민요축전(한강수 타령, 아리랑, 경북궁타령)
- 연합합창 - 고향 - 지휘/이와사키 요우이치,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 - 지휘/전상철 수석지휘자



지휘 미야자키 키요코



Sop. 김민지



Bass. 박기현



반주 이영옥



반주 미야자키유키코



반주 이승윤



반주 김주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3. 8. 17(토) 17:00
 입장료 균일 1,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051) 607-3161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예매처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August 2013 Program Guid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p>4</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Magic Competition-Stage & Close-up' 13:00, 'Night Gala Show' 19:3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Special Winner Show 15:00 'Ryo & Kim U, Jung-kuk's Special Show' 17:0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Noted Magician Lecture 10:00, Noted Magician Close-up 17:00 BIMF(626-7002)</p>	<p>5</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Magic Competition-Stage & Close-up' 13:00, 'Night Gala Show' 19:3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Haruo Shimada's Special Talk Show 15:0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Master Feedback 10:00, Magic Radio Show 11:00, Noted Magician Close-up 17:00 BIMF(626-7002)</p>	<p>6</p>	<p>7</p>
<p>11</p>	<p>12</p>	<p>13</p> <p>📍 The 11st Regular Concert of Accord Youth Orchestra 19:30 Invitation/Accord Youth Orchestra(010-8266-3298)</p>	<p>14</p> <p>📍 The Special Project Orchestra 'Classic is My' 16:00 10,000 /BPO(607-3131)</p> <p>📍 The Special Performance Company '2013 The Mid' 5,000/B.M.D.C(607-3131)</p>
<p>18</p>	<p>19</p>	<p>20</p> <p>📍 The 3rd Regular Concert of YMD Wind Orchestra 19:30 Invitation/YMD wind Orchestra(010-3496-4445)</p>	<p>21</p> <p>📍 Puellarum Pragensium 70,000/50,000/30,000/20,000</p>
<p>25</p> <p>📍 Pediatric Concert to Help Children 19:00 30,000/20,000/Art & Future(010-4569-4500)</p> <p>📍 WINE'Z Summer Tasting Music Concert 19:00 10,000/Kim Gitae(010-2328-9639)</p>	<p>26</p>	<p>27</p> <p>📍 The 3 Cities and Provinces Concert for Relationship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Free/B.M.C(607-3141-2)</p> <p>📍 The 6th Regular Concert of Busan Arts Academy 19:30 5,000/3,000/Busan Arts Academy(010-2565-9780)</p>	<p>28</p> <p>📍 The 18th Regular Concert of Busan Symphony Orchestra 19:30 Free/Kosin Medical University(4848-9602)</p>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Magic Competition-Stage & Close-up' 13:0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Noted Magician Lecture 10:0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Magic Competition-Stage & Close-up' 13:00, 'Night Gala Show' 19:3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Yu Hojin's Special Show' 15:00, 'Ryo & Kim U, Jung-kuk's Special Show' 17:00 BIMF(626-7002)</p> <p>●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Noted Magician Lecture 10:00, Noted Magician Close-up 17:00 BIMF(626-7002)</p>
	8	9	10
	<p>● ●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Concert Summer Fantasy' 19:30 10,000/7,000/5,000/B.M.C(607-3141)</p>		<p>● The Dance Performance of Pniel 19:30 Free/Pniel High School of Arts(582-9175)</p> <p>●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15	16	17
<p>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Friend' with Nanse Gum 11:00, (11-3)</p> <p>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Dance 'Summer Night's Dance' 19:30 (2)</p>	<p>● The 41st Regular Concert of Busan National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Orchestra 19:00 Invitation/Pusan M&D Orchestra(010-8502-7613)</p> <p>● The English Musical for Children 'The Peterpan' 16:00, 19:30 10,000/Seo Jeonga(010-7503-6564)</p>	<p>● Happy Ensemble 'Happy Concert with the family' 19:30 10,000/Lee Honggil(010-3839-1084)</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 17:00 1,000/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607-3161-2)</p> <p>● The 18th Regular Concert of Busan Youth Orchestra 19:30 Invitation/Busan Youth Orchestra(010-3661-6806)</p> <p>●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22	23	24
<p>is & Oh Jooyoung 19:30 10,000/Busan Culter(1600-1803)</p>	<p>● ●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Special Project Concert 'The Cool Concert Likely Ice' 19:30 20,000/10,000/B.M.T.O(607-3121-3)</p> <p>● ●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6 'Rose Inn' 20:00 30,000/B.C.C(607-6058)</p>	<p>● ● Puellarum Pragensis & Oh Jooyoung 19:30 70,000/50,000/30,000/20,000/Busan Culter(1600-1803)</p> <p>● The 21st Regular Concert of Dong-A Medical Chamber Orchestra 19:00/Free/D.M.C(010-4182-2622)</p> <p>● ●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7 'Bulldog Mansion' 20:00 30,000/B.C.C(607-6058)</p>	<p>● The 1st Regular Concert of Busan Citizens Orchestra 17:00 20,000/Busan Citizens Orchestra(624-0234)</p> <p>● The 13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Youth Orchestra 18:00 Invitation/Incorean Youth Orchestra(010-4842-6688)</p> <p>●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29	30	31
<p>Concert of Kosin Medical University 19:30 10,000/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010-8510-9903)</p>	<p>● The 1148th MBC Thursday Classic Concert 19:30 10,000/5,000/Cultural City Network(760-1494)</p>	<p>●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Well-being Concert 'Cavalleria Rusticana' 11:00 10,000/B.P.O(607-3111-3)</p> <p>● Theater 'My House The King Lear' 19:30 30,000/Jo Geumhui(010-8510-9903)</p>	<p>● The 5th Corporations-love Concert 15:30, 19:30 Invitation/KNN(1599-0048)</p> <p>● The 32nd Regular Concert of IJMO 19:00 Free/IJMO(010-6865-0688)</p> <p>● Theater 'My House The King Lear' 17:00 30,000/Jo Geumhui(010-8510-9903)</p>

2013년 8월 공연일정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p>전시실</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하루오시마다 특별전-중전시실 8월 2일(금)~5일(월) 2일 14:30 오픈식 이후 관람 15:00-17:00, 3일~5일 13:00-19: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한국화 동질성 전-대전시실 8월 10일(토)~16일(금) 부산대학교(510-2925)</p>	<p>국제서화예술전-대, 중전시실 8월 29일(목)~31일(토) 국제서화예술전(702-2250)</p>		
<p>4</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부산국제마술대회 본선 13:00, 나이트 갈라쇼 19:3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스페셜 위너쇼 15:00 기획공연 '료&김유정국' 17: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명인퍼포먼스 10:00, 클로즈업 17: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5</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부산국제마술대회 결선 및 시상 13:00, 나이트 갈라쇼 19:3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하루오 시마다 스페셜 토크쇼 15: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2013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명인피드백 10:00 홍성훈, 김민형의 매직라디오쇼 11:00, 클로즈업 17: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p>	<p>6</p>	<p>7</p>
<p>11</p>	<p>12</p>	<p>13</p> <p>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8266-3298)</p>	<p>14</p>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p> <p>부산시립무용단 2013 한류무용축제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p>
<p>18</p>	<p>19</p>	<p>20</p> <p>YMD 윈드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YMD 윈드오케스트라(010-3496-4445)</p>	<p>21</p> <p>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사계' 19:30 7만원·5만원·3만원·2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p>
<p>25</p> <p>2013 소아암 및 백혈병어린이 돕기 행복콘서트 19:00 3만원·2만원/사단법인 예술과 미래(010-4569-5400)</p> <p>WINE'Z Summer Tasting Music Concert 19:00 1만원/김기태(010-2328-9639)</p>	<p>26</p>	<p>27</p> <p>부산시립합창단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의 합창축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5천원·3천원/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010-2565-9780)</p>	<p>28</p> <p>고신의대 관현악단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고신의대관현악단(010-2565-9780)</p>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인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8	9	10
	15	16	17
	22	23	24
	29	30	31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포도향 가득한 영천

2013년 9월 13일(금)

싱그러운 자연과 별빛 가득한 영천으로 떠나는 늦여름 여행. 영천의 상징 포도와 함께 하는 오감 여행을 시작으로 영천의 정신적 지주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임고서원, 조선 3대 가인 박인로의 위패를 모신 영천 도계서원 등에서 특별한 하루를 즐긴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영천 도착, 포도따기 및 와이너리 체험,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30 중식
- 13:00 임고서원, 도계서원, 광릉 답사
- 17:00 부산으로 출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2013년 10월 11일(금)

소백산과 태백산이 만나는 아름다운 선비고을 영주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소백산예술촌을 중심으로 선비문화, 불교문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특별한 가을을 즐겨본다.

- 10: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4:00 소백산예술촌 도착, 마을 탐방 및 사과따기 체험
- 17:00 부석사 나들이-예불체험, 박물관관람, 부석사 일몰 감상
- 19:20 저녁 식사
- 20:00 소백산예술촌 문화체험,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21:30 부산으로 출발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August Vol.26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센텀점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10%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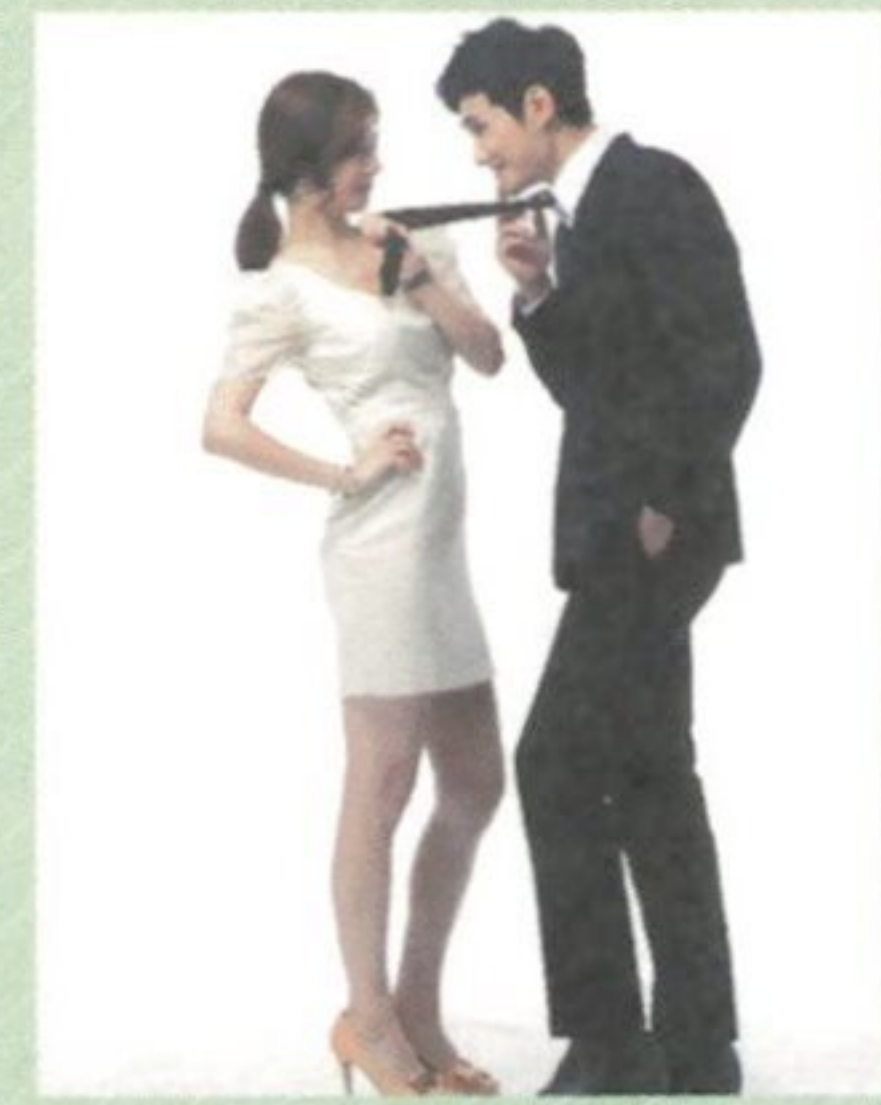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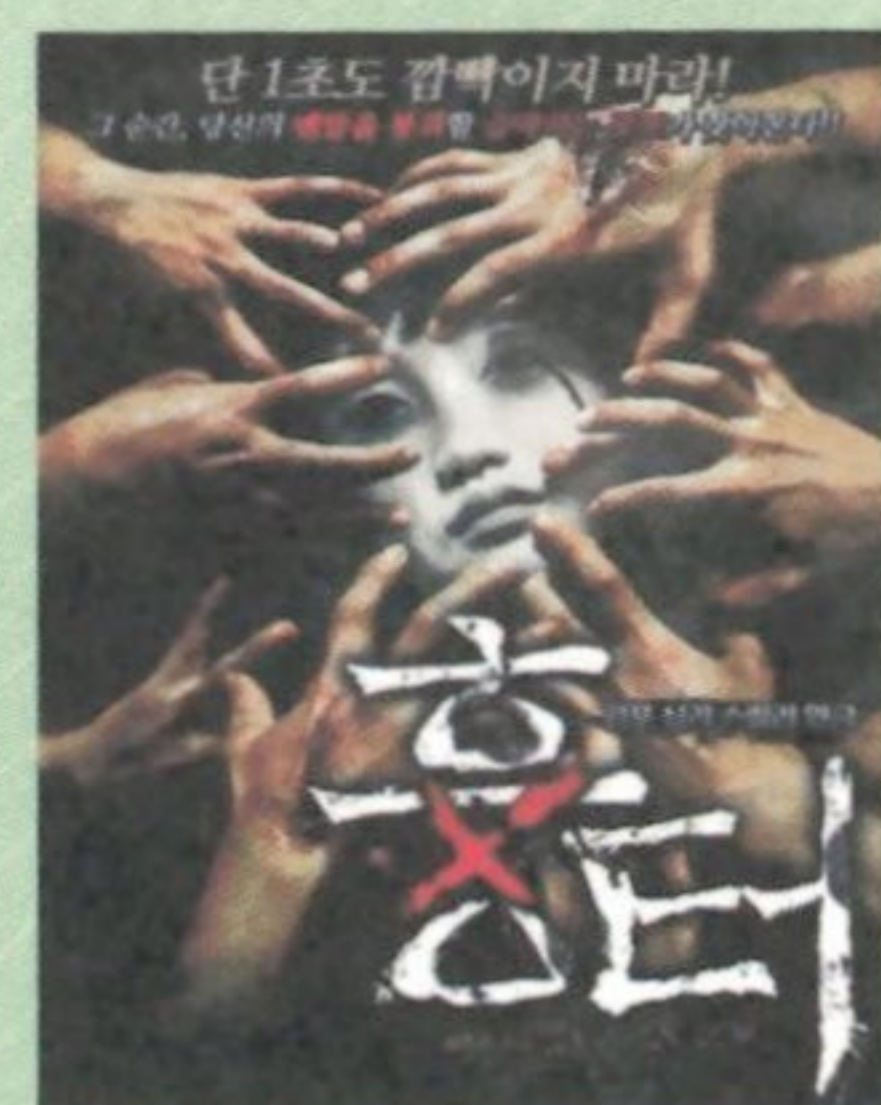


Newtop Dental Clinic
해운대뉴탑치과



20% Discount

연극
작업의 정석



20% Discount

공포연극
흉터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의 합창축제

150인의 대합창

8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울산문예회관 대강당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김해 문화의 전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지휘/이영만(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터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가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터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탐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작업의 정석'

2013.7.19(금)-8.18(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휴관)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공포연극 '흉터'

2013.7.19(금)-8.18(수)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휴관)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경성대학교 비너스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August Vol.260

culture.busan.go.kr

2013년 9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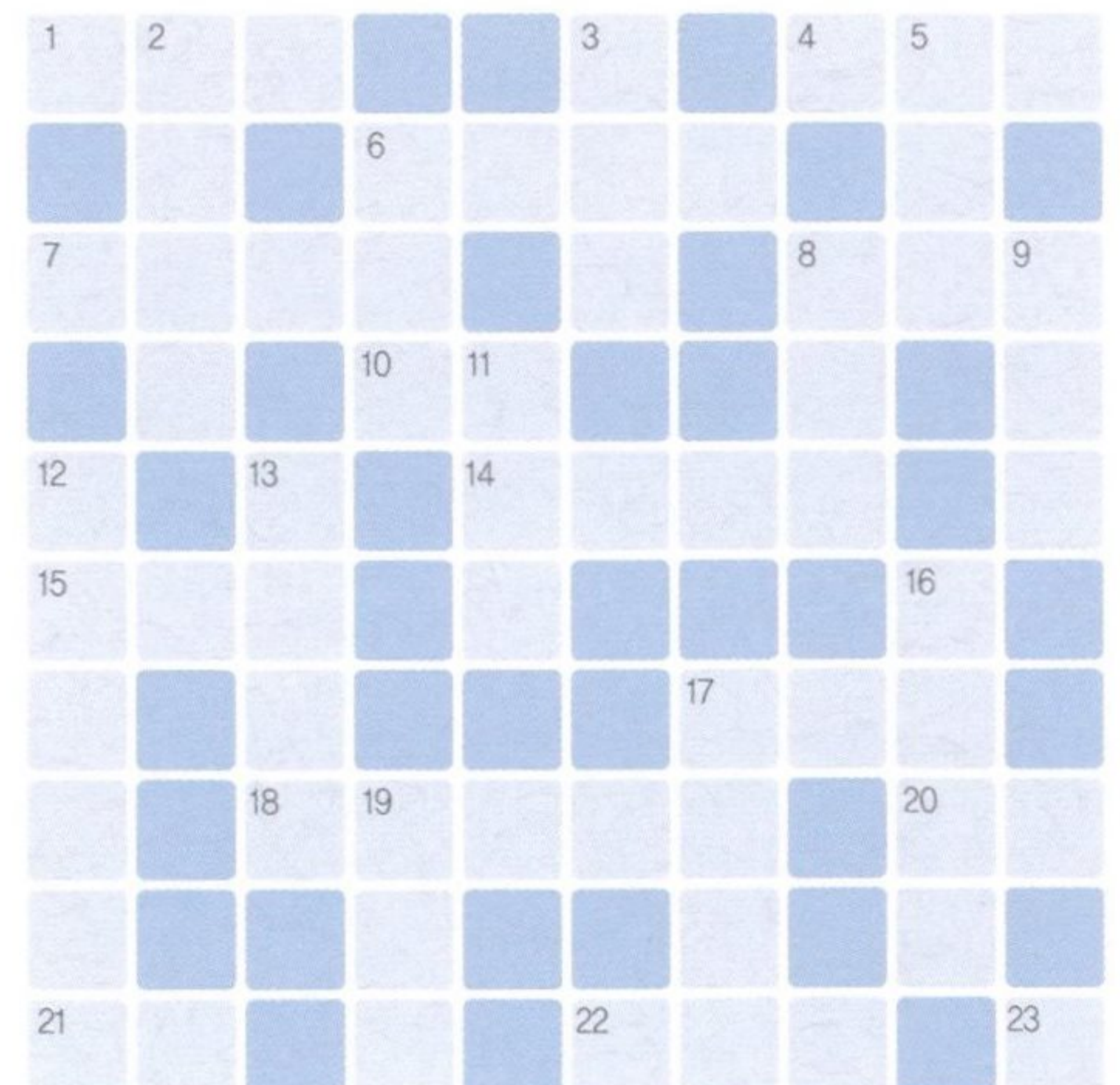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값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값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크리스마스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3. 8. 22(목)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 ◆ 국악관현악 [신뱃놀이] 작곡 : 원일
- ◆ 국악가요 노래 : 박애리
- 공항의 이별 외 2곡
- ◆ 창과 관현악 [수궁가 중 가자 가자 어서가자]
- 편곡 : 김희조 / 창 : 박성희
- ◆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
- 편곡 : 백규진 / 노래 :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외 2곡
- ◆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작곡 : 이경섭
- 설장구 : 국악전문단체 '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김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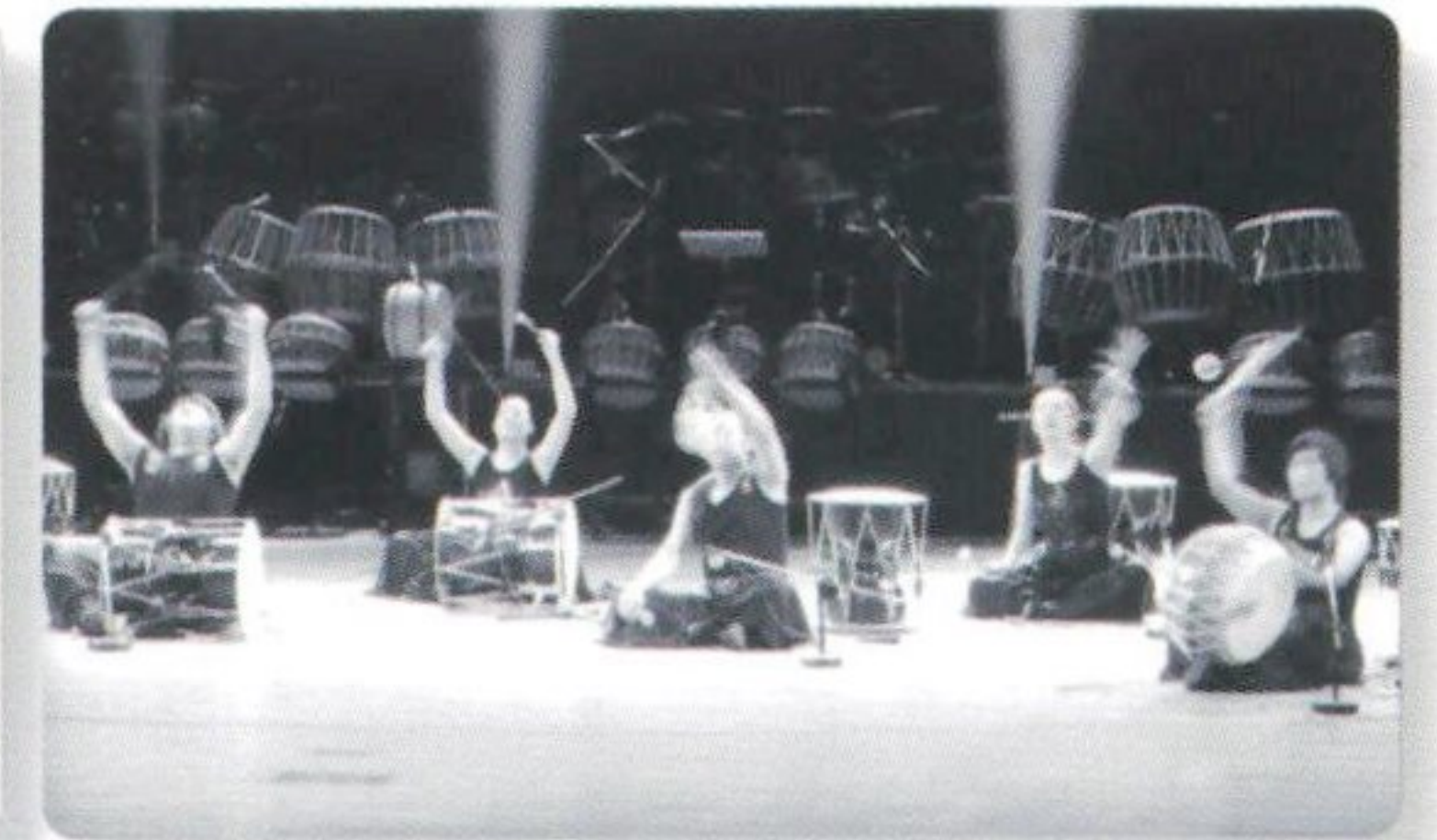
사회·노래 | 박애리



가수 | 이상우



소리 | 박성희



국악전문단체 | 타로

티켓 정보 _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주최 _ 부산광역시 | 주관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후원 _ 내일신문

예매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전화예매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만 가능)

공연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셔틀버스 운행 (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역대 최다 12개 부문 노미네이트!
역대 최다 8개 부분 수상
한 작품 최초 남녀 주연상 동시 수상!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 한 아름다운 황후

Isabella
DAS MUSICAL

엘리자베트

A Musical by Michael Kunze and Sylvester Levay
Directed by Robert Johanson

엘리자베트 옥주현, 토드 박효신, 루이지 루케니 이지훈

2013. 9.14(토) ~ 15(일) 오후 2시, 7시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